

제429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정기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4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00시00분 개의)

○소위원장 박수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소위원장 박수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부대의견이니까 일부 수정 의견 위주로 일괄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어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부대의견이 남았습니다.

163쪽, 부대의견입니다.

2번, K-게임 라키비움 조성 사업 사업내역 및 위탁기관 변경 필요.

166쪽입니다.

10번, 한국영화 성평등 분야 안정적 운영 필요.

11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 배분 계획 제출 필요.

167쪽입니다.

13번, 세계경주포럼 내역사업명 변경 및 개최지 공모 전환.

14번, 퇴계학 진흥 연구 내역사업명 변경 및 공모 전환.

170쪽입니다.

20번, 면목동 도서관 및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171쪽입니다.

24번, 국립고령박물관 건립 필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2번, K-게임 라키비움 조성 사업 부대의견 수정대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게임 라키비움(박물관) 사업명을 ‘국립’ 대신에 대한민국게임박물관으로—이하 같습니다—변경하고 추진체계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다. ‘국립’을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166쪽 10번, 한국영화 성평등 분야 안정적 운영 필요.

이것은 수용이 좀 곤란합니다. 이유는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운영 업체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 11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 배분 계획 제출 필요. 부대의견 수정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및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이 70억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지원하고 2026년도 만화산업 육성 예산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양 기관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배분 계획을 제출한다.

다음, 167쪽입니다.

세계경주포럼 관련 사업입니다. 부대의견 수정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경주포럼 내역사업 명칭을 글로벌 문화창조산업포럼으로 변경하고 2027년도부터는 공모로 사업지를 선정한다.

다음 14번, 퇴계학 진흥 연구 등입니다. 부대의견 수정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퇴계학 진흥 연구 내역사업을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내역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음 170쪽 20번, 면목동 도서관 관련입니다.

이것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수용 곤란 사유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 이양 사업이므로 보조금법에서 보조금 지원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 곤란합니다.

다음 24번, 국립고령박물관 건립 필요 관련입니다. 부대의견 수정대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타당성·시급성 등 박물관 타당성 연구 선행 후 단계적 건립계획을 마련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세계경주포럼 내역사업명 변경 및 개최지 공모 전환 이것 어떻게 내역사업명을 변경하려고 그러나요?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명을 세계경주포럼에서 글로벌 문화창조산업포럼으로 변경하고 27년도부터 개최 도시를 공모로 전환해서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김승수 위원 지역 간 형평 제고에 앞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이게 잘 돌아가겠나 싶네요. 한 군데에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올해 경주에서 APEC이 개최된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100% 공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올해 APEC 개최지인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지정하고 내후년부터 공모로 전환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수정 부대의견을 내신 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계원 위원 부대의견 수정한 자료를 받고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제출해 주세요.

○조계원 위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세요.

○조계원 위원 10번, 지난번 국감 질의에서 존경하는 손술 위원님하고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이게 거버넌스로 운영해 왔던 것을 지금 연간 단위 입찰 방식으로 함으로써 성평등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법적 대응에 크나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찰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심각한 문제가 지금도 오히려 위탁한 업체보다 든든에 더 많은 성평등 피해자들이 부탁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범적인 거버넌스로 인정받았던 사업을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피해자 지원은 더 소홀히 되고 그런데도 이것을 끝까지 입찰 방식으로 가

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현재 국가계약법과 관련 규정상으로는 사실 저희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자들이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부대의견 수정안은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조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성희 국장의 답변이 다소 의례적인 것 같긴 하나,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담긴 진심도 제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성희 국장님, 지금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후에 자료로 그것을 한번 제출을 의원님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의……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죄송한데 자료 요구 조금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자료 요구?

○김승수 위원 예.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저작권국을 뛰어넘어서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 것을 못 봤거든요.

110페이지, 70번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72번 선도형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R&D) 그리고 74번 저작권 및 AI산업 상생협력 지원하고, 75번 온디바이스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이것 구체적인 사업조서 좀 내일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시간에 마치 본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는 아니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오늘 김영수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조언 이런 부분들을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잘 정리하셔서 내일 보류 심사에 잘 임해 주시고 또 보류 심사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사전 의견 조율 과정에서도 좋은 의견 개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0분 회의중지)

(00시2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보고의 원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측이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임오경 위원** 준비 다 돼 있대요. 작년에 감액이 한번 있어서 다 준비를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제가 사전 검토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런데 준비된 원칙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 그것을 준비는 하셨으되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의사 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의 원칙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원칙적으로 뒤에 보면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총액사업으로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작년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수용 불가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예 그렇게 만들어 온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번 심사자료에는 그렇게 다 의견을 넣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김승수 위원** 예산심의할 때 바로 이런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일부 수용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적은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1쪽입니다.

2번, 국가유산콘텐츠 개발·보급.

동 사업은 수주업체 선정 시 평가 방식의 일방적 변경, 평가위원의 임의적 구성 및 특정 업체의 지속적인 수주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해당 문제의 감사 및 수사 종료 전까지 사업 진행 및 사업 방식 변경 검토가 필요하고 국가유산 디지털 원형 데이터 구축 사업은 하도급업체들의 미승인, 입찰담합 의혹 등의 소명이 필요하므로 29억 9500만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정부 측 의견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서 국가유산의 디지털 원형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을 민간에 오픈소스로 제공해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산업적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김재원 위원님께서 이번 국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업구조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개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는 꼭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30% 삭감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 하는 데는 충분히 민간에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김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정부 측의 대책을 말씀하신 겁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 위원들은 저희 내부가 아닌 순수하게 외부로만 구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인력 풀을 많이 늘려서 랜덤하게 전문가를 뽑아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앞으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정부 측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하셔야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를 포함해서 김재원 위원님 의견 들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국가유산청 R&D 관련해서는 카르텔 관련으로 국감 지적했던 사업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감사 때 감사 및 수사 종료 때까지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심사위원 외부 구성하겠다, 전문가 랜덤하게 뽑겠다 이런 정도의 방책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카르텔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도급 업체들의 미승인, 입찰 담합 의혹 이런 것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걷어 내실 건지에 대한 방책 같은 것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이것 유지하려면 인력 풀이라든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계속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체 감사가 필요한데, 그런 문제점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 자체를 못 한다면 그동안 했던 사업의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절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의 아주 중대하고 정말 타당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연속선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전부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현재까지 노력을 최소한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김재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책 수립이 예상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는 김재원 위원님에게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상황 보고 그리고 대책이 수립돼서 시행되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각별한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또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한 확답과 확약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은 정부 측 의견대로 원안을 유지하는 것

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조계원 위원 정부 측 의견은 30% 감액입니다. 김재원 위원님이 얘기한 감액안에 대한 30%.

○소위원장 박수현 30%를 감액하는 것으로 아까 의견을 말씀하셨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 그 원안대로, 말씀하신 원안대로……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정부 의견대로 30% 감액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되겠습니까?

○김재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 외부 구성, 전문가 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카르텔이 생기는 원인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 적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카르텔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적은 전문가 풀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사람들을 뽑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요. 그리고 깎고 싶은 생각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카르텔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담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다면, 정부 사업에 대해서 거의 독점적인 구조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자는 얘기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모니터링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대안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보고하시면 30%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위원장님, 정부 측에서 얘기한 30% 감액에 대해서 금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30%를 계산해 보니 8억 9850만 원인데 금액을 정확하게 8억 9850만 원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3쪽입니다.

3번, 국가유산 교육 활용 진흥.

내역사업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국가유산의 본질적 가치보다 관광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행사성 사업으로 국가유산 보존정책의 방향성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41억 9500만 원 증액분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하단에 보시면 내역사업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제작 및 행사 추진을 위해 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수용하면서 단, 개최지 선정 재공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4쪽입니다.

내역사업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1억 5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지금 2번 마치고 3번으로 넘어갔는데요. 2번에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우선 민형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보급(1131-303) 여기 보면 200억 원짜리, 김재원 위원님 감액 의견 주신 다음번 기존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사업의 미복원 신라지역 디지털 재현과 초격차 대국민 체험형 콘텐츠 제작을 위해 200억 원 증액 이거를 수용이라고 하셨네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사유가 뭘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차장님?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신라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를 디지털 콘텐츠로, VR이나 이런 체험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지난번 국정감사 때 혹시 안 계셨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 사업 맞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민형배 위원 이 사업을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지난번 국감 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 왔는지 살펴보고 있는 과정 아닌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정리가 되기도 전에 200억 원 증액을 수용한다고 하셨네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민형배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이 요청해 가지고 국비를 전액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사업비에서 70억이었나요, 80억이었나요? 중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감액 조치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200억을, 그것도 증액을 받아들이신 이유가 뭘니까? 그 사업도 지금 제대로 안 됐고 그 사업 과정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 중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도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님, 이것 보류해 왔다가……

○국가유산청산업육성팀장 신성희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래 270억 예산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2년간 절반으로 감액이 되면서 대상 지역에 대한 구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완성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완성도 때문에도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민형배 위원 예, 그럴 수는 있겠어요. 아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이걸 서면질의를 하셨겠지요.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자, 우선 금액이 본사업보다 더 많아졌어요. 당초 270억에서 80억 감액해서……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90억 감액해서 180억으로 사업을 끝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 90억 감액했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180억으로.

아직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올해까지.

○민형배 위원 그러면 본사업이 원래 있었는데 커버하지 못한 사업이 본사업보다 더 커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 전혀 검토를 해 보지 않고 일단 그냥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 지금 그렇게 된 건가요?

○국가유산청산업육성팀장 신성희 완성을 한 이후에도 오픈형으로 체험하는 공간까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민형배 위원 아니아니,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요라도 나와야지.

그리고 이것은 정해진 것 아니에요, 대상 지역이?

○국가유산청산업육성팀장 신성희 예, 애초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애초에 정해져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원래 있던 사업보다 더 커진 건데, 지금 이를테면 계속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가유산청산업육성팀장 신성희 예, 사업자는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형배 위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사업자가 변경되면 그 기술을 어떻게 이어 가며 내용을 어떻게 계속 이어 가며……

○소위원장 박수현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김승수 위원님의 의도는 알겠고 이걸 수용한 의미는 알겠는데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이것이 상호 연관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문제를 했었는데 원래 사업보다 더 큰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유산청의 설명을 제가 가만히 듣고 있어도 납득이 잘 안 가요. 설명이 풍부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 보류 심사 때 다시 자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승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국정감사 때 민형배 위원 지적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은 일부 해소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사업보다 더 커진다는 것은 아니고 원래 사업의 3차 연도 사업에서 90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원래 사업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증액을 시켰는데 민형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갈 것이냐, 또 이게 어차피 3년 사업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투입돼야 될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내년도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액시켜서 투입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아니면 적정 규모로 조정해서 투입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그런 설명자료를 내일 가져오셔서 가지고 설명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내일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내일 설명을 잘하세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안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200억을 책정한다는 얘기는 3년 동안 190억 들어간 것의 3배나 되는 거예요,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내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민형배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내일 설명을 자세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수석전문위원, 다음 어디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3번 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이야기했나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의 첫 번째 사업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41억 9500만 원 삭감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국가유산 자체에 대한 홍보 효과도 크고요. 또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되게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공모를 하는데 2.4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늘면서 종전의 7곳에서 12곳으로 지역을 늘려서 이미 12곳 선정이 돼서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될 경우에는 내년도 지자체 12곳에서 하는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런데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진중오 위원님의 감액 사유는 뭐냐 하면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관광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행사성 사업이고 국가유산 보존의 방향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그 부분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야간에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내용으로 콘텐츠가 구성되게 됩니다. 본질은 관광이 맞겠지만 그 영상의 내용들은 해당 국가유산의 내용과 역사성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본 분들은 그 가치를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이나 진중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승수 위원**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시작해서 36개소에서 개최가 됐지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사후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지자체에서 만든 미디어아트 콘텐츠는 지자체가 정부랑 같이 IP를 공유하고 지자체에서는 그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나중에 행사 같은 것들에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도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유적들 이런 부분과 첨단 AI 또 미디어 기술이 결합된 그런 사업들인데……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보통 한 달 정도씩 일단은 공연하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공연합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숫자를 더 늘렸는데 그러면 21년도에 만들어진 미디어아트하고 올해 만들어진 미디어아트하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졌느냐. 계속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단순히 개최 기간 한 달 동안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유지·보수나 이렇게 되면 계속 그것이 1년 365일,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기존의 문화유적과 이런 미디어아트를 통한, 콘텐츠를 통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김승수 위원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의 후속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현을 해 달라는,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일회성의 한 달 동안 하고 덮어 놓는 게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계시고요. 다만 사후 활용 방안의 연속성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금 주문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이 건은 정부 원안대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정부 의견 말씀하시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3쪽 아래 세 번째에 있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화성에 8억 증액하는 부분은, 이 미디어아트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 증액은 수용을 합니다마는 수원을 지정해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이것도 8억이 증액된다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 개최지를 재공모 선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민형배 위원 그러게요. 아까 부산국제영화제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요……

○민형배 위원 방법이 지금 공모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공모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2개 시도 선정했지 않습니까? 일부 시도는 기존에도

선정이 됐었는데 또 선정이 돼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 기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면 거기에 증액된 만큼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기준에 더 적합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지금 이게 두 안이 있잖아요? 지금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인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75억 51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제작 및 행사 추진을 위해 8억 원을 증액한다는 이 내용이 사실은 겹쳐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요. 같은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2개의 액수를 합치셔도……

○소위원장 박수현 합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합쳐서도 수용 가능합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증액 규모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5억으로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아닙니다. 8억을 증액 더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민형배 위원 83억 5100만 원?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다 하여튼 공모한다 이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거기 개최지 선정 재공모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니까 올해 이미 공모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 예산이 더 늘어나면 추가 공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형배 위원 어차피 공모한다는 뜻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아직 4쪽이 남았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4쪽 첫 번째 사업, 안내판.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1억 56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5600만 원 감액, 정부에서는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의견이 이 자료에는 수용 곤란으로 돼 있는데 수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실태 조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연내에 노력하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좀 더 사업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김승수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이 부

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내실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 한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임오경 위원 이게 국가유산 체계 전환이 24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체위 회의에서조차도 문화재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현장에서 지금도 아직 문화재청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이 표현이 번번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 체계 전환 홍보가 더욱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가 전년 대비 48억이나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200개,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400개인데요. 절반 정도가 이 예산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으로 이미 안내판은 정비가 거의 끝났거든요. 그런데 노후화된 그런 안내판들이 있어서 좀 더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11억 5600만 원이 감액되어도 국가유산 체계에 맞는 안내판 정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2026년도에는 문화재청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내용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5쪽,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6쪽입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보수 정비 11억 2000만 원 증액, 경주 양동마을 3억 5000만 원 증액, 경주 양동마을 1억 원 증액.

8쪽입니다.

공주 마곡사 75억 원 증액, 순천 선암사 설법전 42억 7000만 원 증액, 순천 선암사 개방형 수장고 건립 12억 4000만 원 증액.

9쪽입니다.

두륜산 대흥사 일지암 7억 원 증액.

10쪽입니다.

북한 미술·포스터 전시회 3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6쪽 맨 위에 있는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보수 정비 11억 2000만 원 증액은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시굴지 정비하고 석축공사가 필요하긴 한데 설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사업의 설계비 7700만 원, 5600만 원 합해서 1억 3300만 원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안전을 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게 큰 금액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2

년에 나눠서 설계하는 데 1년 또 이거 하는 데 1년이 걸려서 2년이 걸릴 텐데 이렇게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게 몇십억짜리나 몇백억짜리 다년 사업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인데, 단년도 내에 짧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비만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게 사실은 사업의 속도로 보면 예산 나눠서 담고 길어지고 하는 일이어서, 큰 금액이라면 모르겠는데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하면서 시공 들어갈 건데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수정비 운영 규정상에 현재 3억 이상의 공사비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3억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집행률이 60%가 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그마한 공사를 이렇게……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보수 정비 이것은 1억 3300만원 증액으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아래에 있는 양동마을 송첨종택 배수로, 진입로 정비 사업에서 이 송첨종택은 세계유산이 아니고 국가민속유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유산 항목에서 지원은 어렵고, 국가민속유산은 보수 정비 총액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데 비목을 전환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목을 1134-304에서 1233-701, 보수 정비 총액사업으로 이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 아래에 있는 경주 양동마을 1억 증액은 이게 종합정비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합정비계획은 10년마다 저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에 수립을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27년도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7년도 신청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다음에 8쪽에 두 번째, 마곡사 수장고 건립 75억 증액은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이 어렵습니다. 저희 보수 정비 사업의 지원 원칙은 지방비와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선암사 설법전은 문화유산 명상관 설립인데 체험관이나 명상센터 같은 설립은 저희 보수 정비 사업의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조계원 위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것은 문체부의 템플스테이나 명상센터 이런 지원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다음에 순천 선암사 수장고 건립 12억 4000만 원은 26년도 예산에 이미 기본계획 1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2억 4000만 원 증액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다음에 9쪽 맨 아래에 있는 두륜산 대홍사 7억 원 증액의 경우에는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다음에 10쪽에 두 번째,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시 북한 미술·포스터 전시회 운영인데, 이 부분은 사실 세계유산위원회 행사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북한에 있는 세계유산, 북한이 갖고 있는 세계유산을 내용으로 전시나 이런 행사를 한다면 세계유산위원회와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바꾼다면 저희가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수용 곤란인데요? 조건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북한에 있는 세계유산 관련 미술·포스터 전시회로 한다면……

○**김승수 위원** 차장님, 아까 제가 수용으로 돼 있어서 논의 없이 지나갔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이 내년도에 전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앞서 4페이지의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에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 남북유산 자료관 조성, 금강산 구역 문화유산 포럼 및 분포지도 제작 또 뒤에 북한 전자문화지도 구축,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사전조사가 되었나요?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고 중국 내 우리 유산 지정 목록화 현지조사, 이게 중국의 문화공정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증액시킨다는데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중국이 이런 목적으로 현지조사 하는 것을 허용해 줄까요?

○**소위원장 박수현** 하여튼 김승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취지가 좋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지적이신데 지금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이 부분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정부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여기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취지의 말씀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가능성을 내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 부분.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사실 남북교류 사업은 북한이 같이 호응을 해 줘야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그런 때가 왔을 때 개

성 만월대 공동조사라든지 DMZ 지역 공동조사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비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수용 의견을 낸 것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국가유산청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성공단은 다 일방적으로 폐쇄됐고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일방적으로 폭파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전적으로. 이 사업연도에 가능하리라는 예산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계원 위원** 그래도 일단 내년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만큼 남북 간에 세계유산을 같이 함께 전시하는 그런 효과는 상당히 일단 3억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게 실현이 된다면 그 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수용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 지금 어떤 부분을 수용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조계원 위원** 임오경 위원의 3억 원 증액안이요. 그것을 유산청에서는 북한의 세계유산 관련일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번,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에 관련한 13억 증액, 8억 증액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내일 다시 한번 설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지금 조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오경 위원님의 3억 증액안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함께 하신 다음에 보류 심사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2쪽입니다.

8번, 매장유산 보호 및 관리 지원.

내역사업 보존유적 관리 지원은 후백제 도성 유적 현지 보존을 위해 토지매입비 10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의견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이 대상이 종광대라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곳인데 이것이 시도 지정유산입니다. 국가지정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잠깐만, 지금 어떤 부분 설명하신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12쪽에 두 번째.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민형배 위원** 이게 국가유산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데 방법이 없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혹시 차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시도지정유산인데도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한 번도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진짜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데?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2005회계연도 이후로는 없다고 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2005년도 이후로는 없었다? 왜 없었습니까?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위원님, 예전에는 지방교부세도 시도지정유산에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권교부세로 강화되면서 국가 사무와 지자체 사무가 구분되면서……

○민형배 위원 군특회계가 생기면서 이게 사라졌어요?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형배 위원 군특회계는 그것보다 훨씬 뒤에 생겼는데?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사무가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 사무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지자체는 그보다 훨씬 전에 생겼고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외적으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이번에 영남지역 산불같이……

○민형배 위원 알았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 예외적인 상황 말고요. 시도, 광역단위 지자체 지정유산의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지방문화재는 한 번도 없었다? 국비로 지원한 적이 없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2005년 이후로.

○민형배 위원 그런데 아까 그런 사업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4쪽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잠시만요, 14쪽 넘어가기 전에 13쪽에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관리, 내역사업 구 서울역사 근대유산 가치 회복 및 활용에 관한 것이 있는데 아까 문체부1차관 소관 심사를 하면서 내역사업 중에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운영비 16억 원은 국가유산청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위탁 집행 예정인 만큼 전시공간 투어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 증액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유산청에서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서 내일 보류 심사 때 그 부분에 대한 여부를 함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4쪽입니다.

11번, 국가유산 수리기술 진흥 관련해서 두 번째, 국립 한국전통건축 아카이브센터 구축을 위한 5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동 사업은 수덕사가 소유하고 있는 민간 건축 관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갖고 있는 박물관 같은 것을 정부가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이 한국전통건축, 고건축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한 시설을 하나 만들자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미 수덕사에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국가에서 새로운 데 용지,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보다는, 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한 것들을 정부가 새로 짓는 것보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마는 사실은 전통건축수리기술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파주에. 거기서 전통 수리 관련되는 목재도 갖고 있고 부재도 갖고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현재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하여튼 수용 곤란한 정부 측 의견대로 결정을 하는데, 다만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김승수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하여튼 민간 소유의 이런 박물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원칙은 알겠어요. 그러나 혹시 그 건물, 박물관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국가가 매입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사까지 김승수 위원님의 의견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에 민간 소유 박물관을 국가가 매입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 논리에만 매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하여튼 정부 측 의견대로 의결은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14쪽까지 했는데요 정확하게 1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분량을 보니까요 거의 3시 반에서 4시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어차피 지금 보류 사안도 있고 아침에 9시부터 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유산청이 오랫동안 대기를 해서 기다렸다가 심사를 하는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끝까지 심사를 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차피 내일 보류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오늘은 적당히 체력을 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장군님으로 불리고 가장 체력이 좋으신 조계

원 위원님이 저렇게 호소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보니까 조계원 위원님 예측대로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조계원 위원 아는데, 수용 곤란이 엄청 많습니다. 보십시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앞서 우리가 기준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예, 맞아요.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일 것 같은데요?

○김승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1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그 기준에 따라서 국가유산청이 한 대로 정부안을 수용하면 그냥 끝나 버리거든요.

○소위원장 박수현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내면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지금 1시 5분 됐는데 앞으로 30분 동안 달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원칙대로 하시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5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 총액사업입니다.

고양 등 경기도 권역 25년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 및 유지를 위해 257억 2000만 원 증액.

16쪽입니다.

공주 우금치 전적지 정비 25억 5000만 원 증액, 강진 월남사 강당 및 동·서익랑 재현 원형 고증 및 설계 20억 원 증액,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가마터 보호각 건립 19억 9500만 원 증액.

17쪽입니다.

남원 만복사지 보수 정비 18억 2000만 원 증액, 고흥 능가사 사찰음식체험관 건립 및 기존 시설 정비 17억 5000만 원 증액.

18쪽입니다.

여수 석보 보수 정비 15억 원 증액,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관리자 건립 10억 5000만 원 증액.

19쪽입니다.

법흥사 원음루 증축 8억 4350만 원 증액, 서울 석촌동 고분군 야관경관 개선 7억 원 증액, 해남 미황사 일원 재난취약지구 보수 정비 6억 3000만 원 증액.

20쪽입니다.

예산리 고분군 5억 4600만 원 증액, 포항 오어사 5억 원 증액.

21쪽입니다.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숲 일원 배수로 등 재난취약지역 정비 4억 2000만 원 증액.

22쪽입니다.

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정비 사업 2억 100만 원 증액.

23쪽입니다.

맨 하단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홍보 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25쪽입니다.

김해 원명사 진입로 정비 7350만 원 증액.

26쪽입니다.

두 번째, 부안 백산성지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 6000만 원 증액.

27쪽입니다.

상주 용흥사 5740만 원 증액, 고양 태고사 5400만 원 증액, 상주 남장사 4970만 원 증액.

29쪽입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58억 9000만 원 증액, 창원 성주사 공양간 및 종무소 화상실 보수 80억 원 증액, 상주 남장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교남선원 건립 27억 6080만 원 증액.

30쪽입니다.

서울 보문사 19억 1800만 원 증액, 해남 은적사 공양간 8억 4000만 원 증액.

○소위원장 박수현 잠시만요. 29페이지 13번에 해당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정부 의견이 지금 여기 다 있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한 의견만 말씀하시고요. 의견이 없으시면 전체 전문위원 보고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대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지금 각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번까지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있는 정부 측 의견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다만 정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보수 정비 총액사업입니다. 증액 요구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비총액사업인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 사업 항목을 신설했거든요. 이 사업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그 항목으로 넘겨 주시면—액수는 그대로고요—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 그 항목이 어떤 겁니까?

○임오경 위원 그 항목을 정해 가지고 와야지 저희보고 그걸 고르라는 거예요, 지금?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내역사업이 뭐뭐인지 얘기를 해 줘야지……

○소위원장 박수현 항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얘기를 하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15쪽의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 보호시설 건립, 이 사업하고요.

○민형배 위원 이것은 수용했는데요.

○조계원 위원 수용했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것을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1233-702)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6쪽 맨 아래에 있는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가마터 보호각 건립 사업, 그다음 17쪽 맨 아래에 있는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탐방지원센터, 그다음에 24쪽 두 번째 지리산 화엄사 일원 주변 정비 사업 그리고 26쪽 맨 아래 양산 신흥사 대광전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을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으로 이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다음 14번부터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29쪽입니다.

14번,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

창원 성주사 공양간 및 종무소 화장실 보수 80억 원 증액, 상주 남장사 철로비로자나 불좌상 교남선원 건립 27억 6080만 원 증액.

30쪽입니다.

서울 보문사 19억 1800만 원 증액, 해남 은적사 공양간 8억 4000만 원 증액, 해남 서동사 시은각 6억 2300만 원 증액, 천안 광덕사 노사나불 괘불탱 5억 8800만 원 증액, 강진 무위사 명경당 4억 9000만 원 증액.

31쪽입니다.

화성 용주사 불성대보부모은중경판 수장고 3억 5000만 원 증액,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주변 공양간 1억 3650만 원 증액, 청도 용천사 영산회산도 관람편의시설 9520만 원 증액, 나주 죽림사 지장전 7600만 원 증액.

○소위원장 박수현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앞선 회의 진행과 마찬가지로 배포해 드린 자료에 있는 정부 측 의견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각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29페이지의 상주 남장사 교남선원 건립, 계획설계 미제출로 불가하다는 것 설명을 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 교남선원은 올해 3억 6000만 원 예산을 들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 추정이 불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사실 유산 보존기반 구축은 공사비 자체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해야, 그렇게 지금 항목을 분리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김승수 위원 그것만 제출이 되면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전에 있는 사업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34쪽, 내역사업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은 증액 의견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함안화천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은 2억 6700만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의 증액안인 2억 6700만 원을 정부 의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38쪽입니다.

25번, 조선왕릉 보존관리.

조선왕릉 테마형 숲길 융복합 화염감지기 및 화염추적형 방수총 설치를 위해 7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의견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정부 입장은 일부 수용입니다.

동 사업을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실시설계비 5억 원으로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수용하십니까?

○임오경 위원 이게 원래 작년에는 수용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실시설계비로 나왔네요. CC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건가요?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위원님, 작년에 제가 예산심사할 때도 봤던 안건인데요. 작년도도 실시설계비만 증액 의견을 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랬어요?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예.

○임오경 위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정부 측의 5억 원, 일부 수용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26번, 디지털행정 지원도 같은 사항입니다. 증액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26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99억 600만 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39쪽 27번, 국가유산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 국가유산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은 수주업체 선정 시 평가 방식의 일방적 변경, 평가위원의 임의적 구성 및 특정 업체의 지속적인 수주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해당 문제의 감사 및 수사 종료 전까지 사업 진행 및 사업 방식 변경 검토를 위해 3억 9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의견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 부분도 김재원 위원님께서 국감 때 제기해 주셨던 부분인데 사업자 선정 방식 같은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 유존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데이터화시켜서 그것을 GIS에 담아서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체가 지금 카르텔 관련으로 감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러면 국감 때 지적을 하고 사업 진행 및 사업 방식 변경에 대한 그런 것들의 개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 그냥 사업을 계속하게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던 사람들 아무런 징벌적 조치도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계속적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시겠다, 하시겠다고만 하고 전혀 하는 게 없잖아요.

○소위원장 박수현 옳으신 지적 같은데 차장, 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보세요. 국감 지적 이후에 보고드릴 만한 대책을 진행한 게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지금 디지털 분야 사업에 대해서 특정 업체가 그 사업을 오랫동안 맡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사업에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모아서 지금 자체 감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인력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달청 입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주거나 이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고는 드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요,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미 선정이 된 사람들, 지적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하게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아무런 징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나 수사 종료까지는 스톱을 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민들한테 제공해야 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벌 없이 그런 비리나 이런 것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유산청이나 아니면 국회나 우습게 보겠지요, 가뜰이나 풀이 적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 해도 어쩔 수가 없어, 풀 자체가 적으니까. 그 사업 수주해서 누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부분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의 답변은 계속 대동소이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때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촉구하고 그런 의미로 일단 보류는 하는데 내일 보류 심사 때 적절한 감액 규모를 정해서 나오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추가로 32페이지, 무형유산 보호 항목에 대해서 이게 전년 대비 512%

급증한 사업입니다. 95억에서 582억이요. 초대형 증액 사업 같습니다. 세부 내역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 요구가 수용이 됐는데, 예산 확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과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따져 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이 119억이고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이 86억이고, 대부분 시설 위주 대형 투자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중복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비 계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근본적으로 무형유산 보호라는 큰 가치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전수교육관이나 예술마을이나 국립무형유산원 분원이나 이런 신규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시설투자만으로 모든 게 쏠려 버리는 느낌이 들고 전승 지원이나 이런 본래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이게 과연 이렇게 급격하게, 512%나 되는 예산을 늘려서까지 이렇게 단기에 뭘 맞춰야 될 급격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규 시설의 위치나 운영 방식이나 인력 계획, 타당성 검토가 과연 제대로 됐는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렇게 건물만 넓다 짓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이 있을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에 내역사업들만 해도 따라 붙어 가지고 증액 요구가 지금 계속 이어졌잖아요. 원예산 자체에 500% 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 검토도 없이 막 증액사업이 붙어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위원님, 무형유산국장입니다.

500%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24년 5월 달에 국가유산 체계 변경이 되면서 무형유산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25년 올해 예산에 원래 무형유산원에 있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형유산국 예산과 무형유산원 예산으로 쪼개지는데요. 작년에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내년에 예산을 분리하면서 기존에 무형유산원에 있던 사업들이 다 저희 쪽으로 넘어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무형유산원에 있던 예산이 다 저희 무형유산국으로, 쓰게 되어 있던 것들이 넘어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한 9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025년 예산편성할 때 항목이 무형유산원에서 무형유산국으로 이체 형태로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올해 못 하고 내년에 그렇게 하면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정연욱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원의 예산 일부가 이렇게 합쳐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설 과잉투자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거예요. 예산 자체의 90억 원 증액이나 그 내역이 아니라…… 내일 다시 이 의견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예.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위원님, 지난해에 저희가 문체위 증액 심사를 하면서 전수교육관 증액분이 한 90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전체 증액이 안 되면서 안 됐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수교육관의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하시지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39쪽입니다.

28번,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정보화).

27번과 같은 사유로 113억 17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 부분도 김재원 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감액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류하시면서 내일 상세하게 말씀드리라고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내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내일 감액 규모를 정해서 나와라라고 하신 말씀은 감액을 결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취지가.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40쪽 29번, 산불피해 향토문화유산 복구 지원.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었으나 복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향토문화유산 10개소 복구를 위해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향토문화유산은 저희 국가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조계원 위원 이것 그것에 해당이 안 되나요, 재해복구로도? 아까 얘기했던……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것은 시도 지정도 아니고 미지정 유산입니다.

○조계원 위원 미지정?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국가 지정 등급이 있고요 그 아래에 시도 지정 등급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비지정 상태에 있는 것 중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연욱 위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임오경 위원 그러면 어디서 받아요?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사실상 법적으로는 비지정 유산입니다.

○이기현 위원 유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정연욱 위원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이게 보존 가치가 없다는 취지에요, 뭐예요?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그러니까 비지정 유산 중에서 자기들이 지켜 보겠다고 해서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만든 것들입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지역의 조례 정도로 감당한다? 그러면 거기서 보존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이런 때는 좀 예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불이 났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유산들인데 그것을 좀 지원해 주시지 그래요?

○진종오 위원 갑자기 아까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임오경 위원 이것을 해 주게 되면 또 계속 이렇게 지역에서……

○민형배 위원 아니, 산불이 났으니까.

○진종오 위원 조례로 지정하시면 되지요, 지역에서.

○소위원장 박수현 하여튼 위원님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또 규정에 어긋나게 할 수 없는 정부 측 입장도 이해가 가므로 이것은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41쪽 30번,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입니다.

부여 공공한옥(백제관) 63억 7000만 원 증액, 웅진 백제 고도 상징가로 조성 사업 5억 원 증액, 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 사업 3억 50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공공한옥 백제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고도육성지구 바깥입니다. 그래서 안에만 저희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웅진 백제 고도 상징가로 조성 사업 역시 고도육성지구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어렵습니다.

부여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랜드마크로 대향로의 형상을 갖춘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마도 현상변경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발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현상변경은 여기서 못 합니까? 어떤 현상변경이지요?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입니다.

현상변경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사적 인근의 허가구역, 우리가 말하는 역사문화 보존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1번 하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고도가 특별보존지구하고 육성지구로 나누어집니다. 특별보존지구는 문화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도중앙심의위원회의 현상변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육성지구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현상변경이 또 필요합니다.

○민형배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정부가 다룰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기는 발굴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디자인이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의 그런 요청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안 된다고 하시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지금……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지역구예요, 이것은.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답변 목소리가 너무 ‘고도육성지구 외에 있어서 안 됩니다’ 하고 자신 있게 크게 말씀하셔서……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국장님, 이것 앞의 부여 공공한옥(백제관)이 역사문화유적 보존지구 외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고도육성지구 바깥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부지를 육성지구 안으로 옮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검토가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냐고 하면 공남지 바깥쪽입니다. 원래 이게 다른 계획으로 수립되는 내용들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 진행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42쪽입니다.

31번, 월인천강지곡 한글금속활자 복원 사업.

월인천강지곡 한글금속활자 복원 사업을 위해 16억 50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것은 기본적으로 4개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사업 4억 4000만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습니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43쪽, 국가유산보호기금입니다.

33번,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운영 지원.

국가유산 정책연구 분야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기본경비 2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국가유산정책진흥원인데요 이게 민법상 재단법인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운영비 지원을 미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임오경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없으십니까? 그러면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47쪽, 부대의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구 서울역사 관리 및 운영 사업의 비목 변경 필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 부분은 문체부 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유산청에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저희가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비목 변경에 대해서 수용하는데, 두 가지 저희가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서울역사의 역사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역의 원래 기능이었던 서울역사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안전진단이나 보수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적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유산청이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활용은 디자인진흥원이 하겠지만 장기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체부랑 유산청이 공동으로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문화유산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또 보고사항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끝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끝입니까.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김승수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국가유산 경관 개선 지원 해 가지고 제가 27억 8000만원 증액을 요청했고 수용을 했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김승수 위원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사업의 집행률이 굉장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거의 신규 사업이지만 지원 액수가 적고 또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매칭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면서, 아시잖아요. 지원도 쥐꼬리만하고.

그래서 국비 매칭 비율을 높여서 하면 훨씬 더 집행률도 높아지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증액 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관철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정부도 7 대 3으로 바꾸는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조계원 위원 7 대 3에서 7이 누구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정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전 10시에 소위를 속개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예산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37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처럼 전문위원께서 두세 건씩 끊어서 보고를 하신 후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정부 측 의견이 담긴 별도의 자료가 배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규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제일 앞애가 소통실이거든요. 그런데 소통실 것이 제일 쟁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너무 뻑뻑하게 가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소통실 건은 뒤로 미루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1차관 또 국가유산청 소관처럼 관광 분야하고 체육 쪽에 보면 굉장히 총액사업, 지역사업들이 많은데 법령상 기준에 안 맞아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심의를 간명하게 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셨는데요. 소통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은 토론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뒤로 미뤄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수 위원님께서 소통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 각오이신가 보지요?

○김승수 위원 전체회의 때도 이야기 많이 하자고 그래서……

○소위원장 박수현 그리고 차관님, 김승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수용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쪽 일괄해서 털어 버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어디부터 보고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규 그러면 1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규정.

○소위원장 박수현 10페이지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용규 먼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권 관광개발.

권역별 사업들의 행정절차 미흡, 대상지의 사업 포기, 부지 확보 지연 등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계속되었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사업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예년 수준으로 삭감하기 위해 690억 6500만 원 감액.

12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기반 조성.

국보인 진남관 주변의 부족한 문화자원을 개발하여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문화콘텐츠 구성을 위한 내역사업 진남관 주변 호국문화 관광 플랫폼 구성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증액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 사업은 수용이기는 한데요 이게 21페이지에 지역지원계정으로 128억 원이 돼 있어서 여기서는 수용을 하고 21페이지에서는 수용 곤란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먼저 광역권 개발 사업 690억 65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집행 부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지특회계로서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면 지자체 간에 형평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도 삭감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우선 이것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감액 의견 내신 김승수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 차관님, 이게 지역자율계정 사업들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행이 부진해요. 작년도 집행률이 어떻게 됐지요, 주요 사업별로 보면? 남부권, 서부권 또 충청권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66% 정도 됩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도 개별 사업들을 보면 50%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사업들도 있던 말이지요. 그래서 계속 불용 또 이월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집행이 원활하게 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국장이 답변하든지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사업별로, 지난해에 집행률이 부진했던 이유가 이러이렇게 했었는데 이러이렇게 시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편찮을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성과 관리와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그에 따라 최대한 저희들이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김승수 위원** 차관님, 우리가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야지 점검하는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이미 이렇게 집행이 계속 부진했으면 점검을 위해서 이래저래 해서 문제점을 해소했고, 이 사업은 이렇게 문제점이었고 저 사업은 저렇게 문제점을 해소했고 어떤 사업은 아직까지 미흡한데 하여튼 해가 바뀌기 전에 해서 내년에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부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삭감을 취소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가 얘기했던 그걸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하도록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고 되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얘기해요.

○**소위원장 박수현**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관광개발과장 이승재입니다.

저희들이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집행 점검회의를 분기별로도 계속 하고 월별로도 하고 그리고 또 반기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도적으로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박수현 의원님께서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고 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나중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환류하고 피드백하는 그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처리해 주시면 집행 부진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의 지적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24년도 집행률이 66%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답변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과장의 답변도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할 이야기지 지금 그것을 대책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까지 포함해서 김승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잘 드리시고요. 오후에 보류 심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진남관 주변 호국문화 관광플랫폼 조성에 2억 원 증액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게 뭘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2페이지, 진남관 주변 호국문화 관광플랫폼 사업 2억 원 증액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게 언제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특정 단일지역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소요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의원실에서 이거에 역점을 두고 있고 지난 예결위 질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장관 질의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수용 곤란이 나오니까 제가 아주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일을 처리해요? 문체부, 예결위 질의나 이런 거 검토 안 해요?

○**소위원장 박수현**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조계원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도 이미 질의를 하셨고 정부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신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방 이양 사업이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 그 단순 명쾌한 사실을 왜 예결위 답변에서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므로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무슨 대안 같은 것들은 없는지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차관님 그리고 실장님,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 관광자원과 관련된 지역 사업들하고 뒤에 나오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신청한 체육시설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지방 이양이 됐고, 그런데 그때 지방 이양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는 시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지원이 돼서 완전히 작년에 종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명쾌하게 이후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쓸데없는 논의 없이 진행하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였고. 다만 지방 이양되기 전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국비가 책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후에 상황 변화라든지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에 정률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에 제가 질의를 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관계 부처에서 검토 결정할 사안이어서 일단 여지를 남겨 뒀단 말이지요.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기초실장이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지방 관광개발 사업, 특히 지역자율계정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차관께서 보고드렸듯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난 2020년부터—이거는 항목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관광지 개발 조성,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등의 지역 관광개발 사업은 2020년부터 소요 재원 등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유사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반영될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저희가 보고 올린 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균형발전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높은 서울시의 지원 예산은 원칙적으로 국비 반영이 곤란하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지역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시 한번 조계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시고요. 이 문제는 보류 심사 때 결정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분명하긴 하지만 예결위에서 조계원 위원님께 하신 답변 이런 내용들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설명 후에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김용규 15쪽입니다.

미식관광거리 조성으로 미식관광 세계화 및 글로벌 미식산업화를 추진하는 JK-Food 미식관광 명소화 사업을 신규 편성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설계비 30억 증액.

16쪽입니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연계하여 체류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라 K-Lake 조성 사업 신규 편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김승수 위원 전문위원님, 뒤에 지금 똑같은 사업들이잖아요, 똑같은 목에. 그냥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관악구 사업 3개인데요. 17페이지에는 관악산 하늘길 조성 사업 249억 5000만 원이고, 그 밑에는 낙성대공원 힐링여가공간 조성 사업 9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8쪽, 청룡산 힐링여가공간 조성 사업 99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 원도심에 디지털 관광과 연계한 거점 조성 1단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조금 전 기초설장이 기준 설명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논리로 지방 이양된 사업과 그리고 서울시로 지원하는 사업, 지금 설명된 모든 예산들이 지방으로 이양을 했거나 아니면 서울시 지원 예산이라서 다 똑같은 논리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정리합시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5쪽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5쪽, 미식관광 명소화 사업, 특정 단일지역 관광 인

프라 조성 사업은 지방 이양되어 증액안 반영은 수용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것은 원칙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로 이런 사업은 아예 국비가 투입된 적도 없고 앞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원칙상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예외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예외가 있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 원칙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예결위 마지막 단계에서, 아마 소소위나 이런 일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2020년에 이양이 됐는데 그때 확정된 사업 중에 계속사업은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추가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됐고 그 이후에는 안 됐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로 몇 가지 이렇게 예결위에서 끼워 넣기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 예결위 때도 지적이 됐었고 그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또 지적을 받은 사항이다 이런 말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그 이후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경우가 어떤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래야 저희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그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자료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바로 좀 주세요.

○조계원 위원 저희도 주세요.

○임오경 위원 저도 미식관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중앙 차원에서 K-푸드, 한식 글로벌화 등 음식문화 연관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K-푸드로드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하고요. 지특회계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문체부에서 기금사업으로 K-푸드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공모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임오경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좀 전에 K-푸드로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공모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체부에서 지금 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게 공모사업이면 거기에 공모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K-푸드로드는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오경 위원 내년엔 신규로 그런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년에 공모사업에 참여하면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6쪽입니다.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라 K-Lake 조성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단일지역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서 증액 반영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수용 곤란, 정부 의견대로 결정합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7쪽, 관악산 하늘길 조성 사업,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 대상 지역으로 보기 어려워서 증액안 반영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것도 우리가 정한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수용 곤란하다는 정부 의견을 결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7쪽, 낙성대공원 힐링여가공간 조성 99억 5000만 원,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 대상 지역으로 보기 어려워서 역시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역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리고 청룡산 힐링여가공간 조성사업 99억 5000만 원 증액, 같은 논리로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 대상 지역으로 보기 어려워서 증액 반영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결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9쪽, 디지털 관광 연계 사업 4억 5000만 원 증액, 같은 논리로 특정 단일지역 지역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돼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런데 이것은 익산시 중앙동 일원이 사업 위치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므로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방 이양 사업이다.

○임오경 위원 저도 한말씀 더 물어볼게요.

아니, 2020년부터 다 지방 이양 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체부에서 내년에 신규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문체부 자체 내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여기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것은 지방에서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특예산으로 된 부분은 지방 이양됐고요. 저희들이 기금으로 공모사업 추진하는 것은 이거랑은 성격이 달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지방 이양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모에 선정되게 되면 매칭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 기금과 지방비 예산이……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방 이양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은 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기금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닙니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은 지방균형특별회계, 기금이 아니고요.

○임오경 위원 아니, 그래도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마지막에 정부에서는 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소위원장 박수현 김근호 국장 잠깐만요.

○임오경 위원 중복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K-푸드 미식 사업도 그렇고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하지만 지방에서도 그 사업이 있고 지금 문체부에서도, 중앙에서도 그 사업이 있고. 그럼 이게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시다만 대통령님 시정연설에 나왔던 포괄 보조가 10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번에 지특회계의 자율계정이 사업 건수가 대체로 40건에서 120건으로 한 80건 정도가 늘었고 그에 따라서 자율계정으로 예산까지 따라간 게 10조 6000억 원까지 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가 이런 사업을 지특회계에 있는 자율계정 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신청을 하면 자율계정에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지금 임오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문제는 시·도지사가 기획을 해서 자기들 지방에서 사업 메뉴판을 짜는 그것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메뉴판에서 공모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매칭으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지금 예를 들어 지방 이양으로 지특회계 자율계정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은 이제부터는 시·도지사가 이 사업의 기획안을 다시 짜서 그렇게 시·도지사가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 문체부 차원에서의 메뉴판을 짜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여전히 일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되던 대부분의 것들이, 많은 부분이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이 맞습니까, 제가 한 설명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어떤 지방에서는 이양됐어도 사업 순위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선택 안 하고 다른 업무를 하고 그리고 중앙에서의 또 사업이 완전히 똑같은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공모사업에는 또 응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차관님, 다시 확인할게요.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은 문체부에 남아 있습니까, 다 이양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까 말씀드린……

○민형배 위원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다 이양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현재 남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뭘 이양하고 뭘 남겨 뒀서 뒀는 중앙정부 문체부가 컨트롤하고 뒀는 자율에 맡긴 겁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그러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관광개발과장 이승재입니다.

원칙적으로 20년 이후에 지방 이양이 되고 사실은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되는데요.

○민형배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형배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4년까지는 예산이 그래도 국회에서 증액이 제기돼서 편성이……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잠깐만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문체부가 직접 한 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작년부터, 그러니까 금년 예산부터 이제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감사원에서 이 사업을 감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방 이양된 사업들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 조치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민형배 위원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확인을 해야 돼요. 지역자율계정에 계속사업은 여전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문화부가 갖고 계시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예.

○민형배 위원 나머지는 다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화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용이 된 거예요, 이제. 편성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지특회계에서 지역관광자원 개발이 무려 135억이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위원님, 그래서 편성된 사업들이 잘못됐다고 그

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민형배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업들은 사실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매몰비용으로 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속 지원해서 마무리 짓자 그런 입장입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지요. 그거를 다 그냥 이양해 주면 되지요, 관련한 예산을 그냥. 여가다 편성할 게 아니라. 그래야 혼란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고 포괄적으로 자율권을 주게 되면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왕 시작한 사업들은 매듭을 짓자 이런 게 정부 쪽의 입장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 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양을 했으면 확실히 이양을 하든지, 그래야 국회도 안 헛갈리지요. 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편성을, 지방정부가 편성하도록 해 주는 게 될 것.

그다음에 더 하나는 그런 시절에 했던 지역관광자원 개발, 그러니까 올해 치하고 작년 치—내년 치 말고 올해 치하고 작년 치, 올해부터는 이제 편성을 안 해서 내년부터는 없으니까—이거 보니까요 139억, 135억 이렇게 2년간 편성이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호남에는 5억짜리 딱 하나 있어요, 광주, 전남·북 합해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구 40억짜리, 삼척 29억짜리, 대전 21억짜리, 횡성 15억짜리, 부산 10억짜리, 경남 10억짜리, 울산 10억짜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간 불균형이 현저해요.

이거를 보완할 방안을 내놓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미 특정 지역에는 많이 갔는데 호남에만 임실에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135억, 139억 중에서 5억짜리. 270억 원 이상이 지역관광자원 개발로 지특회계 중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불균형이라니까요. 이거는 균형점을 찾을 방법을 고민하셔야겠는데요.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형배 위원** 이거 정권 성격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아닙니까? 우연이겠지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균형 지원, 정확하게 하면 균형 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 다시 보완 방법을 고민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차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민형배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보자 한 거예요, 그동안 지원된 게 어떤 건지. 그런데 봤더니 임실에 세계명견테마랜드 5억짜리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호남이라고 해서 관광자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있잖아요. 이거 보완 방안을 이번 예산편성할 때 고민해 주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민형배 위원 오후에 마무리할 때까지 주श्य요.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처음 해 보는 일이어서, 지역관광 개발 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 이양이 됐다 하더라도 늘 중앙정부에서 메뉴판을 짜던 이곳에 공모사업 형태로 지방비 50을 매칭해서 지원하고 거기에 선정되는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지특회계의 자율계정으로 그 수많은 사업의 한 80건이 추가로 더 이번에 내년부터 내려가게 되고 예산도 올해 3조 5000억에서 내년 10조 6000억으로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용 곤란으로 결정하는 이 많은 지역관광 개발 사업들이 이제는 중앙정부에 신청하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는 각 시·도지사들이 지역에서, 오늘 우리가 반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특회계 자율계정에 스스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저도 이 많은 지역의 소망들이 우리 문체위, 비록 예비심사에 불과한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게 또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기 때문에 다 통과를 시키고 싶지만 어차피 그런 원칙 때문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될 거라면 우리가 빨리 내년부터 바뀌는 이 지특회계 자율계정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반영을—굉장히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문체부에서는 이 지역관광 개발 사업이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문체부 사업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수용 곤란으로 반영이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러한 자율계정 예산과 스스로 편성하는 사업을 통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에 연락하고 또 그렇게 안내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체부 사업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민형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걸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체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역균형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중앙정부는 메뉴판을 짤 때 정확하게 반영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관광이 지방으로 다 넘겼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의 대응책으로서 가장 실효적인 것이 지역관광 활성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주 소규모 사업들이야 지역 특성에 맞춰서 자율계정으로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양된 예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앞서 있었던 광역 관광 개발이라든지 또 권역별로 테마별 특

성화시킨다든지 또 너무 중복된 그런 자치단체 간의 과열 관광자원 개발은 차별화시킨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의 그림이나 역할은 문체부에서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끌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비 예산이. 또 페널티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민형배 위원 마무리 좀 할게요.

차관님, 조금 전에 박수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는 거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민형배 위원 핵심은 뭐냐 하면 아직도 지역지원계정에 남아 있는데 지역자율계정에서, 제가 이걸 굳이 정권까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급한 데부터 먼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남 쪽,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4년, 25년에 한 이백칠팔십억이 들어갔는데 호남에는 5억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역자율계정에서 하지는 못했지만 지역지원계정에서 할 수 있는 혹은 지역자율계정에서도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다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다면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역균형을 반드시 고려해 달라 혹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까지 제외됐던 혹은 소외됐던 쪽에 대해서 우선지원 방법을 고민해 달라, 우선배정 방법을 고민해 달라, 제 주장이 좀 지나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예산편성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목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2026년도 1년 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그거 저희 위원들에게도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나 민형배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율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시·도지사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올리더라도 중앙의 관련 부처는 기획이 올라오면 그것을 통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관광사업이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지특회계에 자율계정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원계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균형을 정확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이 말씀,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문체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마치고 정부 의견대로 수용 곤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하시지요.

○전문위원 김용규 20쪽, 지역지원계정입니다.

20쪽부터 24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관광자원 정책 개발 및 운영 지원 중에서 혁신형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비 5억 원 증액과 민관협력 지역관광 활성화, 혁신형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비 15억 증액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 사업 128억 원은 앞에서 얘기드렸던 바와 같이 13쪽에 128억 전액 수용돼 있습니다.

역사·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태조 이성계 전당 건립 사업의 신규 편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증액입니다.

22쪽입니다.

홍성군 결성면 지역 활성화 특화개발 조성 사업을 신규 편성하기 위해 20억 원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템플스테이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20억 원 증액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 지원 등 1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관광자원 정책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5억 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교홍 위원님께서 내신 15억 원 증액으로 일부 수용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결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리고 21쪽은 지역자율계정으로 전향돼서 지원계정으로 반영은 곤란하고요. 앞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 곤란으로 표현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13페이지 전액 수용과 연계된 내용으로 128억 증액 요청은 수용 곤란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1쪽, 태조 이성계 전당 건립 사업, 이 부분은 아까와 같은 논리로 특정 단일 지역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서 증액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것도 내내 다 같은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것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2쪽, 홍성군 결성면 지역 활성화 특화개발 조성 사업 20억 원 증액, 같은 논리로 지방 이양돼서 증액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결정합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3쪽, 템플스테이 지원 20억 증액과 100억 증액이 있는데 저희들은 100억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결정합니다.

다음이요.

○김승수 위원 이거 템플스테이 20억 증액으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100억 증액으로 하는 그 근거는 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템플스테이가 종교를 떠나서 현대인의 어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 우리가 10억, 10억 했을 때는 운영 지원에 10억 그리고 시설 지원에 10억씩 해서 추가하자는 그런 증액안이었는데 100억 증액은 이러이런 추가로 100억 증액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주로 프로그램과 시설 건립과 보수로 나뉘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템플스테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인데, 이렇게 20억에서 80억을 더 추가로 증액을 할 것 같으면 지원 대상 개소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액 요구를 했으면 산출 근거로 해서 증액 요구를 했을 테고……

○문화체육관광부국내관광진흥과장 김명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입니다.

현재 템플스테이는 전국에 158개 사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20개 정도 사찰이 추가로 템플스테이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개 정도 사찰 중에서 한 5개 정도 전용 시설을 신축하는 데 저희가 시설비 6억 원씩 해서 한 3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용 시설 개보수, 158개 중에서 긴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사찰 6개, 개보수하는 비용 2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어서 시설 지원으로 5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운영비 50억 원은 20억 원 증액한 것에 더해서 선명상이라든지 또 말씀드린 신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지정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30억 원이 운영비에서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정부에서 지원한 템플스테이 운영 실태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국내관광진흥과장 김명호 예,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 실적을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도 공모인가요? 지금 템플스테이 158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공모받나요?

○문화체육관광부국내관광진흥과장 김명호 한번 지정이 된 사찰들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새롭게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공모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승수 위원** 과장님, 지금 국비 지원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민간 시설에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 템플스테이 하는 곳들이 무한정 늘어났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 연간 이용자 수가 지금…… 그게 나오나요? 얼마 이상씩……

○**문화체육관광부국내관광진흥과장 김명호**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이용자가 한……

○**김승수 위원** 그거 저한테 오후에 하기 전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템플스테이 개소별 연간 이용자 수.

○**문화체육관광부국내관광진흥과장 김명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차관님, 템플스테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는 여러모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정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가톨릭 성당에 피정센터 혹은 교구에 피정센터가 있어서 그 피정센터에서 템플스테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도 센터도 지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럴 겁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불교문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다른 종교에서 이런 비슷한, 예를 들면 원불교, 익산에 가면 템플스테이보다 더 괜찮은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런 걸 지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아요.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국내관광진흥과장 김명호** 국내관광진흥과장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템플스테이와 유사한 것들은 다른 종교에는 없고 불교에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저희가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시범사업을 하면서 외래객들에게 사찰이 종교시설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형배 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 민간의 다른 기관들, 단체들에서 이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어떨 것 같느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지금 서원이라든가 유교 쪽에는 지원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통문화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전통문화 체험의 어떤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어떤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사업이 구분되고……

○**민형배 위원**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한번도, 템플스테이를 안 해 보셨……

○**조계원 위원** 제가 잠깐 얘기해 보자면……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계원 위원** 템플스테이를 지어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비하고 운영비 그 지원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시설비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계원 위원** 아까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할 때는 지어 주는 거 이런 문제까지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민형배 위원** 아니, 지어 주는 거예요.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시설하고 운영비……

○**조계원 위원** 아니, 시설비지 전체 건물은…… 템플스테이는 별도로 또 만들지 않습니까?

○**민형배 위원** 아니,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지요.

제가 조금만 말을……

○**소위원장 박수현** 잠시만요.

○**민형배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 먼저 마무리하십시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종교 쪽에 이런 게 가니까 다른 종교 쪽에서 ‘우리는 왜?’라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수입이 얼마였고 얼마가 부족해서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이를테면 정산 개념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혹시 정산 개념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국내관광진흥과장 김명호** 예, 정산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이 국비로 반환이 된다는지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지금.

○**조계원 위원** 자부담 매칭이 안 되나요?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국내관광진흥과장 김명호** 자부담 매칭 현재 20%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 대책이 없어요. 지금 템플스테이 기존의 정부안이 250억입니다. 서당문화 체험에 얼마 지원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국내관광진흥과장 김명호** 내년도 정부안에 지금 7억 원 반영돼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정부안 7억과 250억인데 250억에다 다시 또 100억을 더 증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공무원의 생각입니까? 공무원의 균형감각이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무한정 그렇게 템플스테이가 늘어날 경우에 지원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떻게 막을 겁니까? 우리가 돈을 계속 줄 수 있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주면 줄 수록. 그래도 한정된 걸 가지고 불편부당하게 균형적으로 안배를 해야 될 거고 내년도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줬다가 그다음에 안 주면 더 섭섭해하지요,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템플스테이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런이런 정도의 기준과 요건을 갖춘 데에 지원해 준다, 그리고 지원해 주다가도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환수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과장님 돈 100억이라면 더 달라 그런다고 자기 돈 이렇게 지원해 주겠어요?

○**소위원장 박수현** 마지막으로 조계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이 K-컬처 관련해서 전통문화, 기독교나 불교와 달리 전통문화에 대한 사찰의 관광자원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K-컬처도 강화하고 관광도 활성화하고 그런 취지지요? 그 취지에서 그 프로그램들 개발하고

지원하고 여러 가지 또 지역의 콘텐츠 자원, 지역의 특화 자원도 활성화하고 무형유산이나 사찰음식 이런 것들도 관광자원화하고 이런 거에 지원해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K-컬처, K-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거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액하자는 거 아니에요?

○민형배 위원 자, 저는 증액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정부 예산이 나갈 때는 적어도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 알겠는데 아무리 소위지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요. 이미 위원장이 발언 예정을 지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재원 위원 어제도 밝혔지만 저는 불교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천주교는 1800년대부터 박해를 받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오래돼야 우리 전통문화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불교, 유교, 가톨릭, 기독교 다 외래 종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논리로 전통이라고 묶으시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논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인천으로 답사도 갔다 왔지만 거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이런 곳들을 고쳐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하면서 불교 쪽에는 사찰의 시설 보수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새로 신축하는 것에서부터 운영비까지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균형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전통으로 묶으시려면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외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이 건 보류합니다. 다만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류 심사에서는 더 토론하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을 비롯한 민형배 위원님과 또 김재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또 조계원 위원님께서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고, 특히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문제는 이거는 정말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태 점검이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100억 증액안을 수용하신다 했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시다만 결정하는 것을 보류합니다. 보류할 테니까, 20억 증액안과 100억 증액안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따 보류 심사하기 전에 말씀 주신 의견들과 함께 증액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보류 심사 때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이따 결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차관님, 어제 1차관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불교 시설,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하고 선명상센터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거든요, 지원도 해 주고. 전국적으로 시설이 어떻게 지금 분포가 돼 있고 연간 이용객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면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발언을 1분이든 2분 이내로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소위니까 토론을 충분히 하십시오.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잘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 보니까 대체로 수용 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으므로 좀 더 속도를 내면 오전 중에 마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정연욱 위원 수용 곤란이 많은데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부 측 다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위원님.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25쪽입니다.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수용 곤란 4건 모두 지방 이양입니다.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APEC 기념 보문관광단지 랜드마크 조성 사업 20억, 그 밑에 포스트 APEC 대응 보문관광단지 인프라 혁신 사업 10억, 그다음에 26쪽 보문관광단지 대리노베이션 34억 5000만 원, 27쪽 문화콘텐츠 연계 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한 김광석 리마인드 스토리 관광 플랫폼 구축 35억 증액,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부 다 지방 이양이어서 수용 곤란하다는 똑같은 이유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은 그렇게 대체하고요.

위원님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APEC 경주 개최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들인데, APEC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방 이양 사업과 별개로 APEC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가요?

○소위원장 박수현 차관님, 그 부분은 별도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 상태로 지방 이양이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 같으므로……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 김광석 리마인드 스토리 관광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연욱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27쪽입니다.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이것도 수용 곤란이 31쪽까지 8건이 있는데 8건 모두 다 지방 이양입니다.

먼저 27쪽 부산 백양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21억 원, 그다음에 28쪽 관악산 낙성대 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20억 원, 그다음에 29쪽 제주 다목적 아이스링크 건설 15억 원, 그다음에 그 밑에 관악산 원신지구 테니스장 조성 11억 원,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 6억 1000만 원, 30쪽 팔현정구장 조성 6억 원, 달서구 달구벌 가족스포츠 체험시설 건립 5억 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천군 유소년야구장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한 모든 건이 같은 이유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지방 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23년도부터 지방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정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갖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23년 이후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 5년 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소위원장 박수현 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32쪽,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4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지역 향토문화축제를 통한 전통문화 발전과 문화관광객, 전북도민, 군민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서 2026 나라사랑 고향사랑 40년 사선문화제 행사 3억 원 증액입니다.

38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교통카드 결제를 위해 외국인 교통결제 편의 개선 109억 3000만 원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 포스트 APEC 글로벌 K-관광 특별 마케팅 15억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36쪽, 사선문화제 행사 3억 원 증액은 저희 업무 절차가 문화관광축제로 먼저 지정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축제 지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예산 지원이 가능해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38쪽, 외국인 관광객 교통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상임 위 증액안을 일부 수용합니다. 일부 수용의 내용은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지방비 50%를 지원하면 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09억 3000만 원인데요 50% 부담해서 54억 65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54억 6500만 원.

○이기현 위원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지방정부하고 매칭해서 한다는 게…… 그럴 필요가 있나요?

○임오경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문체부가 해야 되나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왜 문체부가 구축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지적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단말기도 교체해야 되고 여럿 교체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국비로 100%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인데요. 어쨌든 관광객의 약 80%가 서울로 들어오고 서울시에 다른 예산은 지원하지 않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 상당히 지적이 많고 서울시도 급하니까 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한 건데요. 국비 100%는 우리가 있고 그래서 지방비도 50% 해라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형배 위원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요청하면 어찌시려고 그러세요? 부산광역시가 이렇게 요청하면 어찌려고 그러세요? 대구광역시가 외국인 교통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서 이 시스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때도 다 같이 해 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이거는 같은 원리로…… 이거는 국토교통부도 그렇고요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교통결제 편의 시스템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단말기 교체나 이런 거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할 만한 내용이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문체부가 해야 될 사업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조계원 위원 기왕에 카드를 만들 거면,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도 했었는데 궁륭이나 문화 이용이나 이런 것들의 외국인들 자유패스 이런 기능도 같이 포함할 수 있나요? 교통만 해야 되나요? 교통카드 기능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현재는 교통에 관련된 것만……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요즘 같은 디지털 통합 시대에 같이 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승수 위원님.

○**김재원 위원** 교통카드 없이 신용카드로 그냥 하는 거는……

○**조계원 위원** 교통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라고 표현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도 교통카드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에 가 보면 외국인이 단체관광이 아닌 개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많은 말이지요. 이 사람들에게 꼭 서울시라는 것을 떠나서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서울시에 특정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가장 외국인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부터 해서 대체로 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중에 서울시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시스템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 대한 지적이 너무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김승수 위원** 그냥 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 이런 5대 도시 정도만 먼저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는 결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존경하는 임오경·민형배 위원님의 지적, 왜 이것을 문체부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그래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100%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거지만 그래도 지방비 50 대 50의 매칭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특히 균형발전과 관련한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 그래서 그렇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부 입장, 계획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정부 의견으로 결정해도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에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문체부가 앞으로 잘 유념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정연욱 위원** 잠깐만요.

수용 의견이었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관광 역량 강화 부분 이게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 기반으로 한 소비 촉진 사업의 구조적 문제라는 게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이나 재판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런 단순한 이벤트성 소비 지원 중심 구조라는 게 계속 그대로 갔을 경우 과연 실제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냐는 부분들, 계속 이 부분들은 지적이 되어 왔던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간의 재정 격차도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서 효과나 실행력이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78억 증액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체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요.

다음에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이 부분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게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담 여행사를 우리가 관리하고 시장 건전화한다는 이 내역은 2024년 이후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덩핑관광을 바꾸고 개선하고 품질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과연 있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게 있는지, 체크한 게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막연하게 외래관광 유치라는 게 구호로만 남아서는 성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문체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저가관광, 덩핑관광으로 이루어지는 외래관광으로 해서 숫자만 채우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과에 반영이 되는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건지 그 부분을 충분하게 보여 주셔야, 추가로 예산을 늘리는 부분들에 당연히 투입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부연해서 정연욱 위원님 말씀하신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에서 이게 지방비 매칭까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 위원 37페이지 말이에요.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에 400억 증액했잖아요. 지방비 매칭을 하는 거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박미경 관광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동 사안은 지방비 매칭 사항은 없습니다. 동 사안은 글로벌 마케팅, 브랜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 없이 한국관광공사가 민간경상보조로 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연욱 위원 지역별 관광공사가 다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박미경 한국관광공사에 해외지사가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를 통해서만 채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박미경 한국관광공사 본부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지사에서도 전략시장별 마케팅을 실행합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항 연계 프로모션이 250억인데 이게 입국하는 단체관광객 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도 400억으로 대단히 크고 매칭도 없고 한 이유가 이번에 총리 주재 관광전략회의에 보고하는 안건 중에 제1의 핵심과제로 들어 갔던 사안인데요. 이게 경제부총리도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너무 서울에만 관광객의 80%가 몰리고 지방으로 외래관광객 유입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2관광……

○김승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업 내용이니까 공항 연계 프로모션의 집행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박미경 관광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개별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수도권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공항으로 직접 입국하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공항 할인권, 항공료 할인권을 제공한

다든지 아니면 10만 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이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모션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과장님,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객 탑승률이 없어 가지고 좌석이 텅텅 비어서 오면 이런 프로모션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방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항공편 탑승률이 그렇게 저조한가요? 아니면 기존 국제선의 대부분 탑승률이 그래도 100%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인들한테 지원하는 경우에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게 된단 말이지요.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박미경**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인천이랑 김포 쪽으로 입국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지방공항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김승수 위원**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 항공기 슬롯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는 공항, 그러니까 편수가 준 공항도 있을 테고—대표적으로 대구공항도 그렇고—그런데 늘리고 싶어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취항하는 항공기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탑승률은 거의 풀로 되어 있으면 자기 돈 써 가지고 들어올 사람한테 우리가 국비를 낭비해서 돈 지원해 주는 게 되거든요. 이 선후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지적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 설명대로 이것이야말로 제2의 관광 활성화의 담대한 계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핵심 과제로 보고됐고. 그런 정도를 하려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말 세밀한 계획들이 다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핵심 과제이고 제2 관광 활성화 계획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도 엄청나게 크고.

위원님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세 계획을 다 보고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검토하신 다음에 다음 우리 상임위를 개의회서 정책 질의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니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엄청난 계획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이 말씀들을 잘 새겨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보류로 해 주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어떤 거요?

○**임오경 위원** 교통결제 시스템 구축 필요.

○**소위원장 박수현** 이거는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오경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말씀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저희가 해외를 가게 되면 프리패스 카드를 구매합니다. 그렇지요? 신용

카드가 안 돼서.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 프리패스 카드 가지고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다 합니다. 일본에 갈 때도 그 카드를 저희가 한국에서 발급해서 가지고 가서 타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에다 기관별로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런데 문체부가 왜 하필이면 이 시스템 구축까지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여기 전체를 보더라도 버스, 철도, 코레일 다 지금 이러한 곳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이 교통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관광공사에서 카드 하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시스템까지 문체부가 다 구축합니까? 철도, 버스까지 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의 지적이 매우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차관 보고 때 이게 서울시와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를 자세하게 하겠지만 보고 중에 국토부 등과도 협의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서울시와 5 대 5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코레일이라든가 국토부 관련 이런 부분들과도 폭넓게 이 사업 추진의 주체에 대해서 함께 더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실 게 남았지요? 41페이지인가요?

MICE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15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일부 수용 의견으로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용으로 바꿨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수용으로 바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경북관광공사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원래 관광공사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수용으로 바꿨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정부의 수용 의견이 15억 원 증액 요청과 일치하기 때문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할 차례입니까?

○전문위원 김용규 예, 보고 들어가기 전에 38쪽 신용카드 부분은 보류 사업입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아니, 결정한 겁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50% 자부담이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50%.

○전문위원 김용규 예, 알겠습니다.

43쪽부터 48쪽까지……

○김승수 위원 전문위원, 잠깐만요. 끝내기 전에 앞서 33페이지, K-공연관광 전국투어 신규 편성에 보면 공연장 환경개선 6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제 1차관 소관에서도 지역 공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공연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협의나, 이게 차별성이 있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쉽게 이해하시면 1차관 쪽에는 현대적인 공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김승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공연장이 거기도 공연장을 개보수하는 예산, 그러니까 콘서트할 수 있는 대중공연장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 공연장하고 거기 공연장하고 어떻게 차별화되느냐는 거예요.

○이기현 위원 몇 페이지 하시지요?

○김승수 위원 33페이지요. 60억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것은 주로 관광에도 초점을 맞춰서 안동의 탈춤이라든가 진도 씻김굿, 밀양의 아리랑 이런 지역특색이 있는 공연……

○김승수 위원 공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개보수해서 케이팝 공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관 때 주로 케이팝이나 이런 공연을 위한 시설을 지금 개보수하고 확충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지원한다고.

○소위원장 박수현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것을 상설 공연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북 상주에 가면 이런 공연이 항상 주말에 있다 이런 것들이 네이밍화되고 상징화되어 있어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님께서서는 이게 시설비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 취지의 말씀이신데 당연히 상설 공연을 하려면 아주 질 높은 상설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질 높은 프로그램이 공연이 되려면 거기에 걸맞은 공연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공연 콘텐츠 상설화를 위해서 공연장도, 지금 시골에 있는 문예관 같은 데에서 공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음향 이런 이런 것 다 바꿔 줘야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상설 공연화를 위한 지금 현재의 공연장 환경 이런 문제 그리고 상설 공연 프로그램의 개발 문제 이런 곳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환경개선에 60억, 공연 콘텐츠 개발에 40억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고 나중에 좀 더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어제 1차관님이 저희에게 설명했던 것은 공연장 환경개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체육관을, 아레나를 리모델링해서, 15군데를 선정해서 도와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K-콘텐츠,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것은 주로 대도시에……

○임오경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체육관이, 아레나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수치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여기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라서 지금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이것을 듣다 보니 유사한 사업이지 않냐, 공연장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같은 맥락으로 비춰지니까.

그런데 설명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것처럼 소규모의 공연장이든지 이런 부분들의 애기를 하신다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설명이 더 확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으로 설명드리면 1차관이 어제 얘기했던 것은 케이팝 등 대중음악 공연장인 대규모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이라든지—수도권 내에 있는—특히 공연이 진행되는 곳 열다섯 곳 지정해서 그곳에 대한 음향이라든지 조명 관련된 시설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얘기셨던 것 같고.

오늘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연이나 축제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 지방……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일단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이런 것은.

○이기현 위원 작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설명을 잘해 주시라고요.

○이기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규모가 작고 아무래도 중소도시, 관광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곳에서 개보수해서 상설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고, 1차관 쪽에서는 체육관이라는 대단히 큰 규모고요. 그리고 주로 대도시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가셨습니까?

○임오경 위원 아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 측이 말을 그렇게 안 해 주니까.

○김승수 위원 지금 이게 삭감하자는 게 아니에요. 증액한 것을 예결위 가서 설득해서 통과시키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들이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정부 측에서 이러이런 사업 내용과 성격과 대상이 이렇게 다릅니다 해서 알아듣기 쉽게 딱 논리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하여튼 다 같은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정말 지역 소도시에도 꼭 이런 활성화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 보면 지역에 문예회관 하나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상설 공연 작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문예회관에서 올려서 공연을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잘하시고요. 그리고 잘 확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43쪽부터 48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중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 75억 원이 있는데

요. 기존 지역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과 중복 지원의 염려가 있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선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75억 감액입니다.

44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중 생활체육지도자와 시군구 사무국 직원과의 격차 해소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상여금 46억 7050만 원 증액입니다.

46쪽입니다.

스포츠클럽 디비전 중 하키 종목의 경우 참가팀들에 대한 출전비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3억 1800만 원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스포츠클럽 디비전 중 전문 코칭 체계 아래 축구 엘리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평구 체육회에 2억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43쪽,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과 명백히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령화 시대의 노인 의료비 절감 그리고 노인복지 수요 지속 증가에 대응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지역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승수 위원 75억 들어가 있어요, 어르신 스포츠 강좌.

○소위원장 박수현 지역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에?

○김승수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그만큼 감액하신 겁니까?

○김승수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말씀은 지역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어르신 스포츠 강좌 75억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올해 추경 사업으로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사업이 처음 들어갔는데요. 그전에는 같이 있었지만 이 사업이 별도로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완전히 분리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어르신 스포츠 강좌 지원 이게 갑자기 끼어들어 가 가지고 제가 문체위에서도 몇 번 지적했었고 언론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비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사업기간도 몇 번째 연장하고, 내일까지 연장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대책이 없어요. 왜냐? 아시지요, 이게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 일단 시설의 문제고 두 번째는 사용 방법의 문제고. 그런 것들이 또 단시간에 해결이 안 돼요. 내년에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똑같이 어려울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자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다만 첫 해 사업

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홍보하면서 상당히 발급률과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조금만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올해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은 저희가 원래 상품권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계가 있고 또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이 부진하여 저희가 그것에 대한 집행 활성화 방안은 지금 차관님이 설명 주신 것처럼 진행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사실 이 사업은 의원실 보좌관님하고도 상의하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아예 지자체와 시도 체육회랑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거기에 와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올해 사업과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 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 효과를 수치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책 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신설하면서 저희가 별도의 개인운동 기록활동 기술 개발하는 R&D 사업이랑 연결해서 실제 얼마나 어르신들에게 체육 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서 증거기반형 정책 개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일단은 시골 동네, 제 고향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쓰고 싶어도 그런 시설이 인근에 없어요, 읍내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런데 읍내까지 나가서 이것을 쓸 수 있는 어르신들도 또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상인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그래서 안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도, 그러니까 지자체하고요 플러스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체육회 전체랑 연합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다 찾아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는 사업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연례 조사로 국민생활체육조사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고령자들이 이용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가 관심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습이 없어서라고 나왔었고 두 번째가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새로 만들었고 지자체 전체가 같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협력……

○김승수 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보류해서 대책도 더 보도록……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국감 때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잠깐 보류해 놓고 김승수 위원님께 직접 다시 한번 설명드려서 보류 심사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형배 위원** 차관님, 그런데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지금 어르신 스포츠 강좌 관련해서 얘기 오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왜 올해보다 오히려 내년에 100억가량이 줄어들지요, 전체 예산이? 노인도 늘어나고 생활체육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왜 줄어듭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금방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다음,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상여금 증액은 반영이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명절상여금 대신에 단일급여 체계의 보완을 위해서 차등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을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꼭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형배 위원** 맞다고……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등 장기근속수당 증액 안에 이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46쪽, 스포츠클럽 디비전 하키 종목을 위한 증액 취지에 공감하지만 형평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특정 종목을 하기는 힘들어서 증액해 주시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디비전은 몇 종목이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지금 11개 종목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연속도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지금은 1년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임오경 위원** 재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면 계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예.

○**임오경 위원** 일회성이면 너무나 아깝지 않나요? 승강제 리그를 하는 데 있어서 일회성이면 지원을 못 받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승강제 리그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닐까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혁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장기화 사업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1년 단위로 그냥 맛만 보게 하고 참여해서 관심 좀 가지려고 했더니 지원이 끊기면 의미가 없잖아요. 승강제 리그식으로 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함께 한 자리에서 치르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연속성을 줘야 될 것

같고.

철저하게 비인기 종목 중심으로 디비전을 치러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공모를 할 때 철저하게 비인기 종목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관련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총액 기준으로 7~8% 정도가 삭감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개별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또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시행 과정의 문제는, 이것은 조금 다른 사업들과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되게 서투를 수도 있고 시행 과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앞선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처럼 실질적으로 사전 준비 미흡 그리고 설계상으로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다 보니까 보조금에서 페널티받고 또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했으면 자꾸자꾸 늘어나야 되는 분야인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아까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체육 디비전 이것은 굉장히 확대,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15개 종목 지금 왜 있는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 종목 같은 데는 수백 개씩 자체적으로 대회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꼭 예산 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체부가 직접 후원 주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나 인센티브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지원과 더불어 자체적으로도 대회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체계화 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정부 측이 지금 일부 수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산 증액은 수용이고요. 다만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종목을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런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나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비인기 종목 중심으로 공모해야 한다는 말씀의 취지가 잘 담기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47쪽입니다.

지역 유소년 축구인재 육성 지원 사업, 증액 취지에 동의하지만 이게 은평구 체육회를 특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액해 주시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결합니다.

다음이요.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제 28번으로 넘어가거든요, 국민체력 인증으로. 그 전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제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줄이는 것보다는 저는 아까 보류해 둔 이것까지 포함해서, 작년보다 거의 한 110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증액안을 마련해서 이따 보류 건 처리할 때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전체의 증액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학생 1스포츠 400억 이게 수용이 되면 증액이 몇백억이 올라가게 됩니다.

○민형배 위원 학생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생활체육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생활체육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들어 있어요?

○진종오 위원 거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되는 건 맞아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 있냐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게 수용이……

○민형배 위원 27번 예산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인데 올해 1456억에서 1344억으로 110억 원가량이 줄어들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된 상황으로 보면 생활체육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예산이 줄었다, 이건 제가 보기에선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단다. 따라서 증액안을 고민해 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학생들 하는 건 놔두고요, 여기 이 27번 세부 사업에서.

○김승수 위원 잠깐, 앞서 조계원 위원님 말씀하신 유소년 축구 인재 체계적 발굴 육성, 이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은평구로 특정돼서 공모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비를 털어 가지고 한 5년째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른 지역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공모를 한다고 그러니까 차제에 그래도 한 5억 정도 증액을 해서 진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번 받아 보셔 가지고 우수한 데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민형배 위원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증액을 검토해야 됩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5억 정도를……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아까 결정한 것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5억을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을 지금 내시는 거잖아요. 민형배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생활체육 지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는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보류 심사 때 의결은 했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 김용규 49쪽부터 5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강서구 공항동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100억 증액과 그다음에 밑에 김포시 장기동에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63억 5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52페이지에 광명시 노후 청사 부지를 활용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50억 원 증액, 그 밑에 고양시에 국민체육시설 신규 설치 위한 3억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51쪽, 공항동 문화·체육 복합시설 확충 사업은 전액 이미 지원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은 반영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 건은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51쪽, 장기 신고창 체육센터의 경우도 전액 기지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은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것도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광명 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도 국고보조금 30억 원 정액 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액을 초과한 추가 지원은 곤란합니다.

○임오경 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52쪽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30억이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30억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30억 원을 넘어서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30억이 기지원이 됐다는 겁니까, 아직은 조금 지원할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수현** 30억 원이 한도인데 30억까지 다 지원이 됐다 이런 뜻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연차별로 30억이 지원되는 거라서요 다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미 30억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집행이 될 수 있으면 당겨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예, 그거는 가능한데 지자체가 수용해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돼야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임오경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52쪽, 고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3억 원 증액이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수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김용규** 53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인데요. 56쪽까지 10건이 일부 수용인데 일부 수용 사유가 다 동일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부산 덕천동 야외수영장 개보수 31억 2000만 원 증액.

54쪽, 서울영희초등학교 공공체육시설로 편입으로 인해 주민 편의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30억 7000만 원 증액.

태릉사격장 시설 개보수 및 전자표적 설치 11억 5000만 원 증액.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시설환경 개보수 10억 2000만 원 증액.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 안전성 개선 및 노후시설 확충을 위한 9억 6950만 원 증액.

55쪽입니다.

흑석체육센터 및 동작구민체육센터 개보수 7억 3600만 원 증액.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4억 3400만 원 증액.

부산실내빙상장 4억 1500만 원 증액.

이천시 설성면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3억 원 증액.

마지막으로 하남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를 위한 1억 55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이 건들이 전부 다 일부 수용인데

일부 수용의 이유가 다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하는 사업은 지원이 안 되지만 예산이 증액되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오경 위원 지금 차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위원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을 시 일부 수용이라고 하셔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사전 예산이 편성이 되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라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다 들어오게 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공모사업을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 주면, 확정해 주면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덕천동 31억 2000만 원 증액해 줬어요. 그러면 딱 여기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정해 줘도 되잖아요. 뭘 공모사업 합니까? 증액해 주고 여기 정해 주면 되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부 측에서도 공모 절차를 이행하지만 충분히 위원님들 뜻 감안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진중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중오 위원 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뒤에 나올 내용인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해 가지고 100억인가 추가로 증액 요청한 거 있지요? 나올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법정 비율에 맞게 더 올리는 거 말씀……

○진중오 위원 예. 더 올리는 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들을 플러스 시켜서 그 금액을 증액을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올려 놓은 겁니까? 어쨌거나 이게 공모할 건데 공모하더라도 공모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체육시설 사업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진중오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증액한 예산을 포함시켜 봐서 이 금액들을 일부 수용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 수용이라는 금액을 어느 정도 문체부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것을 올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월에 공모가 이미 끝나서 내년도에 지원할 예산을 정부안 기준으로 이미 공모 선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일부 수용이라고 한 거는 위원님께서 추가 증액을 해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내년도 거를 재공모, 추가 공모를 해서 공정한 선정을 통해서 일부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진짜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몇 개라도 선정해

서 증액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종오 위원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임오경 위원 지금 얘기를 들으면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이것을 증액을 시켜 주게 되면 내년에 추가 공모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하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로, 얘기가 어느 정도는 됐으니까 우선순위로 되는 거 아닙니까?

○진종오 위원 아니, 구조가 그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이런 기준을 공모할 때 좀 추가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걸 제시해 주시면.....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가 공모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제시를 해주시면 지역을 선정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최대한.....

○임오경 위원 여기서 대놓고 선정 못 하지만 그래도.....

○진종오 위원 그렇지. 공모 절차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선정할 수가 없지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지만.....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말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 공모 선정 방식이어야 한다는 게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신 말씀의 뜻을 충분히 확인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위원님.

○김승수 위원 차관님하고 체육국장님, 어쨌거나 앞서 공공체육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노후된 체육시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지자체에서 공모 신청을 못 하는 이유가 매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규로 증액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도 보면은 어떤 거는 지자체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것도 있을 테고 어떤 거는 협의 없이 올라온 것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문제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70%의 국비가 되지만서도 일반 노후시설은 3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억~2억 같으면 몰라도 몇십억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림의 떡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비율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모 절차라는 게 연간, 지금 내년도 이행되는 사업은 공모가 10월 달에 끝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이미 선정됐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럼 이게 연례행사로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까지 신청받아서 언제까지 결론 내는 게 정해져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럼 추가 공모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되면……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추가 공모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가능하나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내년엔 다시 또 지자체에게 저희들이 알려져 예산이 증액이 돼서 공모를 하니 추가로 신청을 하라……

○정연욱 위원 그거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제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연초에 하면 됩니다.

○정연욱 위원 연초에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예산 확정되고 나서.

○소위원장 박수현 차관님, 정확하게 정리할게요.

지금 일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업 건에 대해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수용이라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이 지금 알아듣기는 어쨌든 이 각각의 건이 지금 수용되는 것으로 일단 말이에요, 금액의 합이. 그렇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 의미가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98억 6700만 원 그것을 수용하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98억 6700만 원을 수용하고 그 밑에 개별로 나열되어 있는 이 사업들은 공모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의 의미이지 그 액수를 다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부분은 그러니까 법정 비율대로 98억 6700만 원 증액이 수용이 되면……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수용이 되면 그 안에서 다시 저희들이 추가 공모를 해서 하되 여러 가지 감안을 하겠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각각 밑에 건별로 나와 있는 그것이 공모 방식으로 금액까지 수용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아실까 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방식은 공모 방식으로 말만 일부 수용하는 거고 사실 금액은 제일 위에 있는 98억 6700만 원 그것만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추가 공모를 할 때 혹시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충분히 관심을 서로 가지시고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정도의 차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김용규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먼저 58쪽,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내역사업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운영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지 않

고 각종 비리, 오심 등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대한축구협회에 지급되는 인건비, 행정정보비 및 경기력향상비 3억 6550만 원 감액.

61쪽입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과 일본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해 분산된 선수데이터를 통합·연계하고 클라우드 기반 맞춤형 선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데이터 구축 46억 증액.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58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축구협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은 앞으로 잘 지도 편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필수적인 그런 예산이라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승수 위원 저번에 국정감사 때 축구 K리그 심판 오심 문제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장관님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고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축구협회하고 어떤 협의나 또 진전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심판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심판들이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체제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그 부분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난해 굉장히 축구협회의 여러 가지—감독 선임 문제를 비롯해서—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컸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문체부하고 축구협회하고 또 소송 중에 있고. 그런데 축구협회가 다시 또 정몽규 회장이 회장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그동안의 질타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개혁안 이런 것들을 좀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직까지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그래서 그런…… 소송 당사자라서 문체부도 곤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해서 진전된 내용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어떤 지적인지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민 감정이, 항상 그리고 여론을 살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축구 팬들이 축구 경기 한 경기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체육회하고 문체부하고 협업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이런 이런 혁신과 개선방안을 우리 문체위원들한테 제시하겠다 그런 전제하에 저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아도 사

실은 이번 기회에 딱 정확하게 시정할 것 시정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께서 그만큼 사랑하시는 이 축구, 지금 차관도 이것이 한 경기 한 경기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 할 만큼,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적 관심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민감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에 더욱 보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님 지적이 백번 타당하시고요. 한 번 지적받고 또 그냥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연말까지 정확하게 개선대책을 문체부가 책임지고 대한체육회와 협업해서 하여튼 이 문제들, 대한체육회 문제 포함해서 개선대책 정확하게 위원들께 제출하시는 조건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다음 61쪽,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데이터 구축 사업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서 증액안 46억 원 중에 일부 예산 3억 원이 반영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집행 지침에 20억 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사업은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ISP 수립을 위한 3억 원을 우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김용규 64쪽부터 69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65쪽 수용 건이 3건이 있는데요. 이 3건이 다 동일한 내용이라서 금액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체육계 아동 성폭력 관련해서 64쪽, 박정하 위원님 30억 3600만 원은 인권보호관 운영 강화, 상담 강화, 실태조사 확대, 여성 조사관 확대 다 포함해서 30억 3600만 원이고요. 65쪽은 30억 3600만 원 중에서 인권보호관 운영 강화, 상담 강화, 실태조사만 해서 28억 40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6억 4000만 원은 실태조사만 6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 동일한 사항이라서 이 중에서 어떤 금액으로 하실지 결정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6쪽, 2027년도 경기도 전국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연천 테니스장 전국체육대회 시설 건립을 위한 8억 4000만 원 증액과 67쪽, 스포츠과학원은 R&D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및 연구윤리 확립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동 사업의 10% 예산 감액이 필요하므로 5억 4500만 원 감액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예산은 세 가지 중에서 30억 3600만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인권보호관 운영 강화, 여성 조사관 인력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30억 3600만 원 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전국체전 시설 건립 사업은 연천 테니스장 전국체육대회 시설 건립을 위한 증액안 8억 4000만 원 증액은 반영이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지원액 한도가 20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추가 지원은 수용이 곤란한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국비 지원 한도 200억 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전국체전 개최 지자체 설비는 보조금법에 따라서 30% 정률 지원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한도가 2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그 한도 200억 원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걸 넘는 부분은 수용이 안 된다.

○소위원장 박수현 한도 200억 원의 내용이 지금 다 채워졌다 이런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또 정률 지원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30% 정률이 뭘 의미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총금액의 3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계원 위원 전체 금액의 30%고 최대 한도는 200억을 초과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67쪽, 지역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과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안 54억 5400만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10% 감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스포츠과학원의 핵심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런데 이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김재원 위원님께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은 무조건 감액 의견을 내신 게 아니에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한도를 두고 계세요. 그것이 개선될 때까지 일부를 감액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예산의 필요성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선돼야 되고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적받을 때 잘하겠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김재원 위원님께 차관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김재원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재원 위원님의 이 일관된 감액의 사유를 보면서 참 감동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무엇인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실천되겠구나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냥 립서비스로, 말로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김재원 위원님이 이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를 전제로, 그것도 10%만 무슨 담보처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많은 지적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대책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까지 하셨던 모

든 다른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대책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님한테 꼭 설명드리고 그 대책이 김재원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문체위원 전체에게 다 공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 문체위원들이 다 함께 지켜볼 겁니다, 김재원 위원님하고.

아까 이 회의 끝나고 나가면서 김재원 위원께도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앞으로 같이 지켜보고 추적해 보고 모니터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다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이라는 그런 자신 있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신뢰성 없는 말이라니까요. 어떻게 100%, 완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는 겸손한 대답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니까.

김재원 위원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김재원 위원님도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저는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예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화된, 지능화된 방법으로,페이백 방법까지 써 가지고, 아까 차관님께서서는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건 항상 필수적이다라고 하고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유용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인 예산을, 그것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모두 국민의 혈세로 운용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부정행위로 자기들이 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도·감독만으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1차관 소관 심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시다만 이게 지도·감독만으로는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페이백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고도화된, 지능화된…… 여기 이런 분들 다 박사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서류도 잘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낼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검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다는 것을 밝혀 내실 거냐는 거지요.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해 오시라는 건데 그냥 지도·감독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혹자는 얘기들을 그렇게, 도는 소문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은 왜 저런 것들에 저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러려고 들어와 있는 국회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럼요.

○**김재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문체부 입장에서는 지도 편달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존경하는 박수현 소위원장님께서 권고하신 데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을 믿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우리 문체위에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서 연말까지 가져올 것을 요구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문체부 대신에 제가 책임을 진 겁니다. 아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아마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을 간혹 할 수 있잖아요, 부모를 실망도 시킬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자식을 학교에 안 보낼 수가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꼭 필수 예산이라고 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저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정부 요청대로 정하는 걸로 하되 12월 말까지 김재원 위원님과 우리 문체위에 이러한 데 대한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실제 조사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진상 규명과 함께, 물론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다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김용규 70쪽부터 7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융자)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3년간 융자 및 이차보전 집행 규모가 2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며 불용 예산액이 이미 582억 3000만 원인 상황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980억 5700만 원 감액.

71쪽입니다.

아시아카누연맹본부가 이전한 울산시에 국내 최초 국제 규모 경기장 건립을 위한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한 8억 원 증액.

소멸위기에 직면한 고창군 관련하여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 신규 반영 위한 7억 원 증액.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스포츠 업계 금융 지원 사업은 스포츠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융자제도 변화 그리고 경제 성장 전망 및 융자 대상 확대에 의한 대출 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6년 정부안을 적정 규모로 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융자제도 변화라 함은 그동안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던 것을 직접융자 방식으로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일단 이 사업에 앞서 69페이지, 수용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스포츠 가치센터 이게 이기현 위원이 제기한 고양시 스포츠 가치센터가 있고 저와 또 박수현·배현진 위원님이 제기한 내포신도시 가치센터의 용역비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각각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합쳐서 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부분은 그동안 공모 사업이 아니고 지역을 특정해서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해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창원이 제일 처음 가치센터를 개소했었고, 운영 성과는 평가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거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똑같은 스포츠 가치센터라 하더라도 운영 형태라든지 또 입지 시설 이

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화시킨다든지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용자와 관련해서는 어제 1차관 소관에서도 예술산업 금융 용자 200억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한 거에 대해서 질책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집행 규모가 굉장히 미흡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기존의 직접용자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만 한정을 했고요. 기업에서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운영 자금은 이차보전 형태로 이자의 차액만큼만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시설보다는 운영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운영 자금도 직접용자 형태로 변화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직접용자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70% 정도로 집행률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직접용자로 바꾸려면 기존의 이차보전의 이자액만큼을 산정하게 되면 용자금 규모로는 790억 정도가 되는데 일절 예산을 내년에 올리지 않고 올해랑 동일하게 하면 올해 대비 70%의 효과기 때문에 그만큼의, 100%에 가까운 집행률이 있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믿고 올해는 삭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실은 요건을 갖추기도 힘들뿐더러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아는 체육시설업자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률이 낮았던 거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됩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여기다 한 말씀 붙이면, 이것도 지금 시설 부담 운영 자금으로도 더 확대하겠다고…… 그런데 올해 제가 발의·통과시킨 국민체육진흥법, 그 용자 대상을 지금까지 우수업체로만 했었는데 모든 업체로 확대하는 걸로 법이 통과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대출 수요 증가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그 부분을 지금 빼먹고 하시네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예, 맞습니다. 설명이 길어질까 봐 그랬는데, 아까 차관님 설명하실 때 대출 수요 증대 가능성을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 에 따라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수체육용구 생산 업체가 모든 체육용구로 늘어나고요. 스포츠서비스업도 기존에는 경기업, 마케팅업, 정보업이었는데 여기에 스포츠 게임업이나 스포츠여행업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대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감액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 미집행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라고 계속 문의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 요청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 해서 통과까지 시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자세한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용자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이고 또 그에 따라서 거의 집행률 100%에 가까이 갈 거라는 자신 있는 예측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이 문제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71쪽입니다.

지역 특화 스포츠산업 발전 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사업으로 정부안 4억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 단위의 공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을 명기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을 수용 곤란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정부안 4억 원이 반영돼 있어서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서 두 곳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욱 위원 어차피 이게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지금 계획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울산과 고창이 지금 직접 바로 경기장을 건설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합당한 공모 절차를 거치는 거니까 당장 각자 경기장을 건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지역이 결정이 되면 세부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

○정연욱 위원 4억이라는 건 각각 2억, 2억씩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정부 예산이 이미 기재부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면, 벌써 2억 원 예산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받은 건 아니고요……

○정연욱 위원 정부안에 반영이 됐다고……

○임오경 위원 정부안에 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정부안에 한 곳당 2억씩 4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김용규 7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

○조계원 위원 잠깐만요. 71쪽에……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께서 71쪽 질문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거 확인해 보니까 대선 공약 사항이더라고요. 이게 소멸위기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려해 가지고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어떤 거 말씀하시는……

○조계원 위원 71페이지, 고창군 이게 지금 공모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공모 방식으로 하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기재부와 협의 사항 등등 해서 감안해서……

○조계원 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잘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반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73쪽입니까?

○전문위원 김용규 예, 73쪽입니다.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 사업이 76쪽까지 있는데요 일부 수용 5건이 다 동일한 사유입니다.

74쪽입니다. 투르드 경남 2026 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공모 사업 총사업비 20억 증액.

다음, 밑에 페이지입니다.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공모 사업 총사업비 10억 원 증액.

75쪽입니다.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 선수권대회 공모 예산 10억 원 증액.

그다음 마지막으로 2026년 배틀오브더이어 월드파이널 신규 반영을 위해 10억 증액.

그다음에 76쪽 위에 이창호배 천년전주 월드마스터즈 바둑대회 신규 반영 위해 2억 60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예산 증액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수용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일부 수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역사업에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에 총 얼마를 증액시키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직무대리 이혜림 체육협력관 직무대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개별 대회별로 액수를 명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전체 예산 중에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40억 추가 증액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7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김승수 위원님의 40억 원 증액을 수용하고 그 뒤에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설명한 5건에 대해서는 공

모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리고 그 증액된 40억 원 안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공모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김용규 76쪽, 태권도 진흥입니다.

강원 춘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은 2026년 10월에 건립 공사 착공이 시작되어 공사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집행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26억 2500만 원 감액.

나머지 80페이지까지는 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76페이지, 내역사업 강원 춘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에 대한 김승수 위원님의 26억 2500만 원 감액에 대한 정부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6월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요 전혀 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수용해서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김승수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업이 지체돼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정도는 감액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확실하게 집행이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춘천시에서 의견이 와서요.

○김승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하나 더, 수용으로 돼 있지만 태권도 세계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홍보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북한하고 동시 등재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태권도단체들과 저랑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안에 반영이 되도록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대로 지금 국가유산청은 가고 있고요. 태권도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등재야 국가유산청 업무지만 홍보예산은 여기다 넣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어쨌거나 북한 태권도하고 우리나라 한국의 태권도하고 같이 동시에 등재할 것이냐, 각각 따로 신청해서 심사를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칙을 빨리 정부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1안, 2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것도 중구난방으로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일단 정부 입장은 정해졌습니다. 태권도단체와 공동 등재를 위해서 지금 ITF와 WTF 간에도 논의가 있고 얘기가 잘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는 받았는데요. 공동 등재를 목표로 하되 만약에 공동 등재가 북한 측의 반대나 이런 걸로 잘 안 된다 하면 그 이후에 단독 등재로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태권도 진흥과 관련하여 강원도 춘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에 관한 김승수 위원님의 감액 요구안은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착공하기로 시행에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다라는 정부 측 계획 보고에 따라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한 김승수 위원님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 동시 등재에 대한 노력도 소홀함이 없이 잘해 주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전문위원 김용규 81쪽,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84쪽까지인데 일부 수용 6건이 있습니다.

먼저 81쪽,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지원에서 타 장애인체육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업내역에 문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치 않으므로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5100만 원과 문화사업 부분 10억 원 감액해서 총 14억 5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이천선수촌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 지원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중장기 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비 18억 53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장애인체육법인단체 지원 관련하여 각 법인단체별 체육활성화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억 52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이천선수촌 지원에 중증장애인 선수 훈련지원센터 확충 타당성조사 실시를 위해 2억 원 증액.

그다음에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지원을 위해 1억 원 증액.

그다음에 84쪽입니다.

전국시각장애인생활체육대회 신설 및 운영 예산으로 1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체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감액안 14억 5100만 원 중에서 2억 6500만 원만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SOK 사업 중에서 스페셜 뮤직엔아트 페스티벌 이게 2억 65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핵심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

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일부 수용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다가 한말씀 더 드리는 것은 예산 지급 방식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억 6500만 원 감액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어쨌거나 세계장애인체육대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패럴림픽이 있고 여기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스페셜 올림픽이 있고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데플림픽이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의 그런 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고 또 오랫동안 그런 행사, 대회들이 즉 유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산 부분만 그렇게 하고요. 독립성은 유지가 될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본 건은 정부 의견대로 2억 6500만 원만 감액하되 임오경 위원님의 제안대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정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82쪽입니다.

이천선수촌 건립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선수 훈련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상임위 증액안 18억 5300만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표현이 잘못됐는데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일부 수용이 아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결정된 것으로 합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사업은 다양한 장애체육단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증액안 2억 5200만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일부 수용으로 표현되어 있을 텐데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결정된 것으로 합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천선수촌 건립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선수 훈련지원센터 확충을 위해 상임위 증액안 18억 5300만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돼도 됩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입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수현 18억 5000만 원이 기반영이 돼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일부 수용도 아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용 곤란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이요.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지원을 위한 1억 원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 부분도 앞에 2억 5200만 원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억 원 증액 2개는 수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수용 곤란으로 정리된 것으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 전문위원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84쪽부터 8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 중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감액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치우개선을 위해 37억 1500만 원 증액.

8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감액분에 대한 원상복구 및 치우개선을 위해, 동일한 사유인데 37억 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 부분은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이라서요 37억 200만 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37억 1500만 원 증액은 수용 곤란이고 37억 200만 원이 수용입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부 100% 수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하겠습니다.

내역사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사업은 임오경 위원님 증액안이 37억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7억 200만 원이 정확한 것이고 정부는 전부 수용한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김용규 87쪽부터 마지막인데요 90쪽까지는 세부사업에 없는 신규로 지정된 것입니다.

먼저 88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해 15억 원 증액.

그 밑에 56번, 스포츠 활동공간 안전관리 표준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20억 증액.

89쪽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에 문체부 폐지분만큼 지방교육청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문체부·교육부 매칭 비율을 2 대 8로

하고자 104억 51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59번,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은 경상북도에 지원하기 위해 10억 4500만 원 증액.

90쪽입니다.

시니어 스포츠 케어센터 건립에 1050억 증액.

그다음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15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87쪽, 동계스포츠 발전 지원 사업은 올림픽 유산시설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관광 사업 10억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경기장 활용도 제고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스포츠관광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54번, 10억 원 증액 요청인데 수용하신 겁니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88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은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 전국 단위 공모 방식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10억 원은 그대로 증액하되 전국 단위 공모 방식으로 일부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친환경 이건 63억 50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아니, 지금 88쪽 55번,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신규)에 10억 증액을 박정하·진종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이거든요, 평창군 공공 대중골프장 조성.

○전문위원 김용규 위원장님, 70쪽에 지역성장형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에 63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아마 문체부 쪽에서는 여기에 10억 원을 준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게 수용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전문위원 김용규 지금 70쪽은 수용이 돼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63억으로 하고 이 부분은……

○소위원장 박수현 63억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죄송합니다. 좀 헛갈려서……

○임오경 위원 평창군에 새롭게 신설하는 건가요?

○민형배 위원 아니요, 공모할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새롭게 신규로 골프장을 또 추가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임오경 위원 아니, 제 말은 평창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골프장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성이라는 말은 신규로 더 만든다라는 건가요, 평창군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런데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5개소에.

○임오경 위원 그건 알겠고 평창군에다가 골프장을 확대한다라는 말씀이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신규로 하고……

○임오경 위원 신규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진종오 위원 평창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공모하겠다고요. 평창이 빠지고, 그러니까 평창이 아니고. 그래서 일부 수용이라는 게……

○조계원 위원 앞서서 70페이지, 63억 5000 여기에다 10억을 더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플러스 10억을 미리 하고 이걸 수용은 곤란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0억 더 하는 게 아니고 63억 5000만 증액이 되면 그 예산으로 전국에서 5개소를 공모해서 하겠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하겠습니다.

55번,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신규) 평창군에 공공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그 외에 박정하·진종오 위원님께서 10억 원 증액 요청하신 것은 73쪽에 나와 있는 63억 5000만 원이 수용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전국 단위 공모 방식으로만 전환하는 일부 수용으로 정리한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차관님, 친환경 대중골프장 이거 에콜리안 골프장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로 몇 개를 하려고 하고 국비 지원은 어떻게 내역이 되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00% 공단이 하는 사업이고요. 100% 체육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65억……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거는 설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설계를 몇 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5개소.

○김승수 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군데 있고요.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에 신규로 5개 설계해서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런 뜻입니다.

○김승수 위원 단기와 중장기계획을 같이 한번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상황에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보기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골프장 그린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콜리안이 그린피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민형배 위원 그거 검증이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과학적인 검증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견으
로서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냥 느낌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능을 못 하던데. 전국에 6개
있는데 일반 골프장이 그보다 한 100배 많아요. 최소한 70배쯤 많은데, 한 450~500개 된
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민간 골프장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5개 설게 더 해
가지고 한 5년이나 뒤에 개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쯤 아마 골프장이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를 걸요, 벌써 그런 상황이 오고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골프장의 요금 문제 때문에 그러신다면 제가 전에 현안질의 때 한
번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요금 체계하고 세금 문제를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관련한
업계 분들 모셔다가 한번 잘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
는 한 세 부류쯤이 있어요, 골프장 피에 대해서.

굉장히 공공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피를 많이 내려서 수요를 많이 창출한 다음에 자
신들의 이익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꿔 보자 이런 파트가 있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고
급화 전략을 써서 자기만의 특별한 수요를 창출해서 유지시켜 가려고 하는 쪽이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
윤 창출을 최대화하면서 접근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적게 내고 피는 많이 받는
방식으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한 정책 접근을 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골프장, 에콜리안 9홀짜리 5개 지어
가지고…… 그거는 정책적 접근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엉뚱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저도 그런피를 낮추기 위해서 캐디 선택제라
든가 카트 선택제라든가 의견을 제시해서 골프장경영협회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경영협회에서는 이걸 또 반대를 하고 있고……

○민형배 위원 못 해 보시잖아요, 지금. 반대를…… 그게 정책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잖
아요. 왜 안 됩니까? 이상하게 그 영역만 안 돼요, 지금. 골프장만 안 돼요.

체육국장님, 이것 진짜로 한번 해 보세요. 이미 골프인구가 600만인지 1000만인지 그런
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소위원장 박수현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민형배 위원님 발언 정리하시고요.

차관님도 골프의 전문가시고요. 차관님만큼 전문가이신 민형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을 하셨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은 신규로 할 필요가 있는지를 진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조계원 위원 맞는 얘기 같기는 해요. 급하게 지금……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1개소도 아니고 갑자기 또 5개 아납니까? 그래서 장단기로 검
토해 달라는 것이, 현행 운영 상황과 앞으로의 추이도 더 검토해 보고. 특히 지금 파크골
프 인구가 급증하는 게 기존에 골프 치던 사람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파크골프로 전환하
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에콜리안 골프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일반 9홀과 또 한두 홀 정도는
파크골프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들, 다양한 모델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민형배 위원 저는 지금 김승수 위원님 제안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에콜리안 골프장을 차라리 파크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이것도 파크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옆에서 지금 안 된다 그러시는데……

○임오경 위원 저는 위원님들 말씀도 존중하지만 젊은 사람도 존중해 주고 남녀노소 다 존중해 줘서 에콜리안 파크골프로 전환만 하면 안 되고.

아까 공공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에 공공이 세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88·뉴서울·태릉. 거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공공에서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일반사람 들어가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태릉 쓰시는 분 얘기를 들어 봤더니 군 관계자들은 3만 원, 4만 원 내고 가고 가족들도 5만 원만 내면 들어간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연욱 위원 거기는 원래 군인들……

○임오경 위원 아니, 뉴서울CC는 여기 위원님들 있지만 한 번 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회원제로 해서 예약이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의제기 들어오고 있는데……

○김승수 위원 뉴서울CC의 특별회원 문제 해결됐어요?

○임오경 위원 아직도 안 됐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제 해결됐잖아요.

○임오경 위원 아니, 사장은 해결됐는데 특별회원 관련된 것……

○소위원장 박수현 골프장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종료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게 아니고 이 골프장……

○소위원장 박수현 잠시만,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공공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현 흐름에 유용한가에 대한 매우 진지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말씀하신 논리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골프를 전혀 치지 못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도 5만 원 내고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문체위원님들도.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런 가치도 중요합니다.

○조계원 위원 큰일 납니다.

○정연욱 위원 그것은 문제가 돼요.

○임오경 위원 국방위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 지금 기록에 다 남아요.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 56번에 대한 정부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88쪽입니다.

체육시설법령상 체육시설 안전 점검 등을 위임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일부 수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기 내용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보조기관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충분히 그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보조기관을 지정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설명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에 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장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가기 전에 제가 해외 출장 중이고 해서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88쪽에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2432억 원이고 수용이라고 표현이……

○민형배 위원 이천 얼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432억 원인데요. 큰 국가사업을 제대로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없고 또 지역을 이렇게 바로 찍어서 하기도 좀 문제가 있는, 나중에 국가적으로 선정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게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는 수용 곤란으로 좀……

○김승수 위원 차관 말씀이 당연한 건데 실무자들이 이런 정도도 구분을 못 합니까? 관련된 국장들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희들은 위원님들 존중하라는 지침을……

○김승수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에요, 보면?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차관님의 설명을 들으니깐, 진천선수촌의 포화 상태로 인해서 지금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집중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처로 인해서 제2의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2의 계획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직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계획도 없고 포화 상태고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 선수들 어디 지방으로 가서 모텔에서 숙소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대한체육회랑 좀 더 심도 있게 작업해서 추후에 다시 안을 마련……

○김승수 위원 그러면 실제 이게 필요한지 사전 검토를 위한 용역비라도 먼저 책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야지 바로 반영하기 위한 이런 예산은 안 되지요.

○민형배 위원 저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10억 원이 무슨 돈이나, 이게 용역비 정도였으면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다 얼른 용역비라고 하세요.

○진종오 위원 저는 이 관련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가 포화 상태라고 하시는데 무턱대고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포화됐다고 해서 그만큼 건립을 더 해서 선수들을 수용한다? 저는 그것은 20년 선수 출신으로서 반대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대표 선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후보 선수들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꿈나무……

○진종오 위원 후보 선수가 선수촌이 필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임오경 위원 후보 선수들도 훈련할, 그러니까 개인 종목과 구기 종목을……

○진종오 위원 이것은 간사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게 아니라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꿈나무 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대회도 있고 주니어 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훈련할 곳이 없어서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에 모여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어느 체육관을 대여해서 훈련하고 있어요. 후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아마 이런 꿈나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진종오 위원 포함돼 있는 건 맞는데 관련 사항을 지금 논의할 게 아니라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민형배 위원 차관님, 이럴 때는 정리를 좀 하세요. 이 10억 원은 용역비다,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정리될 건데 자꾸 얘기가 이렇게 번지니까 복잡해지네요. 이 10억 원이 무슨 돈이냐고요.

○조계원 위원 어차피 용역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용역 필요 여부를 포함해서 대한체육회랑 좀 더 논의를 해서……

○민형배 위원 아, 그래서 우선은 필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논의 자체가 안 된 거네.

○민형배 위원 용역비 뭐고 필요 없다, 나중에 더 검토한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차관님, 그러면 한 가지를 확인해 볼게요.

대한체육회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심도 있는 협의 좋습니다, 그것은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해 놓고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이 필요 없다거나 안 하겠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 필요성부터 다 포함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정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왔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수용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닌데 이것을 덜컥 수용하기가……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세요?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인데 지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심도가 있든 없든 간에 협의조차도 안 된 사안인 것은 분명해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이나 진종오 위원님은 필요성은 서로 다 다른 방면으로 인정하시고 또 민형배 위원님이나 조계원 위원님은 용역비라도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체육회와 문체부가 아예 기본적인 대화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거창한 사업을 이렇게 그냥 용역비로 반영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상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꼭 필요하다는 절박성·필요성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심도 있는 추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안해서 논의를 잘하시고 이것을 우왕좌왕하지 말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똑바로 잘해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부의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됐지요?

○민형배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2432억 원이라는 추계 예산은 대략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제2선수촌 건립에 243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저도……

○민형배 위원 이 정도면 다 검토해 봤다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제가 담당 차관인데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 합시다.

○정연욱 위원 그 자료 소스가 어디예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뒤에 설명 좀 해 보세요, 들은 분들 계시면.

○정연욱 위원 체육국장이나 다른 실무자들이 자료를 냈을 거 아닙니까?

○진종오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임오경 간사님하고 조계원 위원님은 이 관련 사항을 보고받으셨어요? 이것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으세요?

○조계원 위원 서면질의서요?

○진종오 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 쪽은 보고받은 게 없는 상황이라서……

○조계원 위원 대한체육회 쪽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진종오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요청이 골고루 안 가고 그렇게 잦다라는……

○조계원 위원 아니요, 임오경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같이 했잖아요.

○김승수 위원 차관님, 이게 어떻게 발단이 됐는지, 대한체육회에서 누가 요청했는지 확인해서 저희한테 다 알려 주세요.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89쪽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칭 비율을 계속 줄여 오다가 올해 2025년부터 교육청 사업으로 완전히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지원하는 것은…… 역으로 가기가 상당히 힘든 사안이라서 수용 곤란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임오경 위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에 관련해서 교육재정의 열악으로 인한 감액분만큼 문체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024년부터 계속적으로 방향을,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여유가 있다고 기재부에서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매칭을 줄여 오다가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2025년부터는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넣기는 사실상 어려운……

○임오경 위원 일단 상임위에서는 통과시키고 예결위에서 결론을 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문체부 차원에서는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국가 정책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나 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기에 요구를 한 이유 그것은 문체부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감을 통해서 또 여러 차례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차관의 말씀대로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된 이 사업의 예산을 여기서 반영하자고 더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 문제는 증액 요구한 저도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정부 측 의견으로 결정된 것으로 정리합시다.

○민형배 위원 제가 그 전에 말씀을 조금만……

○소위원장 박수현 하세요.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문체부가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도교육청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도 서면질의를 넣으셨을 거고.

차관님은 우리 손 떠났다고 그러시니까 그냥 털고 싶으실 텐데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지금 여기 쓰여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폐지분만큼 지방교육청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이게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스포츠강사들은 물론이고 그 수혜를 받던 아이들이 지금 이럴테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붕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니니까 상관없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걱정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2024년 대비 국비 지원이 감소한 만큼 교육청 자체 예산이 증액 편성됐고 그리고 퇴직 등의 자연감소분을 제외하면 고용 규모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도 받았고요.

○김승수 위원 차관님, 그 조사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조사했는지는……

○김승수 위원 일단은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 안 됐어요, 지금 정기회 열리지도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니, 24년에서 25년.

○김승수 위원 지금 우리는 내년도 예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같으면 국비 20% 지원이 없어지니까 그런 데 대한 걱정을 가지고 일단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내년도 집행부안에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이전에 반영이 안 된 데 대해서는 반영을 촉구하고 그래도 반영이 안 된 데는 시·도의회에서라도 최종 반영이 되도록 또 촉구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 시도가 몇 개 시도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야기가 돼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증액 안 시켜도 되겠구나……

그런데 일단은 아직까지 시도에 증액이 안 된 데가 많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시켜 놓고 예결위에서 안 된 시도에 대해서는 다른 패널티나 이런 쪽으로 압박을 가해서 반영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막연하게, 그러니까 시도의 선의에 기대 가지고 우리가 증액을 안 시키고 갔을 경우에 만약에 시도마다, 아마 각각 달라질 겁니다. 반영을 시키거나 일부 반영을 시키거나 그런 데 따라서 강사 수를 줄이거나 시수를 줄이거나 이런 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임오경 위원 차관님, 그리고 말씀을 차관님이 참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기재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게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

○임오경 위원 전 정부 때 일방적으로 이관시킨 사안이에요, 협의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려놔도 괜찮다. 지금 지방에서는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고 결정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문체부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결정을.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이관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관됐는지,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시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예산 반영해서 기재부하고 원점으로 돌려놓으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제가 그 배경은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 스포츠강사도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사실 기재부가 전환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청에서나 이쪽에서는 교육재정으로 이것을 분담을 안 하니까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포츠강사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고. 학교예술강사는 이번에 예산을 증액은 했지만 이것도 지금 예결위 가서 제가 보기에는 또 기재부에서 엄청 공격 들어올 거예요. 이것도 또 올리면 기재부가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거기서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 보자라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제가 배경을 몰랐고요. 그런 배경이었다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차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계원 위원 제가 총대 메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조계원 위원 임오경 위원님이……

○소위원장 박수현 이걸 말씀을 다 들어 보시지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저는 말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더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결정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가 비록 예비심사이기는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 왔고 또 현장의 상황이 지금 체육 담당인 문화체육부만 하늘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현장

의 조사를 해 봤다라고 하는 조사 내용의 확실성 여부도 정확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현장의 상황은 불확실성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온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의지를 담아서 예비심사 단계인 본 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정부 측이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으로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 다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이제 다른 사안으로 가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은 폐지하고 동 사업을 개편한 사업이 1학생 1스포츠 보급 사업입니다. 거기에 400억 원을 증액하는 걸로 해서 앞에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 곤란으로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한 말씀 물어볼게요.

그러면 ‘경상북도에 지원하기 위해’ 이걸 뭐예요?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인데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경상북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내용이 그렇게 왔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렇게 오게 되면 맞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이것은 특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기보다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이……

○임오경 위원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위원장 박수현 특별하게 경상북도의 예산이 어딘가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은 폐지하고 1일 1스포츠 400억 원 증액이 기반영된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90쪽입니다. 시니어 특화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증액안 1050억 원 중에 1차연도 국비 지원액 30억 원만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지금 요구액은 1050억 원인데요. 1차연도 설계비 10억 씩 해서, 공모를 통해서 3개소를 할 계획을 갖는다고 했을 때 30억 원을 부분 반영해 주시기를……

○김승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은 서 있나요, 시니어 스포츠케어센터 건립한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증액돼서 반영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김승수 위원** 이걸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요.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일단은 몇 군데라도 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시설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시작부터 정부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절차적 단계를 밟아 가야 될 사업이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박정하, 임오경 양당의 우리 문체위의 존경하는 간사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고 아마 증액을 요청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차연도 30억 원을 반영해서 일단 첫째 사업을 잘해 보시고 나머지 확대 여부를 결정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반영하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차연도만 30억 원 반영하는 일부 수용으로 결정……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일단 시니어 스포츠케어센터 같은 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사전 용역이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어떤 시설을 어떤 지역에 장단기,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1차연도에 공모를 통해서 3개 지역 같은 거기에 대해 일단은 실시설계라든지 또 이 정도 예산 규모 같으면 예비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비 정도 반영시키는 게 딱 맞아요, 이런 시설들을 어떤 규모로 장단기적으로 할 것인가.

○**소위원장 박수현** 차관님, 시니어 스포츠케어센터 건립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

○**김승수 위원** 없지요, 지금.

○**소위원장 박수현** 이따가 보류 심사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시니어 스포츠케어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중에 증액 요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보류하고, 그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후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류하고, 보류 심사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본계획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90쪽, 신기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 체육시설로서 2023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돼서 국비 지원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정부 측 의견대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체육이 끝났는데 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 수용이어서 넘어간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논의가 됐던 겁니다.

57페이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이 제기하신 장흥에 있는 체육인재개발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 그동안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이 시설 건립할 때 문제부는 시설 건립비는 지원해 주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대한체육회에서 한 다 이렇게 해서 반대해 왔던 거 아닙니까? 입장이 확실하게 이렇게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기로 변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대한체육회가 지금 예산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 입장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승수 위원** 아니,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임오경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은 스포츠가치센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왜 여기는……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초에 건립 당시에 대한체육회하고 의 약속 때문에 운영비 지원 못 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앞서 스포츠가치센터가 전국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그러면 그거 다 운영비 지원해 줄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이걸 대한체육회이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원칙……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 가지고 건립 당시에 이런 약속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문제부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평성 면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요량해 가지고 딱 그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수현** 차관님, 이 대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향후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때까지 몇 년간 한다든가 이런 전제조건은 없습니까? 그런 것조차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런 방침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운영비 지원을 하기로 이미 수용이 돼서 정리된 것이니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의 지적이 또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와 운영을 자체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충분히 한 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를 계속함으로써 운영비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함께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 인재개발원이 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문제가 많은 거. 일단은 운영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이고 건립 자체부터가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체육회에서 중간중간 사업에 대한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계가 있지 않는 한 그냥 예산 지원하는 거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여기가 지금. 그 어떤 사람들도 가기 싫어하고 강사들도 가기 싫어하는 구조라서 이거는 체육회에서 정확히 분기별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연한 지원은 아니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오경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중간보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틀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0% 국비로 만들어진 거고요. 대한체육회에서 운영비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처음 장흥 인재개발원 예산을 반영 받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2019년 예결위에서 추가 요청을 했는데 어려운 국면에 접했을 때 차관이 갑작스럽게 그러면 운영비는 대한체육회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고 나서 대한체육회장에게 이렇게 좀 강구해 봐라라고 하였고 그렇게 대화가 나온 거지 ‘너희가 운영비 책임지고 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논쟁이 있으면서 말이 좀 다르게 나갔습니다. 사실을 짚고 싶어서, 제가 이거는 국감 때 자료까지 다 보여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대한체육회가 운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문제로 가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저희가 좀 도움을 주고, 이것도 사십 몇억인가 요청을 했지만 다 줄인 것 같습니다. 좀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간보고를 계속해서 받는 측면으로 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지원을 끊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대개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정부안대로 결정을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까지 받는…… 당연히 사회적 책임, 공적 책임을 더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만 권고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서 또 점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셨으니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해서 진중오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께 함께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릴 부분 안내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일반회계 1쪽부터 9쪽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통실은 나중에 하고요, 7쪽 5번부터 9쪽 10번까지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7쪽, 타 국제공항 연계 상품 운영 교통비 지원입니다.

무안공항 재개항 전까지 타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상품의 차량 임차비를 보전하여 여행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억 증액입니다.

6번부터 9번은 다 슬라시도입니다.

8쪽, 7번입니다. 슬라시도 외국교육기관 설립 용역비 3억 원 증액.

8번,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27억 증액.

9쪽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4억 증액.

마지막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기관장 인사 및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련 운영비 10% 감액이 필요하므로 4억 8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광주·전남 여행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상임위 증액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국비 100%보다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되기를 희망해서 일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슬라시도 관련해서—8페이지입니다—외국교육기관 설립은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문체부의 조직과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수용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외국교육기관 설립은 교육정책으로 문체부 소관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수용 곤란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수용하십니까?

○조계원 위원 소관이 아니라고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8쪽입니다. 데이터센터 설치, 에너지 공급은 산업진흥과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문체부의 조직과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수용 곤란합니다.

○조계원 위원 이걸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산업부나 기후에너지부의……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9번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9쪽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이미 국비를 지원한 바 있어서 추가적인 지원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민형배 위원 문체부에서 지원한 적이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2013년도부터 22년도까지 국비 1519억……

○민형배 위원 관광개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조계원 위원 구성지구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구성지구.

○조계원 위원 천오백 얼마를 지원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519억.

○소위원장 박수현 2013년부터 22년까지 국비 1519억 원이 기지원되었으므로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는 정부의 의견대로 결정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9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비 10% 감액에 대해서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지만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기본적인 경비다 보니까 정상적인 기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아마 대답을 그렇게 하시도록 패턴화를 만들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12월 말까지 우리 위원회와 저에게 이것을 어떻게 방지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저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또 사행성 산업이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하에서 감시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4억 8400만 원 감액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안을 받아들여서 감액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12월 말까지 방안 철저히 마련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또 정부 의견대로 수용 곤란으로 결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전문위원 김용규 일반회계 1쪽, 정책홍보 및 분석 지원부터 KTV 운영까지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책홍보 및 분석 지원에서 홍보전문교육 내내역사업에 대해 정확한 사유 없는 현 정부의 지적 홍보 예산 증액은 관련선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년 수준으로 삭감하기 위해 7억 원 감액.

2쪽입니다.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 디지털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중—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유인데요—정확한 사유 없는 현 정부의 치적 홍보 예산 증액은 관권선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년 수준으로 삭감하기 위해 50억 900만 원 감액.

3쪽입니다.

디지털 여론분석 및 지원 사업, 정확한 사유 없는 현 정부 치적 홍보 예산 증액은 관권선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년 수준으로 삭감하기 위해 15억 500만 원 감액입니다.

4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체 활용 정책홍보도 정확한 사유 없는 현 정부의 치적 홍보 예산 증액은 관권선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년 수준으로 삭감하기 위해 35억 5600만 원 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KTV 운영 중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 등의 개인 유튜브처럼 활동하였으며 정책을 홍보하는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였고 2026년 지방선거 앞두고 각종 홍보 채널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관권선거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년 수준으로 삭감하기 위해 74억 6800만 원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쪽, 홍보 협력 및 분석 지원 사업을 위해 상임위 감액안은 수용 곤란합니다. 디지털 매체 활용도 증가에 따른 홍보 담당자 보수교육과 브리핑 등 대국민 직접 소통 시 명확하고 효과적인 정책 정보 전달을 위한 정책 발표 교육에 관한 증액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홍보 협력 및 분석 지원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예산은 주로 홍보 담당자들 교육 예산입니다. 지금 대변인실 근무자가 860명 정도인데 현재 예산으로는 400명에게 1회 교육할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대변인실 근무자들에게 홍보 교육 1회 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차관 미디어 교육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을 1급 공무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교육 예산이지 이게 다른 오해받을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승수 위원 공무원 교육비를 일억도 아니고 한꺼번에 7억을 증액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작년에 3억 8000에서 10억으로, 그러니까 작년 2배 이상 늘린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시급하게 늘릴 필요성이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직무대리 이영호 소통정책관 직무대리 이영호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예,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직무대리 이영호 저희들이 2024년도에 5억 3000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3억 8000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7억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쫓 해 왔던 예산에 비하면 그래도 한 2배 정도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승수 위원 작년에는 존경하는 민주당, 여당 위원들께서 삭감 주장을 해서 삭감이 됐을 텐데 작년에 삭감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직무대리 이영호 작년에는 집행률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요. 5억에서도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은 무려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증액을 시키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1년 만에 확 태도가 바뀌었던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직무대리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공무원들이 적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소통 교육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면 좋을 부분은 소통이라는 부분은 정책과 국민을 이어 주는 매개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 그리고 정책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소통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만든 정책을 국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지에 대한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 어디다 보내 가지고 어떤 교육 시키려고 그러는가요? 지금 기본계획이 잡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직무대리 이영호 기본계획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김승수 위원 교육 내용을 뭐로 하려고 하느냐……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직무대리 이영호 교육 내용은 미디어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의 카메라 적응 훈련이라든지 인터뷰 나가든지 브리핑 나갔을 때 어떻게 활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지금 차관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변인실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분들께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리고 집합 교육,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 등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일인당 교육비는 얼마나 단가 산정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직무대리 이영호 일인당 단가로, 단가라기보다는 사업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단가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정부부처 1급들 다 시키고 그다음에 대변인들 시키고 그다음에 또 홍보 관련되는 과장급 시키고 그런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직무대리 이영호 예, 고위직으로는 장차관들도 있지만 국장들까지, 대변인들까지 미디어 트레이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인터뷰나 아니면 브리핑을 하실 때 어떻게 발언을, 말씀을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야 나중에 자기가 자기 정책을 소개할 때, 브리핑을 할 때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갑자기 증액시키고 이런 것들이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또 사상교육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사실 1급도 국장들 같은 경우에 거의 1년도 안 돼서 전 보되거나 또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교육을 시키더라도 누구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 또 오랫동안 이 부분을 정부기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소통정책관직무대리 이영호**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도……

○**소위원장 박수현** 잠시만요, 위원님.

이 부분은 토론을 여기서 마치고요.

소통 예산이 몇 개 되잖아요, 지금. 일단 쪽 한번 독회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 소통 부문 예산을 통으로 전체를 살펴보고 구조를 보신 다음에 건별로 다시 정리를 해 보는……

○**조계원 위원** 잠깐만, 이걸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급 공무원까지 해서 다 기본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지요? 일반 공무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급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조계원 위원** 일반직 공무원이고 여기는 능률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강사 풀, 그러니까 이념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야말로 미디어 트레이닝 그리고 SNS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소통 역량 유지 강화, 대국민 언론 소통—이념 소통이 아니지요—그래서 실무적인 기술적 측면의 교육들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에 따른 비용이고 인원이 4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비용 소요가 많다, 그래서 정무적인 그런 건 아니니까 우려를 불식해 달라 이런 주문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홍보 실무자 교육입니다.

○**조계원 위원** 순수하게 실무자 교육이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아니……

○**소위원장 박수현** 한번 보시지요. 쪽 보시겠습니다.

일단 정책 홍보 및 분석 지원 이거는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토론을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쪽입니다. 디지털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0억 900만 원 감액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온라인 프로모션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등 개별 부처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범부처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세밀화된 국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접 소통을 위한 예산 확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정연욱 위원 디지털 소통이나 쪽 세부내역을 보면 앞부분에 디지털 여론 분석도 있고 홍보인력 얘기인데 역대 정권마다 항상 홍보에 대한 집착, 특히 대국민 소통에 대한 정책 소통, 정책 홍보에 대한 집착이 항상 강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걸 또 별도로 해서 기구를 아예 특화시켜서 국정홍보처도 만들고, 별도의 소통기구로서 전담하는 전례도 있었지요.

정책 홍보나 소통을 하지 말자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구를 만들고 갑자기 인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특별한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항상 잡음이 생기고 정치적 오해를 낳았던 게 그동안 역사적 전례였습니다.

여기 당장 두 번째 읽으셨던 디지털 소통 활성화 지원을 얘기하자면, 디지털 콘텐츠 및 정책포털 서비스 지원 이렇게 하면 또 틀림없이 아마 정책포털을 만들겠다고 하실 겁니다. 항상 기구를 만듭니다. 기구를 만들고 뭔가를 해서 일을 만듭니다. 그러나 정책포털이라는 게 지금 관련된 유관 기관이나 유관 기구들이 항상 많습니다. KTV는 왜 운영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기구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항상 뭔가를 더 추가한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출입하면서 느꼈던 것도 있고요. 실제 당시에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정책포털을 만들면서 모든 걸 정책 소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어느 정권이나 이걸 안 해 본,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새 정부 출범하고 많은 걸 하시겠다는 취지는 제가 알지만 이렇게 갑자기 인력을 늘리고 갑자기 이걸 늘리겠다는 것…… 이거 아마 기구 만드는 것일 겁니다. 디지털 콘텐츠 및 정책포털 서비스 이게 뭐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디지털소통관 이정은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정연욱 위원 정책포털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지금 여기 정책포털이라고 되어 있는 위딩은 김승수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안을 드렸을 때는 디지털 소통 활성화 및 적극적 국민 참여 소통 지원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해당 예산에서 콘텐츠의 제작 예산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정책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예산과 기반은 갖춰 졌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청한 50억에 대한 예산은 그 해당 콘텐츠들을 국민들에게 확산을 시켜서 국민들이 그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확산 비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확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확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토스 이런 버티컬 미디어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확산할 예정입니다.

○정연욱 위원 역대 정부가 그거 안 한 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제가 작년 1월에 민간에서 와서 여기에 입사를 했는데요. 정부에는 디지털 소통을 확산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개념이 사실 거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걸로 신청을 한 것은 거의 없었던 예산을 새롭게 증액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이전에 있었던 예산을 증액하는 건 아닙니다.

○정연욱 위원 인스타나 모든 SNS 매체, 미디어 활용하는 것은 역대 정권에 다 있었어요, 그걸 활용하는 방식을 모르셨다는 거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저도 민간에서 일반 국민으로 살아오면서 국민들과 정부 사이에서 가장 컸던 문제가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었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왜 모르냐라는 게 늘 답답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들은 자기들이 수혜를 입거나 자기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나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서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정책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이미 디지털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정책을 홍보함에 있어서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은 디지털 소통 기관들이 예산 통과를 하지 못해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다른 민간이랑 똑같이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콘텐츠의 제작은 많이 했고 SNS 채널에 올리긴 했지만 알고리즘상 노출이 안 됐습니다.

○정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은 지금 되풀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동안 정책 홍보를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됐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충청북도 충주시에 홍보맨 있지요? 그분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늦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디지털 홍보를 못 했다? 그건 착각이시고요. 충주시 홍보맨이 그동안 온갖 유튜브 했지요? 유튜브가 없었습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위원님, 그런데 제가 경험상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연욱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교과서를 보고 읽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그만…… 그런 얘기는 계속 해 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스타나 SNS 통해서 하는 그게 생전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아니요.

○정연욱 위원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조만간 아마 정책포털 만드실 겁니다. 정책포털 또 만들어서 이 포털을 운영하는 기구를 또 만드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정책포털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정책브리핑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거는 지금 계속 저희 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형태로 또 아마 이상하게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구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타하는 게 아니라……

○조계원 위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닙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

니다, 위원님.

○정연욱 위원 아니, 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앞으로 가시면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뭘 하시겠다는 취지로 모든 걸 시작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초단체 중에 아주 낮은 단계에서 유튜브 홍보를 충주맨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많이 돌았던 부분, 그런 발상의 전환을 지금 공직사회가 했냐고요. 그런 발상 전환을 해 봤냐고요. 그런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요.

민형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민형배 위원 이정은 소통관님, 고위공무원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민형배 위원 고위공무원이면 상당히 정무적으로 임용이 되셨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민형배 위원 언제 임용되셨다고 아까 그랬지요? 작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작년 1월에 되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문체부에, 유인촌 장관 시절에 입사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2급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민형배 위원 그때 디지털소통관으로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때는 왜 뽑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민간에서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정부에 들어오면 좋겠다고……

○민형배 위원 오케이. 그런데 와서 보시니까 디지털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었습니까, 안 되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와서 보니까 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잘 모르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디지털 활용에 민간과 공공기관의 비대칭이 눈에 띄게 보이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이걸 해소를 못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열심히 올렸고 그런데 그 예산을 올리는 데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선은 제작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작비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도 다른 소통에 대한 예산이……

○민형배 위원 제작은 했는데 소통은 못 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문체부의 홍보 예산이—차관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전체 문체부 예산 중에서 몇 %나 됩니까? 마케팅, 프로모션, 소통 다 해서, 대략.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804억이니까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몇 %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8조에 800억이니까 영점……

○민형배 위원 1%가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 안 됩니다.

○민형배 위원 소통관님, 민간기업이나 보통 다른 곳에서 일해 보신 경험에 따르면 대개 홍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제가 신한금융그룹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경우에서 따져 보면 1년 예산이 한 2800억 원 정도 되었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홍보 예산이 2800억이면 전체 매출이나 전체 예산 중에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의 경우는 최소한……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20%……

○민형배 위원 지금 거기는 23%가 나오지만 최소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기업의 경우에 아무리 적어도 4%예요. 많은 데는 지금 20% 넘는 데도 있고 대개 평균적으로 보면 한 7~8%에서 15%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면 문체부의 이 홍보 예산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엄청 작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민형배 위원 다른 기관과 민간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비율로 따지면 다른 곳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개선을 윤석열 정부에서 안 했어요? 그게 왜 안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우선은 기재부, 정부안을 설명함에 있어서……

○민형배 위원 기재부가 막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기재부……

○민형배 위원 오케이, 좋아요. 기재부가 막았다고 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 홍보 예산 중에 디지털 소통 관련해서—디지털 세상이니까—디지털 소통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민간에서요?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 전체 문체부 홍보 예산 중에 디지털 소통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디지털 소통 예산은 총 해서 17% 정도……

○민형배 위원 작년엔, 올해 지금 세운 것이 17%고 작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작년에 75억이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몇 %나 돼요? 10%가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안 됩니다.

○민형배 위원 보통 민간기업에서 디지털 홍보 예산이 전체 홍보 예산 중에서 몇 %나 돼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55% 정도 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이 다 디지털화됐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엉뚱하게 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제대로 되겠어요? 더더구나 문체부가 정부 대변인 부처인데. 그 반성부터 하고 이 안을 내놓으셔야 지금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이나 김승수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수용이 돼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더더구나 문화를 맡고 있고 정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부처에서 윤석열 정부 내내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디지털 소통이 다른 데서는 보통 한 50% 이상 넘어가는데 10%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킁킁대다가 지금 겨우 17%로 올려 보려고 하니까 돼요, 지금 이게?

그 이전 상황에 대한 자기 고백과 반성부터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진단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여러 부처의 직원들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부처가 지금 대변인 맡고 있는 문화부장관 아니에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처음 근무할 때, 그때 제가 조금 전에 정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털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공공기관이 너무 소통을 못 하는 거예요, 국민 들하고. 그리고 언론은 계속 탄지를 걸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직접 소통 한다고 만든 게 지금 쓰고 계시는 그 포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별도로 청와대 브리핑도 냈어요, 다른 부처도.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소통 정책, 홍보 정책을 문체부가 다른 부처까지 다 하면서 정부 홍보 정책을 잘 리드를 해 왔어야 되는데 저 뒤에서 오히려 허우적대고 있다가 지금 새로 해 보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래야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반성부터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죄송합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련선거 가능성 있어요, 이거 만들면?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아니요. 저희는 사실 민생에 대한 콘텐츠가 올해도 87% 이상이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역사를 설명하시고 맥락을 설명하시고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이 예산이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수현**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님 발언 있습니까?

○**조계원 위원** 이거는 민생과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 편향적 콘텐츠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정치 편향적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국민적인 디지털미디어 소통들을 강화하고 홍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사실 여야 간에 이 문제 가지고 크게 쟁점이 없었어요. 다만 올해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설명해서 의혹을 해소했어야지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도 계속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김재원 위원님 발언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정은 국장님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김재원 위원 여쭙보겠는데 전년 대비 50억 9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이 안에 항목 별로 콘텐츠 제작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 대부분 다 디지털 콘텐츠를 위해서 뭘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동안에 이것들이 확산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태우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김재원 위원 태우는 비용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지금 이 50억 예산의 대부분이 광고 확산 비용으로……

○김재원 위원 태우는 비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태우는 비용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게 포털마다 다르고 SNS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인스타그램이 다르고 페이스북이 다르고 책정한 금액들이 다 다릅니다. 그게 작년에는 어떤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지 비교해 가지고 지금 증액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우선 디지털 소통 활성화 지원에서 25억이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확산에 대한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전체 12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5억을 증액해서 37억으로 제출했는데 이 12억 중에서 10억이 제작비고 2억을 광고비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작을 우선은 해내야 되는 건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10억을 제작비로 활용을 했고 2억을 광고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10억의 제작비면 저희 그라운드에서는 3배 정도의 광고비를 집행해야 제작비의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광고비 집행으로 노출이,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게 도달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 이 디지털 광고라는 것이 지금 제가 ‘태운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신

경을 써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떤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 안 됩니다. 일개 노래 하나, 싱글 한 달짜리도 지금 단순하게 인스타그램에만 홍보하는 것도 3억이 들어갑니다. 태우는 비용이요. 그걸 광고비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건데 광고비를 대폭 늘린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여기서 25억을 다 광고비로 해서 27억 전체를 디지털 소통에 대한 광고비로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온라인 프로모션에 대한 25억도 타깃별로의 콘텐츠를 1억 8000 정도 하고 전체 캠페인, 청년정책이다 그러면은 청년정책에 대한 캠페인이 5억에서 2억은 제작비, 3억은 광고비로 해서 그런 타깃별로의 정책에 대한 콘텐츠들 시리즈를, 캠페인을 한 4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 저출생 같은 중요한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같음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한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작년 예산소위를 봤더니 정책 홍보 및 분석 지원 등 해서 상임위 차원에서는 저희가 24년 대비 25년도 예산안은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그런데 본회의에서 정쟁으로 인해서 동결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부 차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요청하는 예산안을 다 증액을 해서 상임위에서는 잘 통과를 시켰던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대 의견들도 많으시지만 정책 실패의 원인은 소통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책 책임자들의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을 위해서 장차관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소통 교육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AI를 활용한 디지털 소통이 강화되고 있는 이 트렌드를 반영해서 국민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정부 차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 의견도 있으시지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번째,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역시 보류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박수현 잠깐만 김승수 위원님. 제가 발언권 충분히 다 드렸는데…… 지금까지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통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가만히 보면 여야 간에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여야가 바뀌면서 동시에 의심하고 그걸 방어하고,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긴장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양측이 서로 주장하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정부 측까지 시간을 지금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 정도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류해 놓고 별도 트랙을 통해서 조율해 본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각자의 의견들은 충분히 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3번, 4번도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 말씀만 하시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김승수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궁금한 점, 핵심적인 내용의 질문에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문체부 예산이 10% 늘었는데 소통실 예산은 25%가량, 2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한 100억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무려 절반, 50억이 디지털 소통 활성화에 늘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저는 궁금한 것이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콘텐츠 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협업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민간 플랫폼 협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버티컬 미디어 같은, 그러니까 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거나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저희 정책을 검색해서 보지 않는 정책 비관여자들이나 저관심자들도 저희 정책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예를 들어 저출생정책이면 임신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인플루언서들에게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서 출산정책에 대한 홍보를 그 해당 플랫폼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로 본인들의 고객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라는 식으로 저희가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100개 채널에 각 800만 원씩 준다는데 여러 개의 무수한 채널들 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고요.

보세요. 그리고 지금 유튜버들 중에서 이름 있는 분들이 진성호, 최욱 또 신혜식, 이동형, 전옥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하고도 협업을 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아니요, 저희는 정치 편향적인 유튜버들하고는 협업을……

○**김승수 위원** 정치 편향적인 건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저희가 정책을 홍보하면 사실 댓글에 정치 편향적으로 하나라는 것까지 다 달릴 수가 있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책만 홍보하기 위해서……

○**김승수 위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것이냐…… 결국 그러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나 인스타그램한테 그냥 800만 원씩 나눠 줘 가지고 친정부, 우호정부 그런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800만 원씩 나눠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를 지금 일반 영상은 95편, 기획 영상 10편 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제작할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제작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우선 인플루언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책이 정해지면 저희가 미리 그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정보를 얻어야 되는 인플루언서들을 검색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김승수 위원** 국장님 생각과 달리 실제 운영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게 저희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서 이제 이런저런 영상을 제작하겠다 그랬는데 기획 영상 같은 경우에 특히 일반 영상, 당연히 이런 이미지 콘텐츠 제작하면은 정책 홍보, 정부 잘한 거, 대통령이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그런 콘텐츠 만들겠지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저희가 주로 다루는 정책들은 부처 한 곳에서 다룰 수 없는 범정부 정책들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우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내년에 선거가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 제작하는 것만 하더라도 100편이 넘는데 이런 부분, 특히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영상들이 만들어져서 집중적으로 선거 이전에 배급이 돼 가지고 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 이 예산이 통과됐을 때 내년 6월 이전·이후, 상·하반기 정말 아주 정책적인,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객관적인 정부 정책을 알리는 그런 콘텐츠들이 제작이 돼 가지고, 그것도 보편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이 아니고 딱 적절한 시기에 아주 균등하게 나뉘어서 제작이 되고 방영됐다 그러면 그나마 저희가 그래도 잘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거 불편부당하고 정치적 색채가 없고 정말 국민 소통 면에서 효과적으로 했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확신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장관도 제대로 대통령실의 압박을 못 막는 그런 상황인데 국장이 막을 수 있겠어요?

○임오경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임오경 위원 디지털 여론 분석 및 지원 같은 걸 보게 되면 15년 박근혜 정부 때 정책 여론수렴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한 차례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맞습니다. 한 번도 업그레이드가 된 적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지금 국민들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어서 증액 요청을 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맞습니다. 저희가 17년인가 18년부터 계속 업그레이드 요청을 했는데 정부안에 한 번도 담겨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으로 급변이 되면서부터 여론수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족함을 정부에서도 받아 들여 주셔서 가지고 이번에 정부안에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정책 홍보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관련선거를 우려하나 작년 총선 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책 홍보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이루어졌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걸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임오경 위원** 그리고 24년 예산을 보게 되면 28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 예산을 보면 278억 원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보다 정책 광고 사업 수준이 오히려 적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임오경 위원** 또한 매체의 기능상 편향적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여지, 전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따라서 관련선거, 여론 호도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56개 부처 800명이 다 같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원하시면 저희가 검색한 로데이터도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게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우려, 염려가 위원님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책 홍보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삭감보다는 저희 2024년도 예산안에 비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요청하는 예산은 적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삭감까지 한다면 진짜 제대로 역할을 못 할 것 같고 또한 10년이 넘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해쳐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정부가 요청한 대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다고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류한 후 보류 심사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매체 활용 정책 홍보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디지털 여론분석 및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안 15억 500만 원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책 여론수렴 시스템이 2015년 구축된 이후에 한 차례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각 부처의 원활한 정책 소통 지원을 위해서 시스템 고도화가 절실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매체 활용 정책 홍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3페이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먼저 얘기가 나와서요.

○**소위원장 박수현** 이 부분 역시도 대동소이한 말씀들이시고 또 제안들이실 테니까요. 어차피 이번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은 전부 다 보류했으므로 역시 보류합니다.

그래서 3번 설명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4페이지 3번, 매체 활용 정책 홍보 추진을 위해 감액 의견은 수용 곤란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 정책 현안 등의 중요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알리는 정부광고 주무부처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책 광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출생 인식 개

선 그리고 APEC 정상회의, 광복80년 기념 사업, 디지털 성범죄 근절, 탄소중립 이런 주요 정책 광고라는 점을 다시 한번 오해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역시도 위원님들 의견이 비슷한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역시 보류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잠깐만요. 여기 예산이 2023년에는 얼마였지요, 2024년에는 얼마였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2년도에 278억, 23년도에 278억, 24년도에 28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원상회복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사실상 원상회복인데 이게 그렇게 논쟁이 돼야 되나요?

○소위원장 박수현 아니, 아직 논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류하고 보류 심사 때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면 듣는데 대개 논리가 비슷할 겁니다.

네 번째, 홍보 예산 이게 마지막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KTV 운영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5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증진, 국민의 정책정보 접근권 강화, 대국민 정책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대국민 영상 제작물 개방, 온라인 사회적 대화채널 운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역시도 보류하고 보류 심사 때 논의하겠습니다.

대체로 비슷한 의견일 거고 KTV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토론의 연장선상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보류 심사로 넘기고 보류 심사 시작 전에 별도 트랙으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앞서 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세요, 위원님.

○김승수 위원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15억이 증액됐는데 저희가 삭감을 요구하는 이유가, 일단 기존에 했던 온라인 여론분석 규모를 좀 더 확대하고 분석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일일 데이터 분석 건수를 기존 45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올리고 심지어는 유튜브 버들 4만에 대해서 머릿글, 기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유튜브 10만 명에 대한 전체 내용 또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는지를 AI로 다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영상이나 음성·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은 분석이 불가능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댓글이 사라진거나 또 정부에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내려진거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사용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

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비판 여론이나 댓글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전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재갈을 물리려는 그런, 굉장히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고요.

매체 활용 정책 홍보 같은 경우에 앞서 임오경 위원님께서 작년엔 감액이 없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작년엔 25억이 감액됐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증액시킨다는 것인데, 작년엔 감액했었는데 올해는 또 이것을 증액시킨다는 자체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임오경 위원 위원님, 우리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시켰다니깐요.

○김승수 위원 아니……

○임오경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시켰다니깐요.

○김승수 위원 상임위에서 25억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저희가 증액시킨 작년도 자료 여기 제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김승수 위원 아니, 작년도 검토보고서에 25억 삭감돼 있는데……

○임오경 위원 아니, 정쟁으로 인해서 동결되면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원만하게 얘기가 잘 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김승수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 검토보고에 지금 25억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임오경 위원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검토보고대로 의결했나요?

○김승수 위원 그렇지요. 이게 최종 의결서인데.

○임오경 위원 제가 작년 것 가지고 있어요.

○조계원 위원 그러면 왜 다르지요?

○김승수 위원 그리고 KTV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 저작권 보호라 그래 가지고 명칭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달아 뒀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보면 KTV에서 대통령의 국내 행보 또 국외 행보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무작위로 배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의 대한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무료로 저작권 부담 없이 배포해 가지고 퍼나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대착오적으로 거꾸로 가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삭감하자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이정은 소통관님!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민형배 위원 지금 온라인 여론분석 어느 수준까지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지금 현재는……

○민형배 위원 댓글 못 합니까? 댓글 안 해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댓글은 포털에 올라온 기사들의 댓글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민형배 위원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 소통·홍보 책임 부처가 문화부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댓글 분석을 안 한다고요? 지금까지 못 하는 거네, 안 하는 게

아니라?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기법도 안 되고.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민형배 위원 지금 댓글 분석 기법 어떤 것 활용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온라인 여론분석에서 굵어서 거기에 등록된 긍·부정……

○민형배 위원 굵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요. 크롤링을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긍·부정어 부합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혹시 다른 OECD 선진국의 온라인 디지털 소통 쪽 여론 분석하는 것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민간에 있을 때 기업에서……

○민형배 위원 우리 수준이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많이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민형배 위원 우리가 민간은 낮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 공공 영역은 특히 낮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긍정·부정 보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미 벌써 한 오륙 년 전부터 크롤링 기법이 고도화돼 가지고 지금은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는 물론이고 음성이나 영상까지 다 분석한다 말이에요.

혹시 국정원의 그런 것 하는 것 안 들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못 들어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보기에선 그런 정도 낮은 수준의 온라인 여론분석하는 것 가지고는 국정 제대로 못 합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선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그야말로 정상화를 하기에다 제가 보기에선 부족해요.

특히 온라인 여론 분석 AI 서비스 도입 이런 것은 분석하는 시스템만 구축하는 데도 15억 가지고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저는 걱정이 아주 많아요.

소통관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디지털 여론 분석 다 돼요? 온라인 여론 분석 다 되고 AI 서비스 도입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사실 저희가 지금 아쉬운 부분을 메꾸는 정도에서 15억 정도로 우선은 제출을 한 겁니다.

○민형배 위원 여보세요. 소통관님, 윤석열 전 정부의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이 분야를 특별하게 맡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아쉬운 정도로 안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전 정부 때 임명돼서 정부가 바뀌어서 아쉬운 정도로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래야 앞뒤가 맞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민형배 위원 스스로 특정 정부에 치우쳐 있는 것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근거해서 제안을 제대로 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야 이 예산이 정리가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사실 와서 처음부터 이쪽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싶었는데 올해 초에 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았을 때 우선 저희가 원하는 수준으로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15억 정도로 AI를 도입시키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렇게 결론을 받아서 이렇게 증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보기에선 충분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자세를 아쉬운 대로 정도로 하지 말고 조금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여론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통계 자료 기초가 얼마나 국정에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말씀드린 대로 소통실 관련 예산은 4건 모두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대의견에 대한 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91페이지, 92페이지지요?

○전문위원 김용규 예.

○소위원장 박수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부대의견 91쪽, 92쪽에 6건 돼 있고요. 정부에서는 1건만 일부 수용입니다.

64번, 대한체육회 민간경상보조 대상 사업의 집행체계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에 대한체육회에서 집행했던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 직접교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부로 전환한 사업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의견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직접교부 및 지자체 교부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결정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이 추가로 2개 있어서 제가 지금 제안해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의 부대의견……

○민형배 위원 오전에 지역 관광자원 개발 예산을 살폈고 제가 그때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고 또 더불어서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그간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제출해 주셨는데 역시 비슷해서 지금 나눠 드린 68번, 69번의 부대의견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균형을 고려한 예산편성·집행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하여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두 번째 69번은요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사업의 지역균형 고려 필요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사업 예산편성 시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소외

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정도의 부대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의 부대의견 제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요.

○조계원 위원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64번 부대의견이요. 단계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단계적으로’만……

○조계원 위원 지금 당장 안 돼서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 상황에서 사업에 따라서는 바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게끔 양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조계원 위원 어떤 사업들이 그런 거지요? 작년 465억 사업 집행된 게 지자체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연차적 사업이 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선영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교부하거나 문체부가 직접 집행했던 사업이 총 8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로 다시 전환해 드리면 되는데 지자체에 주었던 사업 중에 일부는 3년을 기한으로 하고 또 하나는 지방비 매칭을 해서 저희가 70% 그다음에 지방비 30% 해서 국비를 훨씬 더 많이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바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서 대한체육회랑도 협의해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대한체육회에서도 좋다고 한 상황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도 이것은 ‘단계적으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교부로 전환한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대한체육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되, 단 시기적으로 기한이 있는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그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어떻습니까?

차관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같은 의미이고요. 위원님, 그냥 저희를 믿고……

○임오경 위원 의미는 같은데 그 자구 하나가 큰 차이가 있어요.

○조계원 위원 조속히 이것을 강제적으로……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가능한 조속히……

○조계원 위원 ‘단’으로 해서 조건을 붙이세요, 그러면. 그게 나운데요. 단계적으로 한다 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돼 버리니까 시기적으로 연차가 있는 것 그다음에 매칭된 것에 한해서는 단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 보세요.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님, 저희들 믿고 맡겨 주시고요. 그러면 ‘단계적으로’를 빼고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조속히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간 내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루지 않고.

○소위원장 박수현 저렇게 하면 오히려 조계원 위원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요.

○조계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민형배 위원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수현 예, 말씀하세요.

○김승수 위원 차관님, 여기 자율계정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제가 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랬거든요.

○김승수 위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균특회계에서 자율계정이 안 가는 데는 잘사는 자치단체예요. 이걸 이 문맥대로 해석을 하면 잘사는 자치단체에도 예산편성·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균특회계 자율계정은 잘 아는 것처럼 낙후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별로 실링 한도액이 있고 거기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 건데 거꾸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율계정은 문체부가 개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지 않고요. 다만 여전히 지특회계의 지원계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문체부가 지원계정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기존의’도 필요가 없습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민형배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가 다 담긴 글인데 ‘자율계정 사업에서 소외됐던 지역에 대하여’를 넣으면 완전히 뒤바뀌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와 ‘자율계정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면 취지에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민형배 위원님 오셨으니까……

○민형배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민형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2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정부 측이 수용하였으므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차관 등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1차관

소관의 보류 사업 심사를 하는 동안에 지금 2차관 소관의 보류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류 사업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예산안 등의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된 사업에 대한 목록은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1차관 출석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 현재 27건의 보류 사업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 또 결정을 위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1차관 소관 사업들 같은 경우에—국가유산청 같은 경우에는 보류 사업이 거의 없고—어저께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보류 사업에 대한 정부 측의 수정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정부 측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들께서 동의하시면 바로 정리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추후에 다시 조금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27건이니깐요 속도감 있게 앞에서부터 차례로 쭉 순서대로 정부 측의 의견을 1건씩 이야기하고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연번 15번,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10억 원 감액 중에서 3억 원 감액으로 수용하고 김재원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정된 걸로 하겠습니다.

18번,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53억 3900만 원 중에서 2억 2000만 원 감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2000만 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 심사 시의 문제 제기에 대한 조치로서 운영비 10% 감액을 수용한 거고 김재원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정되었습니다.

19번, 예술창작활동 지원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것은 국립노벨문학센터 건립인데 어제 민형배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 3억 원을 전액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증액 3억, 이견 없으시지요?

결정되었습니다.

21번, K-Art 청년창작자 지원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K-Art 청년창작자 지원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안 유지 희망……

○김승수 위원 이것은 추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재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22번, 함께누리 지원은 추가 증액이 불필요해서 2억 2800만 원 현행 유지를 희망합니다.

○김승수 위원 조금 증액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기관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의 증액 요청이 있는데 증액을 받아들이시겠냐,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 의견을 받겠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정부 측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신뢰하고 이 부분은 유지로 결정하겠습니다.

25번,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은 20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유산청에서 이 20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액해도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마쳤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유산청 예산으로 다 같음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유산청 예산으로 가는데요 그 안의 운영비는 계속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유산청과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정연욱 위원 이 예산은 없어진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일단 프로그램 예산 20억을 문화유산청에서 증액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증액을 하지 않고 대신 문화유산청 예산을 보조사업비로 편성해서 그걸 공진원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결론적으로 여기서 감액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는 특별한 이견이……

○김승수 위원 20억 감액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감액하시면 됩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이게 유산청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더 토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20억 감액으로 결정합니다.

정부 측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39번, 국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거는 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국립도서관 39번하고 42번 관련해서 어제 소위 때 AI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유사한 부분도 있고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들이 있다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때 위원님들 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의원실에 방문해서 사업계획, 차별성 그리고 사실 AI 텍스트 데이터 구축 관련 예산 규모가 50억 인데 이거는 많지 않고—원문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들이 증액 제기한 부분이라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원실에 설명을 다 드렸다는 말씀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원실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예, 이견은 없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견이 없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김승수 의원님실에 설명을 드렸는데……

○김승수 위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 도서관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단년도에 다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50억이면 모든 디지털 원문 자원이 학습 데이터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닙니다. 이거 계속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첫째는 진짜 필요한 최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하고 연차사업으로 가야 훨씬 더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욕심을 부리다 보면 처음에 시행착오나 아니면 사전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못 해 가지고 불용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의원실에 설명하기 위해서 문체부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잘 살펴보았을 것으로,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았을 것으로 사료되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정리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에서 제대로 말이 지켜지는지, 예산이 집행되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 진행 단계에서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다음 45번, 국제방송 지원 이거는 해외지사 개수 1개 또는 2개로 어제 논란이 생겼는데 저희는 2개를 희망합니다라는 여기서 1개로 조정하시면 1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2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와 논쟁이 있는 것보다는 더 잘하자라는 차원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1개 또는 2개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다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문체부가 겸손하게 2개를 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하니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응원으로 이 문제는 문체부에서 애초에 올린 대로 2개소로 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정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미국과 유럽 두 곳으로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47번.

○김승수 위원 그런데 차관님, 저는 이 부분은 성과가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사람도 구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다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의 품격과 위상에 맞지 않게 이거를 1개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달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문체부의 가슴 속에 소수 의견으로, 소수 의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성과지표 잘 관리하면서 하시라는 뜻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7번, 미디어 홍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미디어 홍보는 순방프레스센터 13억하고 그다음에 국제 뉴스 분석 그다음에 SNS 분석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순방프레스센터 13억은 그대로 정부안을 유지하고 국제 뉴스 분석은 놔두고 SNS 분석 5억 원을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어떻게 감액한다고요?

○소위원장 박수현 5억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48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관계 부처 해외홍보관 운영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함께 한류 교류 및 확산 지원까지 설명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마이케이페스타는 5억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2억 감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한류 연관 산업 지원은 원안대로, 한류 교류 및 확산 지원은 2억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다음, 49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49번, 글로벌 K-존은 감액을 198억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80억 감액해 주시면 나머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잠시만요.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글로벌 K-존(신규) 이것과 그다음에 50번의 국제문화정책 지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김승수 위원님께서 저와 협의를 통해서 재보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별도 트랙으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제안을 주셨었는데 지금 기왕 정부가 글로벌 K-존(신규)에 관한 김승수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최대 90억, 그러나 좀 배려해 주신다면 80억 감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승수 위원님, 그러면 별도 협의 필요 없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80억 감액으로 결정을 해 주시지요.

○**김승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80억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의견드릴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원 위원** 지금 K-문화가 확산된 것은 대중문화의 힘이 큼니다. 그런데 대중문화는 사실상 큰 자본이 들어간 일들이었어요. 지금 2차적으로 우리가 K-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민간의 진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의 공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출해야 되는 기회들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생전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글로벌 K-존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내비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또 부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확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는 김재원 위원님의 반대 의견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실 때 김재원 위원님의 지금 확신에 찬 그런 반대 의견과 함께 그 반대 이유를 심사보고서에 소수 의견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민형배 위원** 기록만 하고 예산은 그대로 갑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 80억 감액한 것입니다.

○**진종오 위원** 저도 멘트를 좀……

제가 어제 차관님께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고 해외사무소 관리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렸었는데 설명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관님, 그거는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 주십시오, 저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왜 저희한테는 설명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 큰 결심으로 삭감에 수긍하신 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애기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님,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의원실에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설명 안 했습니다,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90억 삭감, 80억 삭감은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글로벌 K-존은, 작년에 파리 올림

픽 때 저희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K-존을 진행했습니다. 엄청난 관광객이, 관람객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서 진행하는……

여기 직접 가 보신 분 계세요? 안 가셨어요? 저는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줄이 엄청났습니다.

○**김재원 위원** 돈 내고 들어갑니다.

○**임오경 위원** 유료로 해도 줄을 서 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대기가 엄청났습니다. 저 또한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이 K-존을 보고, 코리아센터에서 했지만 진짜 이거는 저희가 더 확산을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자국민이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프랑스로 다 몰리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존은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야당 위원님 쪽에서 감액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감액 정도만 하시고 저는 이 사업은…… 이걸 신규 사업이지만 앞으로 K-컬처에 관련돼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조금 더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의 의견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90억 감액 의견을 냈지만 본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담아서 그나마 그래도 80억 원 감액으로 의견을 냈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수용을 해서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의 이 말씀은 허락해 주시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이 의지를 잘 담아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50번, 국제문화정책 지원,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신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거는 감액 70억 안이 있는데 우리 부 입장은 재단 협업형이라고 해서 기획형을 제외하고 나면 한 40억 정도 감액이 최대한 가능합니다. 이거를 좀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 사안도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진종오 위원님께는 진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중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표적으로 감액 의견을 함께 내 주셨는데요. 70억 감액인데 이 부분에서 20억 정도 감액을 하고 정부가 40억 정도 감액 여유를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 20억 정도 감액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40억을 한꺼번에 감액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사업에서는 2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20억 감액 여유는 일단 남겨 놓고 다음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20억 감액과 별개로 앞서 지적했던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꼭 챙겨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좀 편파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액을 요청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감액을 반대하는 위원님도 있는데 왜 감액을 요청하시는 위원님의 의견만 존중하십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 저는 정부 측의 최종 합의된 고심한 의견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니까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하실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보류 사업이고 심도 있게 논의는 해야 되지만…… 감액을 요청하시는 위원도 계시지만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을 하는 위원들의 얘기도 한 번 더 경청해 주시고……

○소위원장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라고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의 증액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52번, 종교문화 활동 지원인데요. 여기는 충북CBS 소년소녀합창단의 제14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 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 참가 등과 로드다큐 제작 이 부분에서 어제 회의를 할 때 특정 지역, 특정 방송사가 특정돼서는 곤란하다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충북CBS를 빼고 소년소녀합창단 유럽 대장정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어제 이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하신 김승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승수 위원 저는 그 지역예술단들, 각 시도나 지자체에 있는데 이번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지만 지역예술단의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을 다큐화하고 지원해주는, 그쪽에 인센티브나 사기를 상당히 북돋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거 이렇게 물꼬를 트면 이게 다 감당이 될까요? 곳곳에서 하는데……

○김승수 위원 1년에 한 개 정도 지역예술단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민형배 위원 한 100억 해 가지고 50군데쯤 해 주면 몰라도 이게……

○소위원장 박수현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니까, 이 문제는 정부 측도 심사숙고한 결과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하는 합창단 구성의 특수성과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가치 그다음에 14회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여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의 염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충북CBS를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빼고 다만 공모로 전환하여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냈고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이에 대한 수용 의견을 밝히셨으므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정해박해 200주년 기념 성지순례 거점화 사업에 대해서 문체부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냈었고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좀 더 듣고 하자는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거는 순례길 조성 사업이라서 여전히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순례길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정확히 확인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김재춘 예, 곡성군에 확인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은 별도로 의견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설명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러면 정해박해 200주년 기념 성지순례 거점화 사업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수용 곤란 정부 의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55번,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상관이 없는데 증액 사업이라서 할 수 없이 여기다가 감액 의견을 낸 것이라 수용 곤란한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측의 설명이 합당해 보이는데 대중문화교류위원회라고 생긴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다 보니까 좀 과민하게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 측의 설명대로 이 문제는 수용 곤란하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답을 안 하시고……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56번에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5번은 56번에 있으니까 56번으로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56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거는 올해 처음 굉장히 의욕을 갖고 새롭게 시도하는 위원회고 케이팝 확산에 너무 절실한 사업이라 국회 증액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 의견 있으셨지요?

○김승수 위원 일단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뚜렷한 기능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성과 목표가 좀 불분명할뿐더러 지금 세부사업 내역들을 보면 실제 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계없는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실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그런 규모로 조정해 주기를 저는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게 지금 4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자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차관님,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대통령 소속으로 이런 국정 관련 위원회가 생길 때 창립하는 해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보통 연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AI위원회는 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민형배 위원 또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국가바이오위원회가 40억가량 들어갔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그동안 대통령실 일을 두어 번 하면서 보면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결코 넉넉한 예산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정부에 이런 위원회 만들 때 막 올리면 국회에 가서 깎인다는 거 다 아는데 무리하게 했을 리도 없어요.

지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의견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줄이면 감내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여기서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는 55번, 56번 연계해서 재보류하고 별도 트랙으로 정리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잘 감안해서 재보류하고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민형배 위원 한번 봐 보세요, 그동안 위원회들이 처음에 생길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지를. 그래서 비교표를 딱 제시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 57번, 정부 의견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57번,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분야에서는 유사 사업이 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면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유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체부가 충분히 유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을 유념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원안대로……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100억 깎으시겠다고요?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 의견대로……

○조계원 위원 정부 의견대로 수용 곤란.

○민형배 위원 정부 의견대로요?

○조계원 위원 깎겠다는 게 아니고……

○민형배 위원 저는 이거 증액을 주장했었거든요. 제가 왜 증액해야 되는지를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정연욱 위원 서면으로 반영하시지요, 회의록에.

○민형배 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이걸 반영할 기회가 있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서면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요……

○민형배 위원 안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말씀하실 시간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민형배 위원 자료는 다 준비해 와서…… 제가 105억을 증액하자고 해 봤어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여러 부처 중에서 특히 이 콘텐츠 산업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AI 시대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과기부·고용부·교육부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콘텐츠 특화된 AI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잘 못하면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민형배 위원님의 열정과 의지가 대단하시므로, 그러나 이것을 반영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 원안대로 결정을 하되 이 부분과 관련한 민형배 위원님의 저 증액 요구 의지를 소수 의견으로 심사보고서에 기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내일 전체회의에서 이걸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지요. 그거는 가능하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8번, K-콘텐츠 펀드 출자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어제 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고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저희는 원래 희망하기를 50억 정도 모태펀드 감축하고 300억 300억 해서 상계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50억만 모태펀드를 감축하는 걸로, 감액하는……

○김승수 위원 앞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은 그대로 삭감 없이 현안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민형배 위원님께서서는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실 삭감하고자 했던 것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올해 증액된 것이 순수하게 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총액이 무려 214억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 비교해서는.

제가 왜 이 삭감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사실은 AI 콘텐츠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다만 지금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고 많은 분야에 AI 인재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킬 시설이나 강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발 과

정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투명성·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고가를 들인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 활용이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사후평가 시스템이 구축돼 있느냐.

과거에 디지털 인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면 삭감을 안 하겠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려 때문에 삭감 의견을 제기한 그런 부분이었던거ですよ.

어쨌거나 저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동의를 하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들, 일인당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자칫하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실제 목표 성과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58번, K-콘텐츠 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거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서 50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50억 원 감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어차피 K-콘텐츠 펀드 자체에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것은 집행률이 워낙 저조했고 그래서 이게 투자했으나 거의 잔여 자금으로 계속 남았던 게 조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민간자금은 거의 결합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곁돌았던 부분들이 지적이 돼 왔던 것이고 나름 새롭게 미래전략펀드를 만들어서 출시하는 건 저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K-컬처 분위기 자체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저는 지금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긍은 하되 올해는 분명히 K-콘텐츠 펀드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성과에 따른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자펀드, 모펀드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를 반영해서 운용수익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어차피 해를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매해 성과 없이 계속 이렇게 펀드 운용을 할 경우에 따르는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 운용이 되면 약간 방만한 운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해 연말 어떤 형태로든 입장 발표, 성과 발표를 하시고 그에 따른 분명한 대책을 내놓으시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 정부에서는 정연욱 위원님의 당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8번도 지금 정부에서 설명한 대로 모태펀드에서 50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좋습니다.

다음에 60번,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에 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콘텐츠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0번 사업의 보류사유에 기재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입법조사관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보류사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은 원안 유지, 대중음악 공연 환경개선 사업은 260억 원 증액 되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부대의견 명확히 할 필요’ 이렇게 보류사유를 조정을 하고요.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지금 보류사유에서 약간 기재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대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공연 환경개선 사업 및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 사업 전반의 운영·선정·집행 과정에서 민간 특혜를 방지하고 공정성, 정책 타당성 확보 등 공공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견 있습니까?

○정연욱 위원 감액을 하는지, 원안 유지인지 어떤 안…… 입장이 뭐예요?

○조계원 위원 감액이 몇 개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지난번에 논의 과정에서 감액은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증액 부분만 260억 진행하는 것으로 사실 결론을 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류사유에 그것들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기재하는 쪽으로 아까 저희가 입법조사관실과 먼저 말씀을 나눴고요. 그거를 여기에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시면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6번,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의견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거는 지난번 회의에서 89억, 44억 감액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는 44억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44억 감액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44억 5700만 원.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논의하는 대로……

○소위원장 박수현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44억을 감액하기로 했는데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합뉴스와 관련된 문제지요. 이 증액된 부분이, 정부 측도 사람에게 가는 예산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감액하지 말자 이런 것이지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 의견을 내신 이유를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

분에 대해서 20억 감액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공익적 책임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부대의견 내지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달아서 20억 감액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임오경 위원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 근데 오늘 원래 혁신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요?

○민형배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거는 연합뉴스가 당장……

○민형배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소위원장 박수현 연합뉴스가 오늘 이 자리에 혁신안을 내는 건 어려울 것이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 또 앞으로 책임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사이에서 존경하는 이기현·조계원 위원님께서 증액된 44억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계시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20억 삭감을 하고 사회적·공익적 책임을 다 하라는 의견을 다는 안을 내는데 우리 이기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기현 위원 위원장님의 고뇌, 고심 다 이해가 됩니다. 언론사이고 또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의 기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감을 괜히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 국감과 올해 국감에서 보여준 연합뉴스의 태도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사장 이후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증액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작년에 이미 삭감됐던 예산들을 거의 대부분 올렸고요. 또 이 기관이 민간기구의 형식이기 때문에, 민간 기구지요. 그래서 수지를 맞춰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이 전체 운영 예산의 17% 이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삭감한 예산이 전체 지원액의 한 20% 삭감한다고 보면, 20%도 안 되지요. 한 15% 될 텐데 그러면 전체에서 보면 미미한 퍼센티지입니다. 그게 17%에 반영되는 것이어서 저는 이 정도는 분명히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쉽지 않은데, 그냥 20억 하면 저는 메시지가 좀 불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체위가 구독료를 받아가는 연합뉴스 통신에 대해서 이 정도의 메시지는 발신해야 경영권의 정상화, 경영의 정상화 그리고 편집권의 독립 그리고 저희들에게 약속했던 여러 가지 경영 합리화 관련해서 저희들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20% 삭감을 주장을 했는데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도 많이 받았어요.

○민형배 위원 아마 이기현 위원님도 전화를 많이 받으셨고 위원장님은 전화를 더 많이 받으셨을 텐데……

○소위원장 박수현 아니요, 저는 딱 한 통 받았습니다.

○정연욱 위원 저희는 전화 안 받았는데요.

○민형배 위원 아니, 꺾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전화받으면 안 되지요.

○정연욱 위원 왜 우리는 무시합니까.

○민형배 위원 아니, 깎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감액이 없으니까 안 받으신 건데, 저는 어떤 사인도 없이 그냥 대충 뭉개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

○진종오 위원 그런데 하기로 했으니까, 충분히 하기로 얘기했잖아요.

○민형배 위원 그리고 이기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증액분은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보다 절반으로 낮추자 하시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은 100% 증액안을 유지해 줘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 똑같이 마음입니다. 제가 무슨 대변인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민형배 위원 대변인이시잖아요, 지금.

○소위원장 박수현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도 이것을 증액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증액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이나 민형배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생각하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으므로 상징적인 그런 조치들을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감액의 규모만 조금 다를 뿐인 것이지요. 그것은 100% 유지해야 된다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절충안을 제가 내는 것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 안을 3개로 만들든 2개로 만들든 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이게 뭐라고 또 전체회의까지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를 비공개로 국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가 아닌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국감을 치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국감도 공개적으로 하고 또 예산도 정부안에서 삭감도 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 또 이중적인 잣대가 되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공개 국감 그리고 예산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저도 이 의견을 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으로 저는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도 이기헌 위원이랑 같이 44억 5700만 원 감액안을 냈었고요. 또 정부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수용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지난 두 번의 국감을 통해서 연합뉴스의 경영에 심각한 편파성과 불공정성, 편집권 독립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연합뉴스의 사장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본인이 안동 출신이라면서…… 이 얘기까지는 하기 그렇지만 국회를 지금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문체부, 정부까지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양보한다? 이거는 아주 국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는 이번만큼은 연합뉴스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 편집권 독립을 확실하게 만들어 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국감을 비공개로 하던 것도……

○조계원 위원 국감도 당연히 이제는 공개 속에서 국회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 재보류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짜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왔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정인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기보다는 이게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 기존에 해왔던 역할 또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 심의가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번 국정감사에서 느꼈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그런 정도의 감액안이 경각심을 제고하면서 또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굳이 전체회의까지 갈 사안인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셨으니까 바로 결론을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기현 위원 한 30초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52억이었던 것이 전 정부에 의해서 300억이 깎여 나갔어요. 50억이 남았던 것을 저희가 250억으로 환원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350억으로 돌린 겁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딱 그만큼인데.

50억 가지고 운영하다가 250억 증액해 줬을 때 돌아왔던 특파원도 다시 나가고 비정규직도 다시 계약 재개하고 그래서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얘기했습니다. 50억 추가된 부분이 물가상승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예산에서도 하는 지원금이라는 게 결국 전체 예산에서 10여%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증액이 50억이 덜 돼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런 회사 아닙니다. 50억 남았을 때도 버틴 회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여러 의견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재안을 낸 저로서…… 이것이 수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표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재보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트랙에서 정부 측과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산업 금융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93번, 예술산업 금융 지원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부안 200억 유지를 희망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이 역시도 예술의 산업화 추진 사업과의 유사성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지요? 이에 대해서 정부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유사성도 있지만 근거 법률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 없이 하다 보면 집행 부진이 될 수 있다 해서 전액 삭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일정 부분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삭감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수요조사 관련해서 2024년도에 예술 용자 수요 예측 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근거해서 예술기업 수요를 시범조사를 했는데 매출 3억 원 이상, 5억 이상 예술기업 1만 1913개 중에 용자 희망 기업이 52%로 6226개가 용자를 희망했습니다.

이 부분을 추정 금액으로 했을 때 한 1조 원 이상의 용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최소한도로 일단 시범사업차 200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정부안을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민형배 위원** 시범사업이라는 말은 오늘 처음 하시는 거지요? 어제는 그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

○**민형배 위원** 잠깐만요. 시범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민형배 위원** 지금 수요가 1조인데 200억 가지고 어디다 가져다 붙이려고 그러세요?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냥 제 감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요가 이보다 훨씬 많을…… 그것은 현장에서 보면 금방 보이는 거니까.

○**조계원 위원** 차라리 레버리지로 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민형배 위원** 아니, 이게 용자라니까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요.

○**민형배 위원** 이게 직접 용자를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로 해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직접 용자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준비가 부족하고 유사성, 지원의 법적 근거 부족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감액을 주장하셨는데 제가 어제 자세히 생각해 봤는데 김승수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타당한 생각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200억 가지고 될 일입니까? 저는 왜 처음부터 이것을 200억으로 편성했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의견을 이 부분에 거의 처음 드리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증액은 못 하더라도, 김승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그래도 200억 원안대로 유지하되 그러나 김승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 정말 이렇게 하면서도 불안해요.

○임오경 위원 다 불안해요.

○소위원장 박수현 제 생각은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원안대로 결정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폭 증액 요구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점 때문에 200억 전액 감액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체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민형배 위원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 사업 설계가 아예 잘못됐고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스스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어제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답변하고 준비가 전혀 안 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또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받아들이고요. 대규모 증액 의견 또 200억 전액 삭감 의견도 잘 명심하면서 이 부분은 한번 잘해 보시라는 뜻으로 200억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데, 이 부분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대신 세부사업명에 아예 예술산업 금융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하시지요. 그것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민형배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괜찮아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한 대안 잘 세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정부안에 일단 동의해 줘니다마는, 이렇게 우려했던 부분이 오늘 2차관 소관 심의에도 있었습니다.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이것은 벌써 수년 동안 해 왔던 건데 올해 예상되는 집행률이 40%를 못 넘고 있어요. 수년 동안 해 왔던 사업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사실은 체육산업 분야보다 예술산업 쪽이 규모가 영세하고 수입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실제 융자를 할 때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맞추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집행률 또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과 김승수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95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95번,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운영인데 이기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45억 전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8번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문화예술 향유 지원인데 통합문화이용권은 너무 절실한 사업이고 여태까지 감액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대상 사업이라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역시 청년들에게 좋은 예술 경험을 시켜서 평생 가도록 하자는 취지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19세, 20세 중복해서 가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도화하면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견 있으십니까?

○**진중오 위원** 위원장님, 저는 차관님 말씀처럼 부대의견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처럼 전년도에 19살이었던 사람이 이번 연도에 와서 또 중복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령층을 19세에서 20세로 딱 정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담당 문화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문화예술패스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5년도에 이미 지원받은 2006년생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2007년생이나 지원을 못 받은 2006년생에게 우선적인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명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도 진중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19세, 20세인데 혹시 좀 더 폭을 넓히거나 유연하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이 혜택이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기를 저는 요구하고요.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항상 2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고 사실은 100억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불용이 나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삭감하자는 거고.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어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불용의 지속적 발생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이 예측된 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제도의 개선점이나 이런 것을 진중오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시되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은 불용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부 측에서 40억 삭감 의견을 냈을 때 20억 원만 삭감하고 20억은 약간 여유로 남겨 둔 부분이 있어요, 총액 개념으로 볼 때. 그래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집행률이 아무리 노력해도 90% 정도 된다고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어차피 또 불용액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의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그냥 제 안으로 아까 얘기했던 20억을 이 부분에서 삭감하면 애초에 문체부에서 삭감하기로 했던 총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어차피 발생할 불용액 부분에서 일부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20억 삭감을 사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님 말씀 들어 보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대상인 차상위계층, 26년에 8만 명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입니다.

○임오경 위원 금액은 14만 원에서 1만 원 증가한다고 하셨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24년 기준 집행률이 몇 % 나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90.8% 나왔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왜 자꾸 저조하다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사실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요, 집행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예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높지만 사실 집행률은 90.8%로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집행률이 90.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 봤을 때 노령층 수요를 감안한다면 낚시·바둑 사용처 추가, 교부지 대상 복지, 우편 서비스 이런 것만 좀 더 추가해서 국립예술단체 초청공연 등을 제공한다면 집행률이 지금 90.8%인데 훨씬 더 오를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예.

○임오경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문화 제공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제 말씀하신 것에 청년기본법의 정의에서 19세, 20세 이것도 20~24세가 가장 높은 퍼센티지가 나왔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다음 연도에는 이 연령층을 좀 더 확대하자. 저는 이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어제 그러면 금액을 증액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저조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24년도 90.8%의 집행률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잠시만요.

이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는 24년에 90.8%인 것을 저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다만 어제 보고했을 때 이것이 100%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불용액이 일정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이라고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집행률이 아예 저조하더라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원안 유지……

○**소위원장 박수현**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 이정미** 그래서 집행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특히 자발적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에 대한 집행률을 제고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이용 가능한 전화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전시나 공연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재원 위원** 제가 알기로 주변에 물어봐도 사실은 이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인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용률이 낮다거나 그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책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불용액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액을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정책 홍보에 활용하시는 게 더 맞는 거라고 봅니다. 주변에 많이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98번 재보류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 문화예술패스 모두 다 재보류라는 뜻입니다.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99번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99번, 증액 35억 중 24억 증액을 수용합니다. 의원실 협의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원실 협의를 마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24억 증액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냥 의원실 협의 마쳤다고 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용신** 예술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청하신 부분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위한 부분하고 기초지자체 통합 부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기초지자체 통합 부분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예술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시스템하고의 통합을 전제로 해서 정보화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3억으로 하고 나머지 시스템 고도화, 정산 자동화 AI 구축, 클라우드 그다음에 정보화 전략계획 두 부분은 21억을 반영한 부분하고 전략계획 수립 3억하고 해서 24억 증액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보류 심사자료 어디에도 99번에 24억 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류사유에 문체부 일부 수용 3억 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숫자가 뭐가 잘 맞지를 않아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예술편제관 이용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기초재단 활용 확대에 13억 9000만 원하고 정산 자동화 AI 구축 20억 그다음에 클라우드 1억 100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중에 기초재단 활용 13억 9000만 원은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통합 연구용역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고 정산 자동화 AI 구축 20억하고 클라우드 구축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통합하라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하는 데 추가로 3억 연구용역비 반영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과 저의 뜻은 뭐였냐 하면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를 얘기했었던 거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줬고 정리를 해서 원래는 일부 수용해서 3억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다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아듣고—조은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고—이 부분에 대해서 35억 원까지는 필요 없으나 24억 1000만 원으로 수용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김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절차가 보면 뒤죽박죽이네요. 고도화, 정보화 전략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반영된다고 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집행 안 돼요.

지자체하고 전부 다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편제관 이용신 지역문화재단하고는 협의를 거쳐서 통합, 그러니까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광역만 돼 있는 16개……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직접적으로,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지자체하고 일언반구 이런 계획에 대해서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여기서, 또 정보화 전략계획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돼 있고 먼저 덜컥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올려 놓고 받아들여지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편제관 이용신 그래서 통합 부분은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승수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더 감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증액을 요구하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소통한 결과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 결과 합의된 증액이 24억 10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증액하겠다고 하는 이 안에 대해서 정부의 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1번 광역권 개발 사업, 관광자원 기반 조성 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3개 남았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이견 2차관……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지요.

○이기현 위원 끝나기 전에 한말씀만……

○소위원장 박수현 예.

○이기현 위원 지난번 국감 때 저희가 현장 국감을 갔습니다. 그때 아마 차관님들 거기까지 가지는 않으셨는데 저희가 인천에 있는 역사적인 전등사, 내리교회 그리고 성당에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내리교회 관련해서 지금 복원, 내리교회가 140년 된 첫 개신교 교회인 것도 있지만 더 역사적인 것은 우리나라 이민의 첫 문화, 하와이 이민의 출발지였던 것을 저도 새롭게 알게 돼서 굉장히 놀랐는데 저희가 700만 해외동포 사회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은 동포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지가 내리교회라고 하는 것에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140년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0억 올렸는데 그때 지방재정의 매칭 준비가 전혀 안 됐고 지방정부가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듣고 그냥 넘어갔는데, 워낙 많은 사찰들하고 시설들이 있어서 넘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종교시설에 대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국 이민 사회에서, 지금 700만 해외동포들이 해외에 살고 있는데 그 출발지였던 하와이 첫 이민선이 떠나는 그리고 이민선에 탔던 사람들의 반이 내리교회 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견 단순히 종교시설이 아니라 한국이 갖고 있는 이민 사회의 첫 시작점이었다는 역사적 의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차관계서 지방에서 아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어떻게 되더라도 조금 더 준비가 된다고 하면 항목을 바꿔서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 한테요.

○임오경 위원 부대의견 하나만 요청……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지요.

○조계원 위원 답변부터 듣고 하시지요, 답변을 요청했는데.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수용을 해서 이기현 위원님 말씀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예산 규모와 사업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보류 사업 말씀하실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정연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욱 위원 저도 어제 1차관 소관 업무 중에 언론기금 기금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수용이라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언론진흥기금의 운영이 아니라 진흥기금의 기금관리비기 때문에, 그 운영비라는 게 전체 예산이 1.5억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50%를 삭감하는 걸로 돼서, 물론 양문석 위원님 의견 제시한 걸 저도 심분 이해를 하지만 이게 작년 예산이 1.6억 정도인데 일반수용비가 1.4억이고 대부분이 사례비, 인쇄비 이런 실비 중심이어

서 실제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도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사용이 과연 적절했느냐 문제보다도, 그런 문제는 거의 제기된 게 없어서 아예 50%가 삭감이 돼 버리면, 7900 자체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 예산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라서 이거는 그대로 가도 이 취지는 아마 충분히 반영이 될 테니까…… 만약에 언론기금의 운영이, 기금이 배분되는 과정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수급은 하나 운영비를 1.5억에서 50% 날려 버리면 전체 운영 자체가 안 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건 원상복구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차관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아까 말씀에는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하신 것이고, 지금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 언론기금 기금관리비의 문제 양문석 위원님께서 7600만 원 감액안을 내셨는데 전체 26년도 1억 5200만 원 중에 절반을 감액하셨는데요. 이게 정부가 애초에 수용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이거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양문석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해서 수용을 했던 건데 이 수용한 거를 여기서 번복을 하게 되면 혹시 다른 것들도 또 이렇게 번복이 될까 걱정이 되는 면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 7600만 원 삭감한 것 예산안의 절반인데 큰 예산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의 절반을 삭감한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정연욱 위원님의 의견 또 정부 측에서 논의를 해 달라는 의견 나왔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의견이 없으시면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 말씀대로……

○임오경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박수현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어제 정부에서 말할 때 운영비 반값을 받겠다고 해서 제가 어제 빅카인즈 그 5억을 감액한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어떤 걸 5억 감액……

○임오경 위원 빅카인즈, 50%를 삭감하라는 거에서 정부가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운영비 반값을 받겠다고 하고 5억 감액하는 걸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언론진흥재단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어저께 빅카인즈에 대해서 원래 15억 감액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억만 감액하는 걸로 했던 거는 이 기금관리비를 저희들이 감액 수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양문석 위원님은 언론재단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50% 감액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이게 다 포함이 같은 선상에서 되는 거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빅카인즈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데요, 두 가지는 별개 사업인데 양문석 의원실에서 두 가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가 됐었던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해 줘야지.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 정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별개 아닙니까?

○진종오 위원 별개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지요?

○임오경 위원 양문석 위원님이 2개를 올리셨단……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 알겠는데 내용이 별개라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가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수현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먼저 2개 중에서 어제 5억 감액한 것은 감액이 된 것이고 오늘 별도로 7600만 원 감액한 것을……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된 건가요, 5억 감액?

○진종오 위원 160쪽, 109번입니다.

○임오경 위원 5억 감액된 겁니까? 15억을 감액하라고 했는데 5억……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빅카인즈는 어제 5억 감액한 걸로 일단 의결이 됐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건 어제 5억 감액 의결한 것이고……

○진종오 위원 그건 된 거고.

저도 같은 내용이라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이게 운영비인 거잖아요. 운영비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를 반 이상 깎아 버린다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좋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지금 정부 측의 설명도 언론진흥재단의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양문석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삭감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5억은 삭감한 대로 의결이 됐지만 이 부분은 들여다봐도 1억 5200인데 운영과 관련된 문제여서 삭감이 되면 곤란하겠단, 이걸 좀 복원하자 이런 취지의 제안이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말씀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원래대로 삭감 없이 복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하더라도 5억 삭감을 통해서 양문석 위원님의 상징적인 조치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걸 그냥 복원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계원 위원 그러면 수용 거부를 하자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용 곤란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7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

○소위원장 박수현 예,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임오경 위원** 차관님, 한국영화성평등센터의 운영업체 변경되면서 피해자 지원의 공백과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정책 지원 공정환경 조성사업, 한국영화 성평등 분야 운영 1261-302와 관련해서 부대의견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도 수용 의견을 밝힌 부분이라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영화 성평등 분야 운영을 산업종사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동의합니다, 위원님.

○**조계원 위원** 이거 알고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오경 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도 동의,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관 소관에 대한 보류 사업 심사가 끝났고요. 재보류 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차관님과 지금 현재 여야의 간사격으로 논의를 해 왔던 김승수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께서도 잠시 밖에 나가셔서 이 5개 재보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정부 측하고 재보류 사업에 대해서 조율해 가지고 오십시오.

유산청 들어오세요.

그러면 국가유산청에 대한 보류 사업 재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님이 오셨으니깐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류됐던 사업에 대한 재심사 진행은 어떻게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양해해 주신다면 문체부1차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유산청에서 설명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건에 대해서 차례로 국가유산청이 검토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200억 증액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동 사업은 3년 동안 270억이었던 사업이 180억으로 줄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4개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4개 사업은 꼭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 90억은 편성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으로 90억 예산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 문제가 애초에 200억 증액을 요구한 것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런데 그중에서 90억 증액을 최종 의견으로 내시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진종오 위원** 김승수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께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건가요?

○진종오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넘어가시지요. 일단 그렇게 의견을 하시고요.

두 번째, 연번 4번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2쪽입니다.

남북유산 교류협력을 위해 13억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13억 증액 사업은 다 우리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도 현지에서 발굴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발굴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고요. 남북유산 자료관도 강화도에 새로 설립된 수도권문화유산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강산 구역 문화유산 포럼도 조계종과 함께 국내에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런 사업들이 다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3억 전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다음, 6번.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다음에 3쪽입니다.

중국 문화공정 대응을 위한 8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어제 과연 중국에서 문화공정 연구조사나 이런 현지조사가 가능한지 의견을 주셨는데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조선족 무형유산 전승자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조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공정 현황 조사 2억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아울러서 문화공정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팩트체크 콘텐츠 구축, 가짜뉴스 모니터링, 그 밖에 국제포럼도 개최할 예정인데 이런 사업들은 다 실행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8억 전액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다음에 북한 전자문화지도 구축 3억의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2022, 2023년도에도 북한 내 문화유적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내나 국외에 산재한 북한지역 관련되는 지도나 지리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탑재하면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증액을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오경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자 자부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 없이도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 표현을 삭제하는 걸 전제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다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다음에 세계유산위원회……

○진종오 위원 잠시만요. 이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실로.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굳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5쪽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중 북한 미술·포스터 전시회 3억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제 의견을 드렸습시다마는 세계유산과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유산위원회와 연계한 전시가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개성 만월대 관련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기초로 해서 이런 전시회를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증액 규모는 3억 원 그대로 수용하되 전시 주제를 북한 미술·포스터 전시회가 아닌 북한 소재 세계유산과 관련된 전시회로 수정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다음에 6쪽입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구서울역사 관련 문체부와 협의한 유산청 입장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서울역사 프로그램 운영비가 국가유산청에도 요구가 돼 있고 문체부 사업에도 중복해서 제기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체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관 회계를 국가유산청 세부사업 유산관리 1231-302에 반영하기로 협의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7억 5000 증액으로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미 반영된 2억 원이 안전진단 용역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용역 부분을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로만 7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7쪽입니다.

국가유산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3억 93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할 경우에는 국민 불편, 민원 제기가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용 중에, 사실은 국유유산이나 역사문화 자원 등 유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이 안 돼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 45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얼마나 감액한다고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4500만 원 감액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마지막 8쪽입니다.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 113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국가유산을 디지털 정보화시켜서 나중에 멸실에 대비해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423건 중에 한 61%인 3317건이 이미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 빨리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두 분이 특별하게 낸 감액 의견을 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볼까요?

기존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사업은 김승수 위원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거니까 잠깐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 이 부분의 13억 원 증액 그대로 수용하자는 의견인데 저하고 조계원 위원님이 내신 증액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지적이 됐던 것을 대체로 국내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쪽 진행이 됐잖아요. 추가 의견 없으시면 그냥 바로 다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재원 위원님은 본인 것만 이견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그것만 듣고.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니까 차례로 해서……

○진종오 위원 다 얘기하시면 이제 힘드실까 봐.

○소위원장 박수현 아닙니다. 일단 정리할게요.

그래서 4번,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 이 문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중국 내 우리 문화유산 지정 목록화 현지조사 이 문제도 수용 의견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결정해도 이상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름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중 북한 소재 세계유산 관련 개최로.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북한 전자문화지도 구축을 위해 임오경 위원님의 3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자부담 3000만 원만 삭제하고 수용하는 일부 수용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임오경 위원님이 계시지 않지만 결정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결정하되 임오경 위원님께서 이따가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고 동의를 안 하시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이 문제도 역시 전시 주제만 변경하고 증액 규모는 수용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도 일단 결정을 하고 이따 임오경 위원님이 자리하시면 최종 의견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10번, 근현대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문체부1차관 소관 심사 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정부가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아까 확인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계원 위원 안전진단 용역 빼고.

○소위원장 박수현 그다음에 27번과 28번에 대해서는 김재원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문체부의 같은 사업, 같은 내용들과 동일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서로는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감액 의견을 굉장히 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므로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문체부 의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또 아까 문체부1차관님한테도 같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카르텔이나 결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박사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막아내고 또페이백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1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의 말씀은 12월 말까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할 게 있으면 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 있으면 대책 마련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넘어가자 이런 미봉책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설명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김재원 위원님의 말씀 잘 반영하고 정부 측에서 의견을 이야기한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27번과 28번 건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까 임오경 위원님 안 계신 동안에, 위원님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임오경 위원 설명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 결정하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 듣고자 했으니 말씀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가 1페이지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보급과 관련한 김승수 위원님의 의견만 듣고 조율하면 국가유산청의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는 마치게 되는데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안 계시는 동안에 저희가 유산청의 설명을 들었지만 오셨으니깐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동 사업은 당초 3개년 270억의 예산으로 할 사업이었는데 90억이 감액돼서 180억만 3년 동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하기로 했지만 구축하지 못했던 4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 4개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90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으로 해서 내년도 200억 중에 90억을 반영하는 정부 측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승수 위원 이건 제가 감액 요구한 건 아니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감액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증액에 대해서 그 정도로 얘기하니까 수용은 하는데 어쨌거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는 사실은 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 4번하고 6번하고 삭감을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아시겠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박수현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시는데 아까 유산청은 다 국내 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2쪽에 있는 13억 증액 사업들은 내년에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을 왜 우리가 수립하나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동안 남북이 2018년도까지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승수 위원 그런데 어제든 이야기했지만서도 북한은 마음대로 개성공단 폐쇄하고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도 그냥 폭파시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북한은 지금 유화책이나 이런 자세 전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을 왜 수립하느냐는 거지요. 이건 또 유엔 대북 제재에도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조계원 위원 위배 안 되잖아요.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건 문화교류고 문화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 지금 누가 이걸 제안한 거예요, 원천적으로? 왜 뜬금없이 지금 미사일 쏘고 핵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지만……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위원님, 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발굴한 자료들은 국내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북한 쪽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사업들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만월대 정비계획을 왜 우리 정부의 돈으로 수립해서 주느냐 이거지요. 이것 미친 짓이라 안 그러겠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만월대 공동 발굴할 때 구역을 나눠서……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어차피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까? 아무리 3억이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이것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러지요. 지금 북한은 핵 만들고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북한에 있는 문화재를 정비하기 위한 데에 돈을 쓴다? 이것 지금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저희가 사실은 남북……

○김승수 위원 이게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누구 아이디어예요?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저희가 원래 내년도 정부안으로 신청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게? 애초에 정부의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저희 과에서 정리해서 내놓은 안인데요. 말씀하신……

○**김승수 위원** 이거 한번 외부로 보도자료 내 가지고 이 시기에 지금 북한은 일절 남북관계를 위해서 미동도 없는데 우리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한다…… 제가 자료로 한번 내 볼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예, 그렇기는 하지만 유산 자체가 북한에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김승수 위원**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나 그거지요.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그래서 이제 위원님……

○**소위원장 박수현** 제가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 우선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2007년부터 18년까지 총 여덟차례 했지요?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만월대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3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그동안에 어쨌든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죽 이런 성과들을 축적해 왔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이 사업이 공동으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멈춰진 상태라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존에 자료를 축적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비할 것인가 이런 데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승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것을 기반으로 만월대의 정비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들여서 자료를 축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좋은 자료로 보관하고 향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관·보존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김승수 위원님께서 이러한 지적을 안 하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가 딱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진척도 안 되는데 그것을 북한에 가서 실제 정비를 하려고 세우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 아니시겠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저희가 올해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은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과정에서 검출된 건축물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적뿐만이 아니라 유물도 많이 출토가 됐고—고려청자라든가 기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출토됐기 때문에—저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사업들은 건축의 외관이 어떻게 되느냐를 정리해 왔던 거고요.

그것과 출토된 유물의 관계를 통해서 정비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지 지금 저희가 만약에 보수정비 사업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사를 해서 어떤 것을 복원하고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여기 지금 유산청에서 준 자료에 정비·복원을 위한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정비는 최종적으로 북한 현지에서 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기초적인……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예산 세세내역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그동안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북한 현지에서 정비·복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금강산 구역 중요 유산 분포지도 제작을 해 가지고 북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 지금 금강산 관광도 중단된 지가 엄청나게 됐고 그 시설들 다 철거되거나 북한이 다 가져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마구 짓밟고 때려도 우리는 그냥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수현** 이기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 보면 저희가 극복하지 못했던 많은 과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분단의 문제였고 그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7·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고 그런 정치적 선언 이후에도 각종 교류·협력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만월대 사업은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돼서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그게 개성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 않았고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워낙, 개성이 고려 500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돼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평화로웠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발굴조사 사업이 50%를 넘어서 60%까지 진행됐었지만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거대한, 어떻게 보면 분단은 됐지만 민족 공동의 유물 발굴 프로젝트들이 지금은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특히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이제는 2개의 국가로 존재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교류 사업들을 일정한 선에서는 정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해 놓고 끝을 못 본 것이어서 남북관계와 교류가 또 언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처의 차근한 준비는 개념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개념하에서 유산청이 이 업무를 진행하고 이런 표현들을 써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보여 주셨듯이 교류·협력에 대비하여 이전에 추진해 왔던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적은 예산이고 또 전체 큰 그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런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어떻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그동안 남북 간 평화로웠던 시기에 교류·협력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만월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었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가 진행됐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야지 다음 단계의 준비가 가능하겠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조계원 위원 그것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지요. 앞으로 남북이 계속해서 대치 상태로 갈 건 아니잖아요. 또 평화롭게 협력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가 올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을 대비할 필요도 있고.

또 기존에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유산이라는 게 남한 것 따로 있고 북한 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조사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준비해야지요. 기존에 했던 예산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유산청이 이런 질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대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산청 뭐 하는 데예요? 국가유산 국제 교류·협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2개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얘기와 그다음에 우리는 한 나라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서로 간에 부딪치고 있는데 그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본인들이 유리할 때 진영과 상관없이 2개의 국가와 하나의 국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성 만월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의 유적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유산청 뭐 하는 데예요? 유산청,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데입니까? 지금 국제 교류화하시는 것 때문에 학술조사하신 것…… 학술조사 하신 겁니까,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신 겁니까? 북한과 나뉘게 된 것은 최근 근현대의 얘기예요. 고려 우리 역사 아닙니까? 신라는 우리 역사가 아니었어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맞습니다. 우리 역사입니다.

○김재원 위원 만주는요? 우리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정치 논리가 끼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면 왜 유산청이 입을 닫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지요? 유산청은 그러시면 안 돼요.

○소위원장 박수현 유산청,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우선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당장 무엇인가 할 것 같은, 실행할 것 같은, 예를 들면 실시설계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지적을 하시지요.

그러나 공동 발굴조사 자료가 있을 텐데 이 자료를 조금 더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 정리를 확장하는 개념 정도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서 저는 정비·복원을 위한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저도, 정말 우리로 봤을 때는 공격하기 좋은 소재예요. 그런데 어쨌든 좋은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박수현 위원장이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1번하고 4번 이 부분은 좀 저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예산은 삭제하고 나머지 남쪽 지역은 그대로 살려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문화공정은 어쨌든 실현 가능성의 문제지만 해야 되는 사업들이예요.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주변국들, 일본 외에 다른 나라도 역사·문화유적을 왜곡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북아역사재단 있는데, 사실은 동북아역사재단 그리고 민간 외교 사절 역할 진짜 오랫동안 하고 있는 반크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지금 반크도 계속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해 주면 좋지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저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포럼 개최하고 이런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번하고 4번하고만 삭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조계원 위원 삭제보다는 사업의 이름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수현 제가 의견을 내다가 말았으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서는 1번과 4번을 아예 삭제하자는 취지로 제가 이해했고요. 다만 이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무엇을 할 것 같은 실시설계 계획 같은 정비계획 수립 이것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명 마지막에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굴조사 완료 후 축적된 또는 집적된 자료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작업 거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예산집행의 내역이. 우선 제 제안이니까, 어떤 것을 바로 실행할 것 같은 사업 내용이나 이름은 안 된다고 하는 김승수 위원님의 뜻을 수용하자는 뜻이고요.

4번 금강산 중요유산 분포지도 제작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거기에서 금강산 구역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이해도, 왜 남북한 주민들이라고 넣습니까? 이것을 잘해서, 우리 국민도 금강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강산 구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수정하면 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박수현 어쨌든 제가 내는 조정안은 그렇습니다.

1번에 대해서는 김승수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정비·복원을 위한 기본정비계획 수립’ 이것은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발굴조사에서 모았던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을 우리 차원에서 잘 관리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한 작업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해서 이름하고 사업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북한 주민들의 이해’ 이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게 하는

사업이고, 금강산 구역 중요유산 분포지도는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1번 제목을 ‘개성 만월대 역사성 공간가치 연구계획’……

○**김승수 위원** 1번은 그냥 삭제하라니까. 2번 있잖아요.

○**조계원 위원** 한번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말씀해 보세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1번 제목을 ‘개성 만월대 역사성 공간가치 연구계획’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가치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연구계획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공동발굴조사를 통해서 축적된 발굴조사 성과를 사장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우리 차원에서,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 돈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작업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작업으로 사업 내용을 기획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바꾸면 이해를하실 수 있겠는가를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중재안을 내는 거니까.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삭제하지 왜 자꾸 그렇게 없는 사업을 만들어 내려고 그래요. 2번에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발굴조사한 여러 자료들을 수도권 문화유산센터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집적해서 서비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진종오 위원** 빠시지요.

○**조계원 위원** 그러지 말고 그러면 1번 사업 명칭을 아예 배제하고 남북유산 자료관으로 5억을 주시지요.

○**김승수 위원** 불필요한 예산을 왜 거기다 끼워 넣느냐 그런 거지요. 이게 정부안을 가지고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조계원 위원** 아니요, 사업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1번에 들어가 있는 사업 내용이. 사업 내용까지 잘못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이……

○**김승수 위원** 1번의 사업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임오경 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참여를 못 했었는데, 기존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지금 60%를 완료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완전히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2007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해 왔던 지속사업에서 중간에 스톱이 됐으니 조금만 더 연구를 하게 되면, 공동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축적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목을 바꿔서 라도……

○**진종오 위원** 그러면 19년부터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 시국에서 남북관계가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멈춰 놔도 상관없다라는 거지요. 할 거였으면 계속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멈춰 있었잖아요. 멈춰 있다 다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거고.

○소위원장 박수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취지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공동 발굴조사한 자료가 잘 보존되고 그런 준비가 잘되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발굴한 자료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를 즉 발간해 왔습니다만 그때 발굴하면서 나온 유물이 약 1만 8000점 정도 되는데 그걸 보고서에 다 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형태는 발굴보고서의 PDF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들을 집적해서 좀 더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가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인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이걸 꼭 진행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을 대비해서 준비 차원에서……

○진종오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기현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못 한 측면은 있는데……

○진종오 위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이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면 19년, 20년, 21년 다 했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19년도부터는 저희가 발굴조사는 못 해 왔었고요.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왜 못 했는데요?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당시에 북한 측하고 합의를 못 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지금은 합의가 됐어요?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진종오 위원 대비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말자라는 거지요.

○국가유산청국외유산협력과장 박형빈 그래서 19년, 20년 발굴조사를 못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21년부터는 발굴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승수 위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몇십 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시간이 아까운데 개성공단 일방적으로 폐쇄한 데 대해서,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서 손해배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한마디 사과라도 했습니까?

○진종오 위원 안 했지요.

○김승수 위원 그런데도 이따위 발상이 나와요!

○임오경 위원 위원님,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계원 위원 우리의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북한에 있는 만월대…… 관계가 좋고 그러면 누가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임오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쟁을 유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 김승수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왜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먹이지 말고……
- 김승수 위원 감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 임오경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듣고 이거를 추진……
- 진종오 위원 윤석열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였지요. 지금 남북의 관계가 어떠냐고 물어봤던 거고, 지금 윤석열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부에서 관계를 더 악화시키면서 전쟁까지 유도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 진종오 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잖아요.
- 임오경 위원 또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민주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폭파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 조계원 위원 위원님, 기존에 축적된 연구 성과를 정리하자 이거 아니에요.
-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하는 건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 주시냐고.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해야 되는 그거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자꾸 저희 위원들에게 감정적인 걸……
- 조계원 위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중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 진종오 위원 문화유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만 왜 지금 이런 시국에 하려고 하냐는 거지요.
- 이기현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나쁜 소리를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조계원 위원 멈춘 시계를 제대로, 나중에 평화의 시계가 돌아갈 때까지 준비하자 이거 아니에요.
- 이기현 위원 남북관계가 18년도, 19년도에 하노이 노딜 이후 아주 안 좋아졌지요. 인정합니다. 개성공단 폭파한 것도 북한 쪽이 절대 잘못된 일이고 저희가 책임을 도덕적으로 묻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우리하고 적대적 국가가 돼 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남북관계가 안 좋았던 지난 3년을 다시 한번 극복해 보자고 관계 개선, 북한이 어떤 태도를 갖더라도 관계 개선을 가져가려고 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 입장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산청이 그것과 관련돼서 중단되었던 사업 중에 이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일 때 그래도, 우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대화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는 해 놓자라는 게 기본 기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니지만, 문이 열려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대한 대비를 잘하는 것이 그 시간을 더욱더 늘려 나갈 수 있다라는 역사적 경험을 저희가 최근에 단기간 내에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산청이 양보해서 수정을 하시고 저는 문화재를 관리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긴 시간 동안 투자했던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개선했을 때 소프트하게 스포츠, 문화 그리고 문화의 한 부분에서 유산에 대한 서로의 공동 발굴도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후에 시간이 몇 년에 올지 모르지만 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어느 당이 어찌고저찌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의 한 영역으로 봐 주시고 준비해 가는 과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저도 당 차원 얘기는 안 했어요, 임오경 위원님이 먼저 하신 거지.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애초에……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시고 최초에 이 아이디어 누가 했는지, 이걸 제출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는지 그 부분 제출하세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하세요.

○임오경 위원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매번 국감 때도 그렇고 전체회의에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상하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하던 사업을, 북한과 연구 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을 올 중단시켰어요. 저도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이게 자꾸 정쟁으로 이어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 사업은, 북한과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하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어서, 3년 동안 중단됐어요. 이거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3년 동안 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바뀌어서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진짜 정쟁하지 말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시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답변에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정쟁이 안 생깁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의 사업 명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리하자고 그랬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개성 만월대 역사성 공간가치 연구.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이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를 상정한 준비라 하더라도 남북이 동시에 현지에 가서 무슨 정비계획, 건물을 세운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하는 실시계획 같은 그런 사업이어서는 안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 문화유산을 우리가 공동 발굴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보유하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하고 연구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정리할 것인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이 공동 발굴조사 작업을 집대성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 우리 차원의 정리 작업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박수현 만약 이 문화 성과를 정리를 안 해 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직무유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바로 무엇인가 할 것 같은 그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정비 복원을 위한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거 지우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학문적 연구 그런 측면에서 이 공동 발굴조사의 후속 사업을 완료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 내용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다음, 4번에 금강산 유역 중요유산 분포지도 제작 이 문제는 저도 궁금해요. 금강산에 우리 중요유산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남북한 주민들이라고 함께 들어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당장 무엇인가 할 것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저도 같은 생각—우리 국민들의 북한 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위원님의 강한 또 진종오 위원님의 강한 반대 의견 개진도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가급적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한 점, 이런 점들을 비추어서 위원장이 이렇게 정리한 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민형배 위원님의 요청이 들어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아니, 이 문제는……

○임오경 위원 아니, 그 문제 말고요.

○소위원장 박수현 정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이지요. 이것도 정부가 90억 원 증액으로 일부 수용을 해서 정리가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님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하면 전체 회의 때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말씀하셔서 속기록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국가유산청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페이지 27번, 국가유산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 사업에서 검토의견이 일부 수용인데 4500만 원 감액 의견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정확하게 보고하시는 것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오늘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류사업 심사와 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2026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중 2026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차장을 비롯한 유산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바로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녁은 안 먹나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없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몇 개 안 남았잖아요.

○소위원장 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몇 개 남았지요?

○소위원장 박수현 지금 9개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하지요.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보류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관 소관은 보류 사업이 모두 9건입니다. 앞선 1차관과 국가유산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건에 대해서 차례로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정책홍보 및 분석 지원에 관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쪽 1번, 정책홍보 및 분석 지원 감액 7억 원이 있는데요. 문체부 입장은 정부안 유지 43억 76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위원님들, 정부 의견을 메모하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의견을 듣겠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의견을 먼저 듣냐면 이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구상을 함께 가지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예상하기 때문에 전체를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1번, 정책홍보 및 분석 지원에 대해서는 7억 원 삭감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라고 하는 정부 측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50억 900만 원, 문체부 입장은 정부안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수용 곤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또 그리고 디지털 여론분석 및 지원 15억 500만 원 감액, 문체부는 정부안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수용 곤란입니다.

세 번째, 매체활용 정책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매체활용 정책홍보 35억 5600만 원 감액 요구하셨는데요. 문체부 입장은 정부안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KTV 운영에 대해서 74억 8600만 원 감액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KTV 운영 관련해서도 수용 곤란입니다.

74억 6800만 원 감액 요구하셨는데요. 정부안은 현안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감액 요구가 74억 6800이 아니라 74억 8600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74억 68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런데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기는 8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는 동안 다음 11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조계원 위원 6800이 맞네.

○소위원장 박수현 6800입니까? 그러면 이게 오타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리고 10쪽 11번, 광역권 관광개발 690억 원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체부 입장은 원안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 여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여수 진남관 문화자원 개발 2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감액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증액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런데 이 자료를……

○조계원 위원 아니, 감액이라니까. 원래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한국문화 관광플랫폼으로 사업을 대체하면서……

○소위원장 박수현 아니, 지금 11번에 여수시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 예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여수 진남관 관광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2억 원 증액 요구하신 부분……

○진종오 위원 11번도 여수고 12번도 여수예요.

○조계원 위원 진종오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걸 빼고 호국 관광플랫폼으로 그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꼬였어요.

○소위원장 박수현 여수 진남관 주변 호국문화 관광플랫폼 조성 2억 증액은 수용이 곤란하다. 지방 이양 사업이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다음에 전통문화 체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5번, 템플스테이 지원, 20억과 100억 중에 문체부는

100억 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100억 원 증액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 75억 감액을 요청하셨는데요. 문체부 입장은 원안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 시니어 스포츠 케어센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시니어 스포츠 케어센터 설계비 반영해서 30억으로 일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30억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30억 증액.

○소위원장 박수현 그리고 아까 여수시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

○소위원장 박수현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위원장님, 아까 조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약간 꼬인 게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감액으로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은 원안 유지로, 굳이 이 예산을 감액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소위원장 박수현 수용 곤란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했던 사업인데 심도 있는 논의가 하나도 된 게 없네요.

○김승수 위원 2차관님,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장난하자고 다 보류 사업으로 뒤로 돌린 거예요?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임오경 위원 특히 고민을 안 하시고 나온 것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전통문화 체험에 있어서 아까 100억짜리와 20억짜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100억에 대한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이유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고스란히 20억하고 100억 올라와 있으니까 100억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승수 위원 지금 국회의원들 놀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승수 위원 똑같은 답변…… 뭔가 구체적인 이유를 대면서 원안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여야 위원들 간에 치열하게 토론도 있었고 문제 제기도 했었고 그래서 보류해서 좀 더 정부 측의 숙고한 의견을 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보류 사업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수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2차관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류해서 다시 재심사에 들어오실 때 1차관과 국가유산청은 심사숙고해서 적어도 일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한다, 어느 정도 감액의 부분은 이런 의견이다,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깊이 고민해서 이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관님 소관은 완전히 그냥 100% 수용 곤란이면 뭐 하러 보류를 했습니까, 이것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1차관 소관의 재보류 사업에 대한 의결 절차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관님 잠깐 나가셔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 예산은 이 정도 감액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아까와 똑같은 상태로 오셔서 위원님들이 지금 다시 의견을 말씀하실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나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일부라도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 결 토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안하시는 위원들하고 소통을 안 했어요?

○**소위원장 박수현** 하여튼 2차관, 잠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가셔서 지금 보류된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왜 원안 유지가 필요한지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 없이 문체부 수용 곤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해 갖고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는 상세한 말씀은 더 후에 드리려고 그랬고, 먼저 한 1차관 쪽에서 결과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려 준 대로 저는 일단은……

○**소위원장 박수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린 거거든요. 여기 감액이나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2차관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 100억 감액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우리 여력상 20억 감액을 수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다만 얼마라도 성의 있게 정리를 해서 다시 들어와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런 절차에 대한 이해와 고지가 잘 안 된 점은 본 위원회의 불찰입니다. 잠깐 나가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관 소관에 대한 재보류 사업을 정리할 테니까 1차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조계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8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위원님들 식사도 못 했습니다. 김밥을 먹든지 그런 거라도 해야지, 이거 빨리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수현** 행정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류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연번으로 모두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재보류 사업은 본 소위원회의 여야 간사격으로 이 문제를 정부 측과 임오경 위원님과 김승수 위원님의 조율의 결과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21번부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21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원안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 설명을 들겠습니다.

56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55번,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와 56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이 켜여 있는데 55번은 정부안 유지로 하기로 하였고 56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은 5억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다음에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걸 별도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98번, 문화예술 향유 지원, 통합문화이용권에서 20억원 감액하기로 하였고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층이나 연령 등을 고려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러면 지금 정부 측의 설명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 아까 조율하신 내용과 일치합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위원장님, 내리교회도……

○소위원장 박수현 내리교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인천 내리교회 역사문화체험관 관련 의견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인 내리교회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기현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등을 조건으로 인천 내리교회 역사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해 종교문화시설 건립비 10억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결은 통으로 예산안 전체를 의결하는 한 번의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21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원안 유지로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56번, 55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46억 8400만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으나 이 증액 금액을 5억 감액해서 41억 8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정부 측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 98번, 통합문화이용권은 20억 감액,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원안 유지로 결정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그리고 76번,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두 분 간사님께서 조율을 해 오셨지만 두 분 간사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전체회의로 넘기

는 것도 본 소위원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오늘 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께서서는 원안 유지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고 또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과 조계원 위원님께서서는 44억 5700만 원 증액분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서로 의견들이 좀 엇갈려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재하려고 중재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제 중재안대로 20억을 감액하는 안과 그다음에 기재부를 통해서 증액해 온 44억 전액을 삭감하는 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계속 토론해 봐야 똑같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떤 의견으로 정리하기가, 지금 의견들이 김승수 위원님이나 정연욱 위원님 또 진종오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44억 전액을 삭감한다 이렇게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이기현 위원 조금 수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증액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이 지금도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토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상 어렵다 할 금액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뉴스에 대해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데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서 일정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 그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오히려 연합뉴스 통신사가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액 삭감이었는데 30억 삭감으로 받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두 분 동의하셨고.

진종오 위원님.

○진종오 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20억 삭감에?

○진종오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현 임오경 위원님 20억 삭감에 아까 동의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려운 결정입니까.

정말로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과 조계원 위원님의 의견을 진짜 공감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평하게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의 다수 안에 가까운 20억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조계원 위원님과 이기현 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이기현 위원님께서 두 분께서 양보하셔서 30억 수정안까지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기간통신사에 대한 지원은 20억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관 소관의 모든 사업에 대한 결정은 다 끝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1차관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금이 8시 35분인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딱 9시에 속개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회의중지)

(21시1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포해 드린 자료 2페이지 관광 부분에 대한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2페이지 11·12·15·27·60번 사업에 대한 설명을 차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1번,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실집행률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감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690억 감액을 요청했는데요. 20% 138억 감액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하나씩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정부 측이 138억 감액 의견을 제시했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2번, 관광자원 기반 조성, 여수 진남관 문화자원 개발 사업 2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 여러 지역에서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가능하다는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정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11번에 감액 2억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그것은 기존에 수용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수용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5번, 전통문화 체험 지원, 템플스테이 지원은 20억 증액과 100억 증액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대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한 사찰당 약 2억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158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00억 안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템플스테이든 명상센터든 매년 전국적으로 여러 개씩 추가 설치가 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민간시설에 대해 가지고 이후에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는 극히 드문 사례란 말이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지원을 끌고 갈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또 차제에 명상센터, 템플스테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묶어서 전국적으로 현재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연간 이용객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문체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의 자료 요구, 당부, 지적 이런 문제들이 포함된 의견을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100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27번,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은 지역맞춤형 생활체육과 유사성을 지적하셨는데요. 철저히 분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원안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 이 부분도 올해 추경에 한 250억 정도 했고 지방 매칭까지 하면 300억이 넘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인지 차관님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미 사업기간이 몇 번 초과됐어요. 그래서 추가 연장을 했는데 어제까지 집행률이 6%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들이 연내 집행이 다 안 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될 텐데, 아마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 추경보다도 좀 적게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집행률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정 부분 삭감을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도 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집행계획을 잘 세워 보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감사합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60번, 시니어 스포츠케어센터는 1050억 감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설계비 10억씩 3개소 해서 30억 원 증액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당성 연구와 기본계획은 연구원 조직을 통해서 철저히 먼저 하고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차관님, 1050억 감액을 요구했는데……

○**조계원 위원** 증액이에요, 증액.

○**소위원장 박수현** 증액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증액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소위원장 박수현 그리고 문체부는 1차 연도 설계비 30억 원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음,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1번, 정책홍보 및 분석 지원입니다. 홍보 전문교육 사업인데요.

○소위원장 박수현 잠시만요.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제일 늦게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는데, 정부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지키고자 하는 요구가 강할 것이고요. 또 야당은 이 중에서 일부라도 삭감하기를 원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체부에서 모두 다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삭감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는 일관된 의견을 다 내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내부적으로 상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3번 매체활용 정책홍보에서 정책광고 예산인데요. 그중에서 5억 원 정도를 감액할까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나머지는 전부 원안 유지, 수용 곤란이라는 뜻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일부 수용이다 이거지요, 3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3번에서 5억 삭감.

○소위원장 박수현 이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과 진종오 위원님, 야당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일단 앞서 지적한 것처럼 증액률이 전체 문체 예산의 2배 반, 그러니까 25% 증가하였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특히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디지털 소통 쪽이 무려 50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오랏나무 아래서 갇힌 바퀴 매지 마라는 것처럼, 특히 내년엔 선거가 있다 보니 이런 예산들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일정 부분은 굉장히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정도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홍보하려는 그런 쪽으로 정책들이 설계됐다 이렇게 저희가 예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프로모션 또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정 부분의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 추가 감액이 아니지요, 감액은 안 했으니까.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 부분이 최종 예결위까지 통과돼서 이렇게 확정되다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매체 선정이라든지 또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뿐만 아니고 또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 선거를 감안해 가지고 집행 시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하나 양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대국민 영상저작권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KTV에서 사업 예산을 무려 60억을 신규로 책정해서—주로 대통령이 되겠지요—국내 현장 소통 및 해외순방 영상을 자체 제작도 하고 중계도 하고 또 이런 영상들을 무료로 전면 개방함으로써 또 확산시키려는 그런 예산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과거에 극장에 가면 볼 수 있었던 대한뉴스 이런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다른 영상매체가 없을 때 했던 그런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그런 모습이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좋은 면만 영상으로 편집해서 그걸 또 무료로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게 어느 항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4번, KTV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이에 대해서……

○진종오 위원 저도 잠시 한마디만……

○소위원장 박수현 예, 진종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진종오 위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요. 지금 정부 측에서도 디지털 광고가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광고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닌데 과연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어디에 광고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전략은 있는지 그리고 광고가 모든 국민들한테 정확히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까지 타깃층이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KTV도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의 말에 동참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각각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KTV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김승수 위원님, 제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KTV를 잘 압니다. 이 KTV의 역할이 이재명 정부에 와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냐면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실에는 전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실은 영상 전속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사진 전속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KTV가 전속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늘려야 되고 비용도 당연히 증가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정치적 뜻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키사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증대해서 제가 숫자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KTV가 24년 대비 26년에 키사의 중계 확대 횟수가 24년에 69회에서 26년에 135회 이상으로 이렇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많이 늘어 가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KTV가 그런 역할의 변화가 있다,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김승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은 야당대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의 방침이 있을 겁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절대 이것은 시각이 안 된다는 방침이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김승수 위원님의 지금 그 주장을 속기록에 강하게 여러 차례 잘 담았고요.

이 문제는 더 시간을 끌어 봐야 서로 해결책이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과 진종오 위원님께 지금 정부 측에서 그리고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그래도 야당의 정말 그런 강한 요구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응답이라도 해야 된다고 정부 측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체활용 정책홍보에 대해서 5억 원 삭감안을 말씀드렸다는 사실관계만 제가 설명을 드라이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를 하고 충돌해 봐야 여기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거나 그냥 예결위로 보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 많은 예산안을 이틀 동안 심사를 하면서 양보해 주시고 또 수용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절대로 정권 홍보에 이용하거나 지방선거에 어떤 목적을 두고 이용한다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전체 소통 예산은 정부가 설명한 대로 매체활용 정책홍보 5억 원 삭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정되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매체 그 부분에는 동의하고요. KTV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물을게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KTV는 영상저작물 전면 개방 발표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7월에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취임과 동시에 바로 영상저작물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투명성을 강조하셨고.

또 하나는 방송사 코리아폴단 등 기존 폴단에서 모두 탈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철수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철수시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이거 왜 철수시켰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저작권 문제 때문에 KTV가 다 제작을 하게 되면, 민간 방송사가 들어오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철수해서 KTV가 키사로서 촬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영상물은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완벽하게 투명성을 지금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순수 국정기록 전속기관으로서만 기능할 것인 만큼,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진짜 순수 국정기록 전속기관으로서만 기능을 다할 것이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지금 세 가지를 질의했지만 KTV는 영상저작물 전면 개방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7월에 발표한 사안이고 또 지금 방송사 내의 투명성을 고려해서 코리아폴단 등 중계폴 전체 다 기존 폴단에서 모두 탈퇴를 시킨 상황이고요.

○소위원장 박수현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순수 국정기록 전속기관으로서만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KTV에서 운영비 삭감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투명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이러한 비위적인 행위가 드러난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가감 없이 그다음 연도 예산에서는 아마 삭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성을 강조해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는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전혀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철저히 KTV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김승수 위원님, 발언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 이 부분 60억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역사를 회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과 또 다수 의견을 가지고 전체위에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울러서 디지털 여론분석 및 지원 예산도 지금 크게 증가가 되었는데 앞서 염려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부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대현 예?

○김승수 위원 디지털 여론분석, 일일 분석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배부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디어디 배부하는지?

지금 기획서를 보면 국회에도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야 배분을 하지요, 결과에 대해서. 현재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일일 여론조사 포털…… 디지털 여론분석 및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상을 늘리고 또 영상, 오디오 이런 자료까지 분석을 해서 매일 그 자료를 어디에다 제공하려고 하느냐.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온라인 여론분석을 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김승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디지털소통관 이정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여론분석은 각 부처에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론의 움직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키워드를 넣어서 그거를 검색해 가지고 홍보할 때 자료로 쓰고 정책을 개편하거나 재편할 때 자료로 활용합니다.

○김승수 위원 저회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각 부처, 대통령실, 국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는 여당, 야당 다 지금 제공이 되도록 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결과만 주는 것이 아니고 분석했을 때 로데이터까지 제공이 되어야지 투명성에 대한 또 공정성에 대한 담보가 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그런데 로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요청을 주시면 드리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로데이터를 요구하면 가감 없이 제출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그나마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관련선거를 우려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체와 기능상 편향적 데이터 수집·분석 활용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관련선거 여론 호도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권이 잡든지 정책 홍보로 인한 관련선거를 우려하나 매년 정권을 잡더라도 전 정부에서도 정책 홍보는 계속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려해서 예산을 5억 삭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솔직히 반대 입장이지만 그래도 박수현 소위원장님께서 5억을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시다. 하지만 자꾸 관련선거를 염려하셔서 정치적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소위원장의 의견을 저는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중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진행에 미숙한 소위원장을 만나서 이틀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보다 약간 유능한 민형배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저보다 적은 자료를 가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협의, 진행을 위해서 애쓰신 임오경 위원님과 김승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 측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 다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적시에 적재에 쓰고자 하는 충정의 말씀들이고 또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충정의 제안이시니까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체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장님 또 입법조사관님, 심의관님 또 전문위원님 모두 수고하셨고, 보좌진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사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이기현 임오경 정연욱 조계원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종무실장 김도형

국민소통실장 공형식

대변인 송윤석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소통정책관직무대리 이영호
소통지원관 정태경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국장 이선영
체육협력관직무대리 이혜림
관광정책국장직무대리 박미경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이은복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